

월간 가든인 1월호

January 2015

Gardenin

특집
기사

여고생의 교정속 정원문화 만들어가기

Gardenin Maintenance

Seed practice & 식재와 파종 리스트 만들기

여고생의 정원 가꾸고, 정원속 문화와 창작공간(특집)

김세희의 정원일기

동결기 월동준비 Q&A

키우고, 맛보는 가든디쉬



Gardenin Plants

정원속 보이네

편을 식물(설매) 소개

백문동의 디자인의 문화와 특징



Gardenin Culture

그리스 산토리니

로도의 색이 있는 정원

겨울 정원의 매력

우정아의 plants school



Gardenin Information

창조박람회, 도서소개, 제2의 인생기



ISSN 2288-1719



9 772288 171000

10,000원

잔디 잡초방제의 새로운 해결사!



syngenta

- 다양한 잡초에 적용가능한 광범위 제초제입니다.
- 미등 난방제 침투를 효과적으로 방지합니다.
- 잡초 발생 초기 뿐만 아니라 말초 전에도 사용 가능합니다.
- 약효가 탁월하며, 역효과 지속기간이 길습니다.
- 잔디(완전잔디)에서 안전하게 사용 가능합니다.

※ 초량(15g/100g) 한국산입니다.

무휴상담전화: 080-900-1114 | 상담전화 1588-3889

신젠타 코리아(주)
www.syngenta.co.kr

신젠타는 표지사항을 참고하시고 SYNGENTA와 관련된 모든 사항은 신젠타 코리아(주)에 문의하십시오. (신젠타는 표지사항을 참고하시고 SYNGENTA와 관련된 모든 사항은 신젠타 코리아(주)에 문의하십시오.)



설중동백 雪中冬柏

최항 崔恒(1409~14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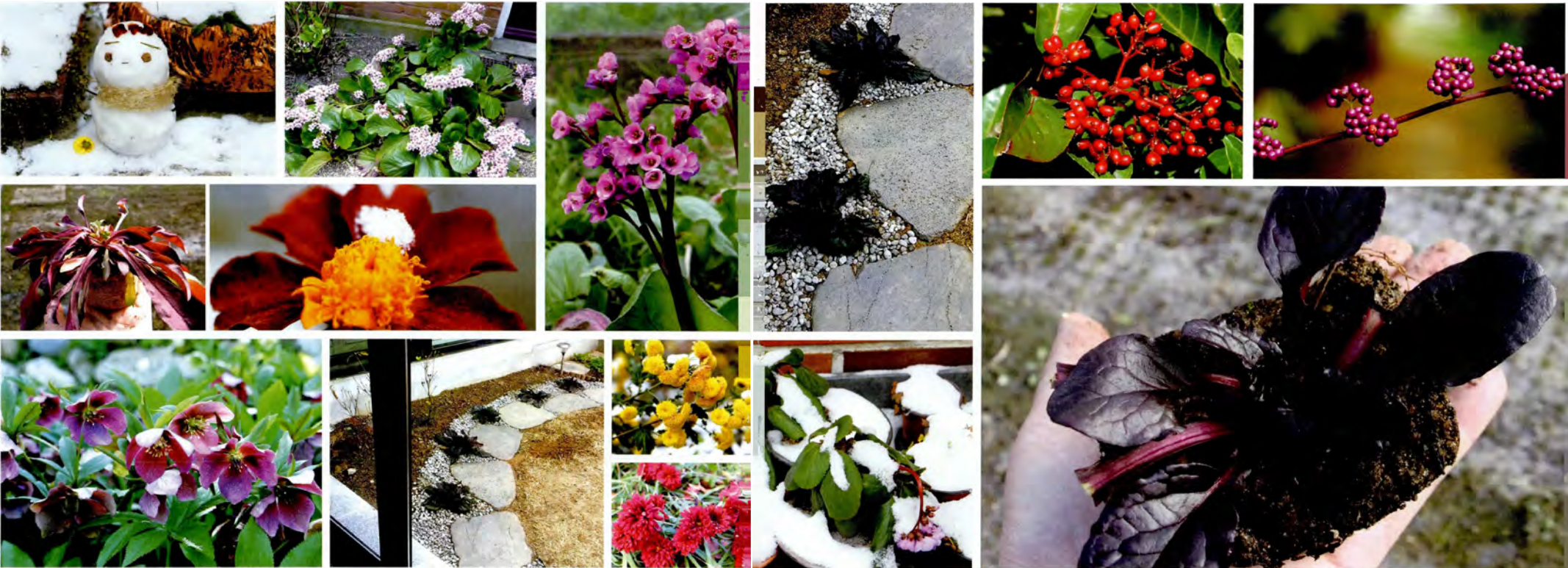
Camellia japonica 동백 붉은꽃
Camellia reticulata 동백 분홍색

눈을 둘러보니 천가지 꽃도 한중기 바람에 자취 없는데
너 홀로 남천 臘天(한겨울 풍경)에 피어있으니 애처롭구나.
북제北齊(거울)는 응당 鏡國傾國을 생각하고
동황東皇(봄)은 이로부터 오로지 공을 사양하겠지,
잎이 고와도 한속의 푸름이 나지 않았고
꽃의 선명함은 기꺼이 취해서 조홍潮紅을 빌렸구나
여섯 겹 뚫고 나왔을 때 비로소 기이함이 나타났으니
곧바로 청명한 날 듣는 해의 광휘를 차단하리рода.



우리나라에서는 동백이라는 이름은 산다화山茶花, 천엽다. 해홍화海紅花, 선우 仙友 등 여러 이름으로 불리우며, 동백의 한자어 품이는 겨울의 잣나무라 품이 된다. 고려시대 이규보가 저술한 '동곡이상국집'이라는 한시에 처음으로 동백이란 이름이 등장. 한시에 처음으로 동백이란 이름이 등장. 중국에서는 동백나무를 산다화로 총칭하며, 과거 수당시대의 문헌에는 동백나무를 해류, 해석류, 해홍화라는 이름으로 기록되어 식물 이름 앞에 '해海가 붉은 것은 모두 해의 귀화식물인 수입식물 명칭을 말한다.

CONTENTS



Gardenin Maintenance

- 6 2015년 우리씨드그룹의 Vision
- 8 정원사의 정원만들기 가이드 & 절기별 정원사의 스케줄
년중 정원 작업 목록만 잘 선정하여도 머리로 농사짓는다는 말이 있듯이 올랐을
기로 이어가는 정원사의 할일, 초보 정원사도 할 수 있는 년중 스케줄
- 12 정원사의 1월별 정원 관리
겨울 동절기 정원, 일이 필요한가요? 왜? 어떻게? 봄의 정원을 바라보는 정원사
의 월별 계획을 꼭꼭집으며...
- 16 독자가 만드는 Q&A
- 25 Seed Practice
- 26 여고생의 정원 가꾸고, 관리하며, 보존하는 정원문화의 현장
수도여고 정원문화 연재 1
- 32 겨울의 '저온작물' 딸기 재배하기
- 34 정원사의 일기
- 38 겨울김장, 우리씨드의 가족이 힘을 모으다

Gardenin Plants

- 40 정원 '속보'이네
박공영박사님의 식물의 기본 특성을 알고 정원의 디자인에 접근 하는 '속'을 놓치
지 말자
- 44 겨울 정원의 매력 - 남천
겨울 정원에 빨강 열매로 분위기를 자아내며 내한성과 번식도 강한 남천의 매력은?
- 46 지피식물로 사계절 사랑받는 맥문동
- 48 겨울정원의 지피식물 아주가
- 50 겨울철, 향내음을 전하는 지피식물의 소개
- 52 안완식의 토종 식물소개/부추
- 56 이선아의 소나무
한국의 나무, 아름다움과 특성, 정보를 나무전공 박사님의 정보와 연재 들려주는 나
무이야기에 안에 정원문화를 쌓아간다
- 60 NEW WAVE 식재와 정원리모델링
정원의 테마와 가족의 편리성을 고려한 정원공간의 작업 'New Wave' 정원의 탄생
과 식물의 표현 공간과 Sunken Garden 소개
- 66 봄을 알리는 식물정보

- 70 겨울 정원속 그라스의 식재 & 디자인의 연출
- 72 겨우살이, 반기생식물로 겨우 살아가는 식물
- 74 커피와 가드닝을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 플랜트스쿨
(PLANTSCHOOL)

Gardenin Culture

- 78 꽃보다 아름다운 겨울정원의 열매들
- 82 그리스 산토리니(Santorini)의 겨울정원
그리스의 겨울기간 정원소개와 지중해 식물들을 배우고 익히며 '산토리니'의 여행길
안내
- 87 정원을 읽어내는 새로운 시각 기호학(Semiotics)
도시의 공간학을 익힌 김홍렬박사님의 정원속 기호학은 무엇일까?
- 92 Colour in the Garden Purple
정원의 디자인 식물색상이 좌우, 화해디자이너를 일면서 교육받은 색채의 미법에 관
심을 쏟으면 정원에 어떤 변화가 나타날까
- 98 겨울 정원의 매력을 찾다.
- 102 실내정원의 CRAFT
겨울기간 실내에서 똑딱 누구든 DIY의 정원을 만드는 step by step 으로 쉽게 이용.
- 104 청어 오감으로 만나는 가을 숲

Gardenin Information

- 106 우리꽃 창조경제 박람회에 가다.
- 108 '우리꽃'에 묻혀 사는 60대 정규 신입사원의 희망찬 베틀가
- 110 도서소개

Gardenin

2015년 우리씨드그룹의 Vision

박공영 우리씨드그룹회장

우리씨드그룹은 생명산업을 근간으로 하는 기업으로 우리꽃연구소와 우리꽃영농조합법인 그리고 농업회사법인 가든조아, 벽화수 주식회사를 구성하고 있다. 우선 우리꽃연구소는 우리의 종자산업의 핵심으로 한국최초의 야생화 로열티를 실질적으로 수출하여 우리나라를 로열티수입국에서 수출국으로 품종독립을 이루는데 일조를 한 품종연구 전문회사이다. 우리꽃영농조합법인은 우리나라의 조정 식물을 생산하고 유통하는 회사로써 대한민국의 정원 식물의 식재패턴과 관리 그리고 신품종 보급에 선두적인 전문 기업이다.

또한 가든조아는 우리 일반의 국민들과 소통하며 꽃과 정원을 영위하고 문화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리드하고 소통하는 기업이다. 미래 지향적인 벽화수 주식회사는 인공구조물 녹화 전문회사로 특히 건물의 벽면녹화를 실현하여 지구 환경의 자연스러운 치유와 복원을 이루고 지구의 환경문제를 극복하는 데서 나아가 도시 안에서의 자연성 회복으로 인류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행복에 이르게 하는 기업이다.

이들이 이루는 우리씨드그룹은 우주의 에너지 특히 태양에너지의 이동과 순환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생명산업기술로 극복하여 인류와 지구의 새로운 회복을 완성하고 다가올 미래 인류의 정체성과 생명활동의 순화와 치유를 이루어 인류 행복의 근원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우리씨드그룹 비전과 CI의 새로운 선포

우리꽃창립 15년을 넘기면서 새로운 15년을 맞이하는 우리그룹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세대인 자연과 도시가 문화적 환경적 일체화되는 나트컬처 시대를 앞장서 준비하고 구현하기 위한 사상과 비전을 제시하기 위한 새로운 CI를 선포한다.

Seed의 의미

씨앗은 모든 생물체의 에너지를 다음세대로 이동시키는 근원이다. 모든 생물의 에너지를 함축하고 있는 씨앗을 하나의 점, 하나의 세포, 하나의 핵으로 생명활동의 가능하게 함을 의미 한다. 기본단위는 세포(Cell)이다. 이 세포 안의 핵이 분열하고 증식함으로써 조직이 되고 기관이 되고 생명체로 자라는 현상을 원으로 나타내었다.

세포분열과 무한대

우리씨드그룹의 심볼마크에는 생명의 근원이 되는 세포와 핵의 모습이 담겨 있다. 하나의 핵이 2개로 분열하면서 나타내는 ∞는 한정하지 않는 무한대를 의미하고 이는 다시 4개의 원으로 분열하여 조각을 나타내고 4방을 의미한다. 또 이들이 분열하여 만들어 내는 8개의 원으로 완성하여 8방을 구현하였다. 따라서 4방 8방의 사상을 넣음으로써 지구와 우주를 연결하였다 또한 8개의 원을 연결하는 하얀색은 실 혹은 끈으로 작용 8개의 원을 묶어주고 있는데 방향, 절기와 함께 순수, 순결, 청렴을 상징하고 이 하얀의 여백은 배경인 동시에 주체가 되기도 하는데 색즉시공, 공즉시색의 의미를 함께 표현하고 있다. 또 숫자 8은 낙원의 회복, 재생, 부활, 완전한 리듬의 상징이다. 또한 8은 완성상태를 내며 기산과 공간을 상징하기도 하는 것이다. 또한 숫자 8은 모든 종교에서 완전한 숫자를 의미하고 재생과 불멸을 뜻하기도 한다.

아름다움의 결정체

심볼마크를 구성하고 있는 8개의 원과 흰색 라인으로 분리된 여러 24개의 타원들은 정화한 대칭을 이루고 있다. 대칭은 우주 만물의 모습으로 균형과 평온을 상징한다. 또, 이들이 나타내는 하나하나의 공간은 세포인 동시에 씨앗 또는 꽃잎을 상징하기도 한다. 따라서 이 원들이 모여 완성되는 전체 형상은 '생명의 근원과 아름다움이 영태된 씨앗'이라 할 수도 있으며 '씨앗이 자라 성장한 식물' 또는 '꽃잎 한 장 한 장이 활짝 피어있는 꽃송이' 등 다양한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심볼마크 자체가 생명의 결정체임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이 이루는 24의 숫자는 농경사회의 절기를 나타내기도 하는데 이것은 생명현상을 나타내기도 하고 농업과 자연의 변화를 상징하기도 한다.

생명의 에너지

생명의 유전 에너지의 근원이 되는 것은 태양이다. 우리씨드 심볼마크의 밑바탕 생명의 근원과 그로 인해 잉태된 생명의 결정체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심볼마크의 붉은 컬러는 태양을 의미한다.

태양은 지구 생명체의 에너지의 근원이다. 태양에너지는 이동하고 순환한다. 마찬가지로 사라지거나 없어지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생명역사, 인류의 역사는 태양과 지구에너지와 우주에너지의 이동과 순환이 있어 많은 이발 혹은 소모적 에너지의 이동을 경험했다. 사실 태양에서 오는 모든 에너지의 70% 정도만 인간과 환경에 전달되고 30%는 이용하지 못한다. 생명산업을 근간으로 하는 우리씨드그룹은 태양 에너지의 전이와를 주구안을 목표로 생산성을 제공한다. 특히 인류 식물의 녹화를 가능하게 하여 태양에너지를 최대한 이용 생명현상을 연장하는 것이다. 이 것과 인류의 노동 생산성, 에너지 생산성을 증가시켜 여유의 에너지를 지구환경개선과 치유에 활용하여 미래지구를 청정, 파라다이스의 아름다운 지구를 건설하는 것을 의미한다.

정원사의 정원만들기 가이드

가드인 정원사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원은 조성 계획부터 시공, 운영, 관리에 이르기까지 많은 정성과 공력이 필요합니다. 1년 365일 노력이 필요한 곳이 정원이지만 언제, 무엇을, 어떻게 해야하는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많은 시행착오를 경험하시는 것 같습니다.

정원사 여러분들께 조금이나 정원을 조성하고 관리하는데에 도움을 드리고자 '2015년 24절기 별 정원사의 작업스케줄'과 '정원사의 정원 관리 및 업무리스트'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첫번째, '2015년 24절기 별 정원사의 작업스케줄'은 기후와 계절의 변화를 반영하여 24절기를 기준으로 조경수심기와 채소정원에 적합한 수종을 소개하였습니다. 두번째, '정원 관리 및 업무리스트'는 정원을 계획하고 조성 및 관리하는 과정에 해당되는 개별 업무들을 크게 사계절로 나누어 실행하는 계절에 맞게 표기하였습니다. 이는 정원사 분들이 정원 업무를 언제, 어떻게, 어떤 내용을 숙지하고 준비해야 할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정원 관련 정보들은 정원을 직접 조성할때 유익한 자료로 활용되리라 생각합니다.

2015년 1월호에 소개하는 이 두 정보를 바탕으로 앞으로 정원사 여러분들이 복잡하고 다양한 정원 업무에 대해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정보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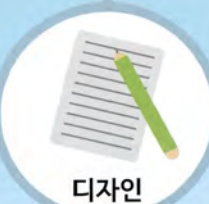
정원 가꾸기 업무 과정



준비



심기



디자인



관리

정원사의 정원관리 및 업무리스트



번호	리스트	겨울			봄			여름			가을		
		12	1	2	3	4	5	6	7	8	9	10	11
01	관목 & 덩굴 정리												
02	가지 치기 / 전정 작업												
03	퇴비 주기												
04	땅 뒤집기												
05	춘·추식 구근 심고 나누기												
06	농사 짓기(채소과일종자발아)												
07	화단 관리												
08	정원 디자인 관리												
09	원에 업무												
10	정원 도구 수리·유지·보수												
11	접붙이기												
12	잔디 관리(깎기)												
13	온실 비닐하우스 관리												
14	추수하기												
15	조경 경관 디자인												
16	춘식·추식 씨앗 파종												
17	동절기 정원 관리 준비												
18	풀 베기(잡초제거)												
19	병충해 관리												
20	식물명 표찰 작업												
21	식재 선정 작업												
22	식재 심기 작업(춘식·추식)												
23	잔디 작업 준비(엷장)												
24	토양 분석 및 관리												
25	관수 시설 설치 및 유지												
26	나무 버팀대 설치 및 점검												
27	관수 공급												
28	총괄 관리 감독(정원관리피드백)												
29	작업전 후 사진정리												
30	파종 시기 리스트 작업												
31	월동준비												

- 춘계전정 4-5월, 생장기, 상록수 형태정리(생장도모)
- 하계전정 6-8월, 밀생가지, 도장지 전정, 약전정
- 추계전정 9-11월, 도장지, 혼잡한 가지 약전정
- 동계전정 12-3월 휴면기 실시, 강전정
- 시비시기 양분의 종류와 시비방법에 따라 다르나 생육이 왕성한 봄철이 바람직(시비는 식재와 동시에 시행, 적용량은 설계도서에 따름)
- 토양분석 식재전 토양의 비옥도와 pH측정 / 토양시료 채취(조사지역 10개소 선정)
- 채취 깊이 초목(깊이 75-150mm), 잔디(0-50, 50-100, 100-150mm), 교목(0-300, 300-600mm), 교목(0-300, 300-600, 600-1200mm)

2015년 절기별 정원사의 작업스케줄

계절	겨울 WINTER						봄 SPRING					여름 SUMMER					가을 AUTUMN					계절											
날짜	DEC 12	JAN 1	FEB 2	MAR 3	APR 4	MAY 5	JUN 6	JUL 7	AUG 8	SEP 9	OCT 10	NOV 11	DEC 12	JAN 1	FEB 2	MAR 3	APR 4	MAY 5	JUN 6	JUL 7	AUG 8	SEP 9	OCT 10	NOV 11	DEC 12								
계절변화																																	
기후	대설	가장쌀은 날	북풍한설	한파	봄기운	얼음해동 봄비	개구리	밤낮길이 =	화창	곡식 비	여름 가운	가장 간낮	피약발 더워	한중막 더워	가을 더워	더워 후퇴	신선	밤낮길이 =	찬이슬	서리	겨울 가운	눈	눈	눈									
꽃	* R- 우리꽃의 해외 Royalty 상품						동백	목련	개나리	복숭아꽃	진달래	산철쭉	아카시아	이팝나무																			
조경수에 피는 꽃							숙근 천인국	스텔라 원추리	가우라R	코레우리R	하늘국화																						
채취시기	* 춘식 종자(3-4월): 양귀비, 코스모스 * 추식 종자(10-11월): 우리법면 3, 4호, 안개꽃, 양귀비, 수레동자, 금계국, 숙근코스모스						쑥갓	호박	고구마	토마토	오이	수박	토란	감자	상추	참외	생강	부추1차	홍화														
피종 옮겨 심기	* 춘식 구근 심기: 3-4월 * 추식 구근 심기: 10-11월						가지	고추	호박	토마	오이	물배추	참외	대파1차	부추1차	대파2차	부추2차	상추	양파	대파2차													
거두기													물배추	마늘	옥수수	콩	양파																
24절기	대설	동지	소한	대한	입춘	우수	경칩	춘분	청명	곡우	입하	하지	소서	대서	입추	처서	백로	추분	한로	상강	입동	소설	대설	동지	소한	대한	입춘	우수	경칩	춘분	청명	곡우	입하



정원사의 월별 정원 관리

가든인 잡지는 정원을 관리하는 전문가와 초보자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도록 월별 정원관리 정보를 매월 신기로 하였습니다. 정원사의 정원관리 및 업무 리스트를 참고하시며 정원은 일년 12달 정원사의 눈길이 닿아야 하며, 정원사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식물은 건강히 자란다고 합니다.

“정원의 완성”은 정원사의 “정원관리”로 마무리...

가장 추운 달 / 대한 大寒, 소한 小寒

1월의 정원은 서리와 강풍 그리고 폭우의 피해를 줄여야 하며, 기동 및 지지대와 매듭 그리고 부직포등이 훼손되었는지를 확인하고 햇볕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자리로 식물을 옮겨놔야 합니다. 야생동물에게는 겨울 동안은 먹이가 부족하기 때문에 특히 새들에게 먹이를 주는 것도 필요 합니다. 또한 내년에 채소를 어디에 심을지 미리 계획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1월의 정원 작업 리스트

1. 크리스마스 트리나 가지를 잘게 잘라서 멀칭(Mulching)시 사용하기
2. 맑은 날 온실을 환기 시키기
3. 흙 뒤집기를 못해준 곳의 흙 뒤집기 하기 (흙도 숨을 쉬어야 좋은 토양으로 변한다.)
4. 잔디밭 가장자리나 부분 이식자리의 보수하기
5. 추식 구근 심은 곳에 배수가 잘되도록 검토 하기
6. 다음 계절에 재배할 채소작물을 계획하기 (채소밭은 돌아가며 농사짓기, 휴면기 땅)
7. 굵주린 새들의 먹이와 물을 꾸준히 주기
8. 실외의 복숭아 잎 등이 등글게 말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동절기 지역은도에 따라 과일나무를 보호 하거나 비닐로 덮여주기

꽃

씨부리기와 심기

따뜻한 온실에서 혹은 모종상자에 베고니아(Begonia), 로벨리아(Lobelia), 샬비어(Salvia)와 양아욱(Pelargonium)이 어린 식

물로 자라날수 있게 씨 뿌리기를 준비합니다.

1월에 배의 씨부리기를 할 수 있으며, 이른 가을에 씨부리기를 한 배는 1월에 화분으로 옮겨 심어야 됩니다. 햇빛이 잘 드는 창턱이나 높은 천정의 온실에 온화할 때 땅에 심어야 합니다.

키 줄이기, 가지치기 그리고 분할하기

- 백합과(Lily)의 식물 과 아이리스(Iris) 주변도 누런 잎을 잘라서 봄에 꽃이 잘 보일 수 있게 한다.
- 잔디나 다른 다년생 식물이 겨울을 나기 위해 기를 줄여 줍니다. (동해를 입지 않도록 정원 정리가 필수)
- 아칸투스(Acanthus) 플록스(Phlox)등의 다년생류의 식물들은 항상 개화후 줄기 자르기 해야하며, 온화한 지역의 건조한 기간에 다년생 초본 식물을 뽑아 분할하여, 이는 개재수 중가나 원기 회복 그리고 질 좋은 개화를 유도가 가능합니다. (Ex. 아이리스, 맥문동 등등)



일반적인 관리

부드러운 식물은 내부 보관하며, 2월이 시작 되면 온실이나 배

정원사의 월별 정원 관리 - 1월

란다에 옮겨 놓아야 합니다. 추운 지역에서는 가을부터 안으로 들여놔야 하며, 더 추워지면 서리 방지 및 보호가 되는 사기 화분에 에어캡이나 천 또는 직물을 사용으로 동파를 막고, 약한 화분들을 남향쪽에 두는 것도 좋은 방법. 보호용 짚이나 직물을 사용하여 식물을 보호해 주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고산 식물인 경우 숨을 쉴 수 있도록 위에 덮인 낙엽을 치워주고, 노면은 모래 같은 퇴비를 덮어 줍니다. 잡초를 제거하고 멀칭을 하여 다음에 올 봄을 준비해야 됩니다. 빈통과 화분은 깔끔히 정리를 하고 쓰레기는 정기적으로 정리하며, 쓰레기는 퇴비나 모래와 함께 멀칭을 할 수 있으며, 모래는 미학적인 효과와 물기제거의 효과를 동시에 줍니다. 처마나 발코니에 있는 화분에 물주기를 하며, 손 깊이의 퇴비를 확인하여 건조한지를 알아보고, 화분의 흙이 축축하고 마르지 않게 유지시켜 줘야 합니다. 화분을 받침이나 벽돌 위에 놓아 두는 것은 화분이 너무 젖



비닐로 겨울 축찬을 대비 비닐 덮어 보호하기

미리 계획하기

봄에 심어 여름에 개화하는 구근, 질 그리고 다년생 초본들을 미리 준비하여 필요한 수량 주문을 합니다. 봄을 기다리는 정원사는 많으나 고급 초본류는 그리 많지 않아 놓치면 1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정원에 필요한 사용재료 리스트 작성하며, 올해에 정원의 업무에 필요한 자재 준비 리스트와 흙, 영양제 등등을 점검한다..

해충과 질병 관찰

보관중인 구근은 종류인 달리아(Dahlia), 베고니아(Begonia)와 칸나(Canna)의 뿌리를 점검하여 마른 기미가 보이는지 관찰과, 축축해서 부패되는 주의가 필요하고, 뿌리가 완전히 마르지 않게 하는 것 도 중요합니다. 너무 축축하면 곰팡이가 번식하여 쉽게 고사하며, 온실은 통풍이 잘되게 유지해 되며, 키가 작은 식물의 죽은 잎을 잘라내야 식물이 썩는 것을 방지 할 수 있습니다. 솥털 같은 흰색 곰팡이나 겨울 팬지꽃의 검은 점은 주의해야 하며, 감염된 잎,식물은 뽑아내야 합니다. 죽은 다년생 식물에서 발생하는 부패를 관찰해 보며, 땅속 구근이 썩을 기미가

보이는지 확인해서, 썩은 구근은 버립니다. 많은 질병이 겨울 동안 흙 속에서 겨울을 나게 되고 따뜻해 지면 다시 식물을 공격하게 됩니다. 새로운 종을 심거나 옮겨심기를 해서 이런 문제를 줄일 수 있습니다.

수목과 관목 정원관리

심기와 옮겨심기

낙엽이 지는 울타리용 식물과 수목을 뿌리째 심을 때, 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말뚝을 먼저 박는 작업을 합니다.



비닐로 겨울 축찬을 대비 비닐 덮어 보호하기

장미를 새로 심을 때는 기존에 장미를 심었던 장소를 피해 심어서 병균 재발의 문제를 막아 줍니다. 활엽수를 옮겨 심을 때는 땅이 침수되지 않고 얼지 않게 해주어야 합니다. 일반에게 공개된 정원이나 정원센터를 방문하여, 마음에 드는 층층나무(Cornus), 버드나무(Salix) 그리고 딸기나무(Rubus)들을 정하여서 겨울 장식으로 심을 수 있게 고려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일반 관리

고정된 나무의 매듭이나 지지대를 확인과 새로 심은 수목과 관목이 결빙이나 강한 바람으로 약간 뒹굴렸을 때 땅을 단단히 다져줍니다. 연약한 활엽수의 가지를 짚으로 감싸거나 부직포와 끈으로 묶어주면, 서리로부터 보호.. 새로 심은 수목, 관목 그리고 화양목을 차가운 바람이나 서리로부터 보호해야 뿌리가 들리거나 흔들리는 것을 방지하며, 뿌리가 흔들리면 부드럽게 땅을 다져주고, 자연적인 상태로 보호가 힘들면 임시 바람막이를 세워 줍니다. 두껍고 마른 멀칭은 추위로부터 뿌리를 보호하며, 가지들은 부직포를 덮거나 마른 짚 위에 부직포를 덧대서 약한 식물들을 보호 한다. 나무로 프레임용 짜서 비닐랩(뽕뽕이)으로 감아도 사철나무에게는 빛을 막지 않으면서 같은 효과를 볼 수 있으나, 비닐이 안에 닿아 응결이 되면 얼어 붙거나 썩을 수도 있으니 주의를 해야 합니다.

어린 나무의 주변 관리

눈이 내린 후 침엽수와 낙엽식물 그리고 빛이 많이 필요한 나무의 가지에 쌓인 눈을 쓸어줘야 합니다. 폭설로 인해서 가지가 휘거나 부러져 나무의 원래 모양을 망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가지치기와 실습

여러 낙엽수와 관목 그리고 화양목은 지금이 바로 휴면기이기 때문에 2-3월초에 가지치기를 해서 새 단장을 해줘야 합니다. 가지에 잎이 없을 때 하는 것이 작업이 어떻게 되었는지 확인 하기도 쉽습니다. 너도밤나무(Beech), 개암나무(Hazel) 그리고 장미(Rose)가 여기에 속합니다. 예외로는 상록수와 봄까지 남아 있을지 의심이 되는 부드러운 식물 그리고 장식 채리(Ornamental Cherries), 자두(Plums), 아몬드(Almonds) 같은 벚나무(Prunus) 종들이 있으며, 가을이나 겨울에 가지치기를 하면 Silver Leaf Disease에 취약해지기 때문입니다. 화양목과 낙엽식물을 지지대에 잘 묶어서 바람에 의한 피해로부터 보호를 하며, 아이비나 낙엽식물은 지금 잘라주어야 하며, 창문과 문 그리고 흙통이나 처마와 거리를 유지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해충과 질병 관찰

식물의 역병으로 인해 성년 나무도 가지 마름병이나 잎마름병을 얻을 수도 있으며, 민감한 나무는 습한 겨울 날씨와 배수가 잘 안 되는 토양에서 이런 문제를 야기할 수도 가능하며, 나무에서 떨어진 낙엽이 가지치기를 못해서 가지가 엉겨있는 곳에 떨어져 통풍이 잘 안되면 썩고 질병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나무 껍질에서 자라는 버섯(Bracket fungus)이 이 시기에 보이기 시작해서 나무의 건강이 안 좋아지면, 전문가에게 보여서 전문의 견을 들어보아야 합니다. 낙엽지는 나무의 줄기와 몸통이 보이기 시작하면, 동고병(Canker)의 피해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병균에 감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굵거나 훼손된 가지를 가지치기 합니다.

잔디

일반 관리

날씨가 포근할 때 잔디밭에 새로운 잔디를 깔거나 빈틈과 돌출된 부분을 고쳐야 합니다. 새 잔디를 H자로 잘라서 잔디에 채우거나 아니면 빈틈에 흙을 채우고 튀어나온 부분의 흙을 긁어 없애면 됩니다. 새로운 잔디를 깔 때 만나는 부분이 꼭 잡히게 해서 꼭꼭 밟아 줍니다. 잔디밭의 가상자리 부분 특히 꽃과 나무 주변은 정원의 다른 곳의 잔디를 가져와서 보수를 합니다. 습하고 질척한 시기에 발자국에 의한 병균피해가 생길 것 같으면, 디딤돌을 깔아서 쉽게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하여 훼손을 줄일 수 있습니다.

문제해결

날씨가 습해져서 침수의 기미가 보이는지 확인합니다. 가을에 잔디밭 점검을 못하였으면, 쇠스랑으로 땅을 쪼거나 통풍기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남아있다. 그리고 구멍에 잔 모래와 흙을 섞어서 메우고 거친 빗자루로 쓸어 줍니다. 1월과 2월에는 짝짓기 및 집을 짓기 위해서 두더지의 활동이 증가합니다. 봄에 씨 뿌리기를 하기 전에 높은 언덕을 없애고 땅을 단단히 다시 다집니다. 한 해의 이 지점에서 지렁이의 배설물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배설물을 지속해서 쓸어 줍니다. 붉은 곰팡이(Fusarium) 제거 패치는 습한 날씨에 특히 영양과다나 무성하고 긴 잔디에서 문제를 일으킵니다. 잔디밭에서의 녹조류는 배수가 안 좋거나 그늘진 곳 또는 나무의 아랫부분에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녹조는 늘 깨끗이 없애준다

연못 수정정원 관리

혹한으로 인해서 연못의 콘크리트 구조물이나 기타 구조물의 결합이 발견되는지 해수면을 관찰해봅니다. 물의 높이가 상당히 낮아지면, 누수를 의심해 봐야 합니다. 창포등 흙에 잠겨진 식물도 점검해 줍니다.

시설물 유지 보수 관리

건조한 시기에 목재 시설물과 가구에 대해서 방부처리나 도색 등의 작업 가능시 페와 눈에 무리가 안될 수 있게 통풍이 잘 되게 실시하며, 금지된 약물을 사용하지 않을 것을 권장 합니다.

모든 스탠드 파이프나 용수관의 배수를 확인하여 겨울에 동파가 되지 않게 점검과 야외에 있는 수도꼭지에 보온제를 덮어 겨울 동안의 동파를 예방하며, 오래된 화분을 세정제로 닦아 세균과 곰팡이를 줄여주면 식물의 독극물 감염을 줄일 수 있는 효과. 필요한 경우 지지대 및 아이형 폴대를 점검하며, 가든용 기계는 겨울 동안 사용을 자주 안 하기 때문에, 땅을 다지거나 울타리를 만들거나 연못을 팔 수 있게 유지 보수를 잘해야 합니다. 길가의 녹조류를 제거하여 미끄럼 방지를 해야 하며, 겨울용 화분대를 직접 만드는 것도 비용절감에 있어서 많은 효과가 있습니다. 직접 구매하면 매우 비싸기 때문입니다.

실내 정원의 관리- 온실, 베란다 그리고 실내 식물



실내 식물 보호

실내 식물의 충분한 양의 조광도 인지를 확인과, 겨울 동안 불빛이 유지되어야 하며, 종종 뒤쪽이나 여유공간에 불빛이 부족함을 확인한다. 최상의 방법은 3월까지 창가에 두는 것이며, 2층장이 아니면 밤에 열 수가 있기 때문에 커튼 바깥쪽으로 실내 식물을 놓으면 안 됩니다. 실내에서 크리스마스 장식용으로 강제 개화된 구근의 꽃이 지면, 밖의 안전한 장소에 묻고, 실내 식물에게 최소한의 물을 준다. 대부분의 식물은 겨울 동안 적은 물기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크리스마스 선인장에 꽃봉오리가 맺히지 않으면, 온도가 높아서이기 때문입니다. 18도 이상이었거나 밤에 불빛을 받았기 때문이며, 더 추운 곳으로 옮기거나 밤에 불빛을 안 닿는 곳으로 이동 시키면 됩니다. 후시아(Fuchsia), 제라늄(Geranium) 그리고 다른 약한 식물이 추위에 죽지 않게 최소 5도 이상을 유지합니다.

열대 식물들은 보다 높은 온도를 유지시켜주며, 후시아(Fuchsia)은 화분에 다시 심어서 물을 많이 주고 영양분을 줘서 햇빛이 많이 드는 곳에 놓으면 성장을 시작 할 수도 있습니다.

선인장은 겨울 동안 적은 물을 줘야 하며, 영양분을 주면 안 됩니다. 봄이 오기 전까지 수분이 적게 유지 하여, 개화가 되면 물과 영양분이 필요하게 됩니다. 군자란 종류, 클라비아(Clivia)는 겨울동안 동면을 취하기 때문에, 적은 물과 영양소 그리고 빛의 양이 필요합니다. 다년생 구근, 아마릴리스(Amaryllis)는 화분에 심어서 물과 영양분을 공급 하여 성장이 진행되게 하면, 늦은 겨울이나 이른 봄에 아름다운 꽃을 보게 되며, 시클라멘(Cyclamen)은 차가운 방에서 조광이 많아 잘 자랍니다. 물은 화분받침에 줘서 아래서 위로 빨라 드릴 수 있게 한다. 잎이 젖으면 쉽게 곰팡이가 피거나 썩어 버릴 수 있습니다. 진달래(Azalea)를 실내에서 오래도록 볼 수 있도록 차가운 상태 유지와 적당한 물주기를 해야 합니다. 물은 수돗물이 아닌 빗물을 받아서 줘야 합니다. 특히 추운날 길거리 가판대에서 포인세티아(poinsettia) 사서 뜻하지 않게 얼어 붙는 경우가 있습니다. 집에서 포인세티아(poinsettia)를 따뜻하고 빛이 잘 드는 곳에 놓고 외풍을 피해야 오래 살아 남을 수 있습니다. 히아신스(hyacinth)는 차갑고 밝은 곳에 놓아야 된다. 만약 너무 따뜻하면 잎이 늘어지고 꽃이 빠르게 시들게 됩니다.

온실의 온도 관리



온실의 온도관리

온실 관리

온실의 히터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고, 최고온도와 최저온도를 재서 온실의 온도가 정확히 유지되는지 테스트해 볼 수 있습니다. 온실의 단열이 제대로 되어서 안전함을 확인하며, 지붕의 눈을 치워 훼손 방지와 빛이 잘 통하도록 합니다. 온실과 헛간의 흙통에 있는 낙엽 잎과 잔가지를 치웁니다.

해충과 질병 관찰

병이 발생과 감염을 막기 위해 주기적으로 식물을 살펴보고 떨어진 쓰레기를 정리와 겨울동안 발생하는 흰가루병(whitefly)이나 진드기 해충에 주의하며 나무 껍질을 구석구석 살펴본 작은 벌레를 발견도 할 수 있다. 따뜻하고 포근한 날에 온실을 통풍 시켜 곰팡이 전염을 줄이며, 오래된 화분이나 씨앗 등을 씻어줘야 하는 시기이며, 다음 봄에 씨 뿌릴 준비이다. 깨끗이 씻어줘야 해충과 질병 문제를 줄일 수 있으며, 증식과 파종 문제도 줄일 수 있습니다. 세정제의 사용으로 불쾌한 냄새와 식물의 증독을 없앨 수 있습니다.



12월초 까지 잔디 없이 춘작구근, 휴면을 심어 봄을 준비 한다

Gardenin

Q&A
독자가 만드는

이메일 주소 : gardenin2014@daum.net 팩스 fax: 031 634 7991

자연의 연장선이 되어가는
사람을 반기는 정원의 효과

겨울정원은 관리도 많으며 봄을 준비하는 아주 중요한 기간이며, 휴면기에 들어간 정원의 모습이지만 정원을 관리하는 정원사에게는 여러가지 고민거리와 질문이 이어진다. 월간 가든인의 Q&A는 독자가 참여하며 정원사의 궁금증을 해결하는 난으로 이번 질문은 동절기 정원관리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준비하였습니다. 초보자도 전문가도 참여하여 보다 쾌적하고 건강한 정원을 보존하며, 관리 면에서도 적은 노동력으로 자연의 연장선으로 사람을 반기는 정원의 효과를 누리도록 함께 만들어 가는 코너입니다.



Q1 정원의 새로운 디자인 정리로 나무를 새로 심은 후 식물의 상태가 좋지 않은 나무와 늦게 심은 숙근류의 번식을 위해 피복이 필요한지요?

얼마 안된 나무들도 생육기에 수세가 나뉘던 나무들은 양분 저장량이 적어 겨울에 얼어 죽는 경우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식물의 보호 차원에서 아래의 사진처럼 철저히 동절기의 관리를 주시면 나무의 식재에 높은 가격을 투자 하였다면 당연히 정원사는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고사위기에 처한 나무들에게는 뿌리분 주위를 빗집으로 보온작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식한 뒤 활착을 못한 소나무와 느티나무, 느릅나무, 복자기등등 내년에는 좋은 상태로 정원에서 자태를 드러냅니다. 겨울에도 늘 정원의 관리와 식물의 상태등을 민감하게 관리하는 일이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정원사의 현명한 관리능력이 정원에 투자한 막대한 자산을 보호하는 수준도 높은 경험자만이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아래 사진은 고가의 이식 소나무로 키가 20미터 넘고 있어 뿌리 부분의 면적도 고려하여 넓게 피복을 하여 냉해의 피해를 막도록 하였습니다. 정원은 정원사의 발길에 따라 식물들의 생사가 따른다는 속담도 있습니다. 아래 피복의 순서와 도구들을 잘 이용하시면 완전한 피복이 될 것입니다. 동절기 지피식물의 보호나 울타리, 수목의 보호를 위해 준비해야 할 준비물이 필요하다. 내한성이 좋은 지피식물이라도 늦게 식재를 하였다면 동절기 위험하므로 좋은 뿌리성장의 발육을 위해 짚 방풍막을 이용하여 정원사는 식물을 늘 보호관리 해야 한다.



고가의 소나무 이식 후 맞는 동절기 피복의 상태.



제조/방조/피복

녹화 막대(Jute Tape)

용도 수목 이식/이동시 뿌리를 감아 보호, 수목에 감싸 동해방지 예방.

효과 및 특징

식물 섬유질로 되어있어 자연 친화적이며 통기성, 흡수성, 보온성, 부식성이 우수하다. 수분증산과 동해방지, 수목의 활착에 도움을 준다. 천연소재의 우수성, 미관상 우수성, 저렴한 가격



상품코드	규격	가격
G40121	10cm x 20M	2,000원
G40122	15cm x 20M	2,500원
G40123	20cm x 20M	3,000원
G40124	30cm x 20M	4,000원
G40125	40cm x 20M	5,000원
G40126	60cm x 20M	8,000원
G40127	100cm x 20M	12,000원

주트 로프(Jute Rope)

용도 잠복소나 지주목, 섬피등의 고정용 끈

효과 및 특징

인장강도가 새끼줄의 5배! 통기성, 보온력, 보습력이 우수하다. 내구성이 강해서 5~6개월 현상유지.

상품코드	규격	가격
G40131	4mm x 450M	7,000원
G40132	8mm x 450M	7,000원



새끼줄(Straw Rope)

용도 수목 굴취용의 다용도 활용

효과 및 특징

천연 재료로 자연친화적이며 수목굴취및 동해방지용으로 많이 쓰임. 수목굴취시 신축성이 뛰어나 보호능력이 탁월

상품코드	규격	가격
G40151	1cm x 200M	20,000원



코아네트(Coir Net)

용도 비나 바람에 의한 토사유출을 방지.

효과 및 특징

천연야자섬유, 그물망형태로 절개지의 토사유출 방지와 식물이 자라나기 좋은 환경을 제공한다.

상품코드	규격	가격
G40171	39.66M ² (12평형)	40,000원



왕골 방풍막/섬피

용도

방풍막 : 울타리나 어린묘목을 바람으로 부터 보호
섬피 : 지피 식물의 동해방지

상품코드	규격(M)	가격
G40191	방풍: 0.4 x 20	20,000원
G40192	섬피: 0.9 x 20	40,000원

(주)한국원예자재
가드닝/원예전문 매장

미림가든센터

경기도 과천시 물사랑로 257 (주암동)

Tel. (02)585-5346, 503-7080

Fax. (02)588-9593

코이어 테이프(Coir Tape)

용도 수목 이식시에 뿌리와 줄기, 목대를 감고 이동시에 많이 사용

효과 및 특징

식물 섬유재(코코넛껍질)로 자연친화적, 수분 증산과 동해방지, 수목의 활착에 도움을 줌.

상품코드	규격(M)	가격
G40141	15cm x 10M	8,000원
G40142	20cm x 10M	10,000원

다용도 녹화막대
(Garden Multi-purpose Burlap)

용도 다용도로 활용가능한 넓은 면적의 녹화막대

효과 및 특징

수목 식재, 줄기보호, 분트지, 겨울철 수목보호등 통기성, 보온성, 부식성, 수분증대, 수목의 활착에 도움

상품코드	규격	가격
G40161	1.14M x 3M	20,000원



이영

용도 수목을 감싸주어 확실한 보온효과를 줌

효과 및 특징

나무를 감싸주어 확실한 보온효과를 준다. 미관상으로도 따뜻한 느낌을 준다.

상품코드	규격(M)	가격
G40181	0.7(D) x 10	28,000원



짚 방풍막/섬피

용도

방풍막 : 울타리나 어린묘목을 바람으로 부터 보호
섬피 : 지피 식물의 동해방지

상품코드	규격(M)	가격
G40201	방풍: 0.45 x 20	20,000원
G40202	섬피: 0.9 x 20	50,000원



가든인 Tip 동절기 월동 피복순서



1 피복할 장소를 정하고 재료를 알맞게 배치한다



2 줄을 이용하여 피복재가 강풍이나 바람에 이동하지 않도록 끈으로 연결하여 앞가림의 고정작업을 부분적으로 한다



3 고정 작업을 한 후 양치로 약 20cm의 쇠파스 침으로 완전히 고정한다.

피복에 필요한 준비물

·주트 로프 jute rope, ·노끈 1롤 7,000원
·질 방풍막 /섬피 이용 - 울타리나 어린 묘목을 바람으로부터 보호 (선파: 지파식물 동해방지용)
·잠복소 / 30 cm×20cm 수목의 동해방지지는 물론 해충 유인 후 봄이 오기전 잠복소를 태워 해충벌멸. / 미림가든센터 상품명 F40281, 17,000원
·고정 쇠파스
(구입처 (주) 미림가든센터(02 585 5346), 조이가든(www.joygarden.co.kr))

Q2 월동 보온작업은 어디까지 필요한가? 소나무 잠복소 설치의 효과가 있는가? 저는 병해충 방제 효과가 미약하다고 보고 설치하지 않습니다.

질문하신 정원은 상당한 시간을 정원과 동거동락 하시며 정원에 대해 성실하신 분입니다. 수년간의 경험과 점검으로 본인의 해답을 얻으셔서 조금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복소를 이용하는 방법은 유살법이라고 해서 해충의 행동습성을 이용하여 월동과 산란에 적합한 장소를 제공하여 해충을 방제하는 방법입니다. 특히 잠복소를 이용하는 잠복장소 유살법의 경우, 해충은 종에 따라 월동과 용화 또는 산란과 번식을 위해 잠복할 장소를 찾는 습성이 있습니다. 이들의 잠복에 적당한 장소를 인위적으로 준비해 두고 이곳으로 해충을 유인하여 방제하는 것이 잠복장소 유살법입니다.

예를 들면, 소나무를 가해하는 솔나방(송충이)이나 활엽수를 가해하는 미국흰불나방과 같은 식염성 해충은 가해시기(유충기)에는 대부분 나무 위에서 생활하지만 온도가 내려가면 월동처를 찾아 나무 줄기속을 통하여 지상으로 내려옵니다. 이때 준비한 짚 등을 미리 나무줄기에 감아두고 이들을 이곳에 유인, 잠복시킨 후 다음해 이른봄에(적어도 3월 상순까지) 설치물과 함께 태워버립니다. 그러나 요즘 돌발적으로 드물게 발생하는 솔나방이나 주로 가로수에 발생하는 미국흰불나방 유충이 발생하지 않은 아파트단지 내 조경수에는 설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발생하였을 경우에도 유충이 월동처로 이동하기 위해 나무 줄기를 내려오기 전에 설치해야 합니다. 기후변화로 해충의 발생시기도 빨라지는 경향이므로 미국흰불나방은 9월중순에 설치해야 합니다. 이듬해 봄에 짚을 수거해보면 천적인 거미류 역시 많은 개체가 월동처로 잠복소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충의 발생초기에 조경수 관리가 되고 있는 아파트단지에서는 설치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보전부 산림병해충연구과 제공)

Q3 어린 소나무도 재선충병에 감염되나?

네, 그렇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에 걸리는 나무는 나무의 나이에 크게 상관없이 병에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령이 오래된 직경이 큰 소나무도 감염이 되지만 어린 묘에서도 감염이 되는 것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지 인근에 위치한 조경수 재배지에서 어린 소나무의 재선충 감염이 확인된 사례가 있습니다.

감염이 된다면 몇 년생까지 감염이 되는지?

네, 그렇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에 걸리는 나무는 나무의 나2-3년 생의 어린 묘도 소나무 재선충이 감염되어 고사가 될 수 있습니다. 유묘를 대상으로 곤충을 이용하거나 직접 선충을 점증하는 실험을 해보면 거의 100% 선충 감염과 고사가 이루어 지기 때문입니다. 소나무 재선충을 옮겨주는 매개 곤충이 성식을 한다면 자연상태에서 얼마든지 감염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린나무가 큰 나무보다 감염이 낮은지? 그렇다면 이유가 무엇인지?

어린나무의 정확한 기준이 필요하겠습니단만, 소나무재선충은 수령에 상관없이 병을 유발합니다. 다만, 매개 곤충이 먹이가 풍부하고 천적인 새의 눈을 피할 수 있는 큰 나무를 선호할 수 있고, 또 곤충의 습성상 지면과 반대방향의 높은 곳을 선호하는 특성 때문에, 환경에 따라 상대적으로 어린나무의 감염이 낮을 수 있다는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습니다.

Q4 낙엽, 영산홍, 꽃병강나무, 장미처럼 내한성이 약한 수종은 매년 보온작업을 해야 하나요? 저는 십재 첫 겨울만 보온작업을 하고, 이듬해부터는 가끔씩 보온작업을 하지 않습니다.

대자연은 얼음이나 추위로부터 정원의 식물을 보호하는 일정한 보호 기능이 있습니다. 낙엽과 눈, 솔잎이 되면서 떨어져 따뜻하고 쾌적한 단열층을 형성합니다. 대다수 식물은 손실 없이 겨울을 나지만 수조 식물은 분형근이 육상 식물보다 빨리 얼기 때문에 특히 서리에 취약합니다

겨울 나기를 위한 장미 묵기

줄기가 긴 화단용 장미가 이듬해에도 풍성한 꽃을 피우게 하려면 겨울 바람, 특히 강력한 겨울 햇살로부터 장미를 보호해야 합니다. 햇살은 장미의 잎에 온기를 주고 수분을 증발시킵니다. 이렇게 되면 지상에서 물을 얻을 수 없는 화초는 말라 죽습니다. 따라서 가지는 잔가지나 양털, 삼베자루로 보호해야 합니다. 장미의 점목점은 특히 냉해에 민감하기 때문에 mulching을 (퇴비와 토양, 낙엽)을 화단 장미 주변에 뿌리십시오. 온대 지역의 겨울철에는 점목점이 지하 5cm 이상인 경우에는 이 작업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Q5 조경 독지대 내의 낙엽은 꼭 치워야 하나요? 병해충 예방을 위해서 치워야 한다는 설과, 유기물의 환원으로 두어야 한다는 설 중에서 저는 후자 쪽으로 관하고 있습니다. 다만 산림처럼 무성하게 들수는 없겠고 하여 명확한 답변을 얻고 싶습니다.

질문자의 의견처럼 두 가지 이유가 타당성을 대변하고 있다.

병해충의 예방차원에서 치우거나 인가주변의 겨울 화제예방을 위해 제거하는 것은 필요하다. 유기물 환원 차원이라면 제거하며 퇴비장에 모아 부식 후 사용함은 원칙론이며, 토양의 보온성이나 자연 영양의 환원 비중이 크다면 후자의 방법이 바람직하다.

최근 뉴욕 콜게이트 대학 연구진은 "단풍의 붉은색은 경쟁자를 제거하고 자신의 종족을 보전하기 위한 일종의 독이자 방어막이다."라는 흥미로운 주장을 제기했다. 단풍 나무처럼 붉게 물든 나무들은 주변에 다른 종의 나무가 자라지 못하도록 독을 분비한다는 것이다. 연구진은 다른 색의 단풍과는 달리 붉은 색의 단풍에서만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에 주목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단풍 나무의 붉은 잎과 파란 잎, 너도밤나무의 노란 잎과 녹색 잎을 채취해 각각 상추 씨앗 위에 뿌려 발아 정도를 측정하는 실험을 진행했다. 그 결과 단풍 나무의 붉은 잎이 다른 색의 잎들에 비해 상추 씨의 발아율을 크게 감소시켰음을 밝혀냈다.

즉, 붉은 단풍의 색소는 다른 성분이 파괴된 뒤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나무가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생성하는 일종의 독이자 방어막이라는 것이다. 연구진은 "가을에 붉은 단풍잎이 떨어지면 안토시아닌(antocyanin)이 성분으로 땅 속으로 스며들어 다른 수종의 생장을 막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안토시아닌이 어떠한 방법으로 다른 수종의 생장을 막는가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지만, 우리가 주목할 것은 단풍의 그 화려한 아름다움 속에 이처럼 생존과 종족 보존을 위한 숨겨진 이면이 있다는 점이다. 어찌 보면 "단풍이 화려하고 아름답다."라는 말은 우리의 주관적인 감성에서 나온 것이라 할

수 있다. 앞으로 단풍을 볼 때면 아름답다는 말과 함께, 그들의 삶과 생존을 위한 저절된 몸부림에 대해서도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KISTI의 과학 향기 중 일부 제 360호, 2005 10 28)

Q6 소나무 밑에 있는 나무가 죽었는데, 원인이 무엇인가?

소나무는 타감작용(他感作用, allelopathy)이 강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한 생물이 다른 생물들의 성장, 생존, 생식에 영향을 주는 하나 이상의 생화학물질들을 만들어내는 현상으로 대상이 되는 생물에 이득이 될 수도(긍정적 타감 작용), 유해가 될 수도(부정적 타감 작용) 있는데 물질 대사(성장, 발달, 번식 등)에 필수적인 것은 아예 부정적인 타감작용을 일으키는 타감 물질들은 초식동물로부터 식물을 방어하는 중요한 부분이 되기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소나무 밑에 풀이 자라지 못하는 현상은 타감 작용 영향도 일부 있겠지만 햇빛의 영향이 더 큰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나무 수하라 하더라도 수하에 햇빛이 들어오면 초본식물 뿐만 아니라 목본식물까지 자라는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활엽수는 잎은 넓지만 엽량이 많지 않아 산광(산광)이 인입되므로 치수들이 자랄 수 있는 환경이 됩니다만 이에 비해 침엽수는 잎이 좁지만 촘촘하게 층층으로 달리는 관개로 엽량이 더 많아 햇빛 투과율이 활엽수보다 월등히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소나무의 수관 폭이 넓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단풍나무의 지주가 아직 있는 상태라면 타감작용의 영향이 아닌 최근에 식재된 나무로 이식 부족용으로 인하여 단풍나무가 고사된 것으로 보여 집니다.

Q7 겨울에도 관수는 필요하냐? 특히 겨울관수가 필요한 수종은 무엇인가? 저는 겨울에도 월 20mm 이상 눈이 오지 않으면, 영상 기온일 때 주목, 소나무, 사철나무와 같은 상록을 대상으로 관수를 하고 있습니다.

과도한 관수는 위험할 수 있으나 기존의 관수방법을 잘 이용해 오시는 것 같습니다. 영하의 과도한 저온상태에서는 지면 및 지중동결에 의한 동해가 우려되며, 겨울 가뭄에는 관수가 필요한 이상적 관리 방법이다. 튼튼한 관목이나 화초, 상록 식물들은 냉해 방지가 된 통 속에서 겨울을 날 수 있지만, 건조하지 않도록 햇살과 바람을 보호해야 합니다. 밀짚으로 만든 햇빛 가리개와 낙엽이나 잔가지로 이루어진 두꺼운 뿌리 덮개를 이용하십시오. 절초 바닥에 배치하여 식물과 차가운 바닥 사이에 단열 공기 완충 지대를 만들어 주십시오. 온기를 유지하도록 여러 수조를 함께 모아서 배치하십시오.

단, 화분의 흙이나 대나무 등이 얼지 않아야 하며 이런 식물들은 햇살이 많은 온대 겨울철에는 수분을 대량 방출하기 때문에 겨울철에도 관수를 해야 합니다.



밀짚이 깔린 로댕미밀짚이 깔린 로댕미밀짚(프) 정원내 주목나무



영양분과 관리가 필요한 상태의 주목으로 수형의 모습.

Q8 선주목의 수형 관리는 어떻게 하면 서양에서 보던 밀생된 주목 수형을 가질 수 있을까요? 노하루는 무엇일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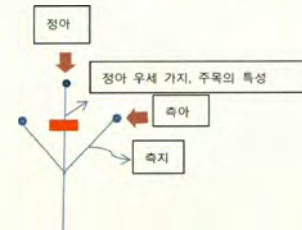
(주목은 품종에 따라 특성이 달라질 수 있음을 고려할 것)

수형은 관상자의 선호성 목적에 따라 관리자의 기술에 의해 수형이 만들어진다. 질문에 대한 기초적 상식에서 수관의 전형적 형태를 유지 관리 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수관내의 광선의 투입과 통풍이 잘되도록 전정, 전지를 해야 한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

따라서 수관 내부측의 죽은 가지의 불필요한 전정(지)이 되어야 할 가지를 속아내야 하며(겹치거나 불순물이 쌓여있지 않도록) 해마다 수관 외측의 끝 가지의 적절한 전정으로부터 분비 상태를 지속 유지 해나가도록 해주면 아름다운 수형을 보게 될 것이다. 경험으로 보면 내부를 깨끗이 정리하여 주변 모든 영양분이 잎의 끝 부분으로 성장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리고 적당하게 늘 퇴비로 영양공급도 필요하다.

주목의 특징은 잎의 끝이 장아, 측아(아래그림)로 이루어지며 정아(중심줄기)는 늘 우세세력이라 전정가위로 정성껏 잘라주면 (절단-중심의 빨강선) 양쪽 측지의 잎이 자라 원하는 수형의 모습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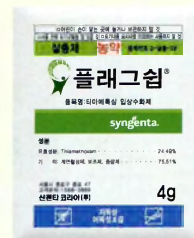
이루어진다. 먼저 손이 닿는 부분부터 정리하여 상태를 관찰한다. 겨울에도 배수가 잘 되도록 하며 주변에 잔디 자른 풀을 덮어주면 성장이 빠르다. 관심과 깨끗한 환경, 그리고 영양공급이 아름답게 건강한 수형으로 자리 잡혀간다. 그리고 높이도 정하여 윗부분을 정리하여준다.



주목나무의 잎의 관찰 그림말:

Q9 월동 병해충 방제를 위한 토양소독은 어떤 것이 있나요? 진딧물, 깍지, 응어, 나방 등의 월동 형태와 월동장소를 먼저 알아야 답이 나오리라 생각합니다.

진딧물 약제로는 플레그십이라는 약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월동에 들어가는 해충을 방제하는거보다 해충발생 시기에 맞춰 약제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경엽살포, 토양관주등으로 방제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신젠타(주) 제공]

Q10 관목 사이에서 자라는 겨울 잡초는 뽑아주어야 하나? 낙엽진 철쭉류 사이에서 왕성하게 자라는 잡초 철쭉이 쇠약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뽑아야 하겠지만 땅이 얼어 버려서 뽑아도 안되는데 인력을 투입해야 하나? 아니면 초봄에 눈보다 일찍 뽑을까?



이른봄 땅이 녹은 후 잡초의 뿌리까지 제거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추후 잡초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분사 제품인 타건을 사용합니다. 타건은 잡초 발생 전 토양처리형 제초제이며, 관목에는 영

향을 주지 않습니다. 장시간(6개월) 걸쳐 잡초 발생을 억제시킬 수 있습니다. 땅초, 쑥 같은 국화과 잡초에 대해서는 예외가 적용되어 효과가 낮습니다. 타건은 고급잔디를 추구하는 고급 골프장과 정원의 품격을 갖추는 기본 상품으로 다양한 범위의 강력한 잡초를 뿌리하고, 연간 사용 횟수가 적어 정원관리에서는 아주 추천 받는 상품입니다.

정원은 즐기며, 삶의 질을 높이는 시간입니다. 낮은 노동으로 높은 효과를 올리는 상품의 선택이 정원관리에서 정원사의 친구가 되는 기본 상품입니다. [신젠타(주) 제공]





Q&A

독자가 만드는

이메일 주소 : gardenin2014@daum.net 팩스 fax: 031 634 7991

약효가 오래가는 발아전 처리 제초제

탐건 액상수화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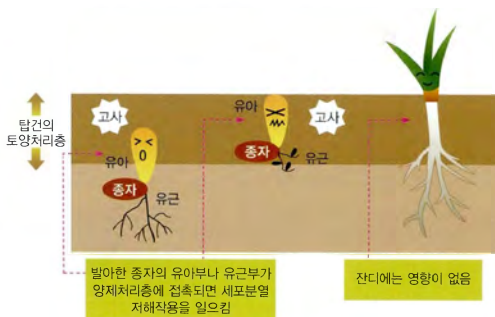
일 반 명 프로디아민
포장단위 300ml
계 통 디니트로아닐린계
처리약량 0.15ml/m²
대상잡초 일년생 잡초(잡초 발아전)

탐건 액상수화제는

- 잔디의 전용제품으로서 신젠타에서 개발한 잡초 발아 전 제초제이다.
- 프로디아민을 주성분으로 하는 탐건은 기존의 입상수화제 제품에 이어 약효를촉진시키는 액상 수화제의 제형으로 새롭게 탄생하였다.
- 탐건은 골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잡초의 발생을 억제시키는 제품으로서 전세계적으로 가장 선호되는 검증된 제품이다.
- 새포아풀 등 가을발아 잡초는 물론이고 바랭이 등 봄에 발아되는 잡초에 모두 적용 가능하므로 봄 또는 가을에 처리시 매우 우수한 약효를 나타낸다.

탐건의 작용기작

- 탐건 액상수화제를 처리하면 토양표층에 약제 처리층을 형성한다.
- 토양 처리층의 두께는 약간 다르지만 보통 1cm 정도로 형성되며, 잡초의 종자발아에 따른 유아가 약제 처리층에 접촉되어 활성성분인 프로디아민이 빠르게 흡수되어 세포분열저해 작용에 의해 최종적으로 잡초는 고사된다.



탐건의 주요 방제 잡초

탐건은 화분과 잡초뿐 아니라 광엽잡초에도 넓은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설포닐우레아계가 방제하기 어려운 잡초종에도 높은 방제효과를 나타낸다.



탐건의 제초효과(가을처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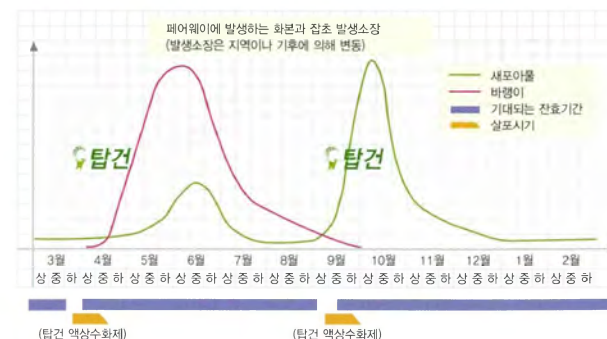
※ 탐건은 발생전의 새포아풀이나 큰개불알풀에 대하여 높은 제초효과를 나타낸다.

시 험 장 소	이바라키현 M골프장 (일본)
초 종	티후튼
대 상 잡 초	새포아풀(20~30% 피복도) 큰개불알풀(5~10% 피복도)
약제처리일	08. 9. 24
처 리 시 기	잡초 발생전
조 사 일	09. 3. 19. (처리 176일 후)
처 리 방 법	이산화탄소 스프레이어 Teejet 8006 물량 : 200ml/m ²

탐건의 연간처리 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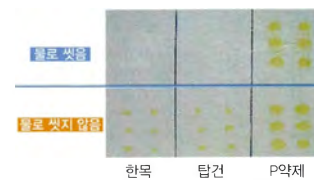
추천하는 연간처리 횟수는
봄/가을 2회로 잡초발생 전에 약제살포

※ 최적의 처리시기 지역, 기후, 발생상황에 따라 다르다.



약흔(얼룩)비교

- 탐건은 얼룩이 남지 않는다.
- 장비, 카트통로 또는 golfer에 얼룩 없음



탐건 액상수화제의 요약

- 프로디아민을 유효성분으로 한 잡초발아 전 토양처리형 제초제이다.
- 안정된 약제 처리층을 형성하고 유실도 적으며 탁월한 약효를 나타낸다.
- 약효의 지속기간은 5~6개월이며 약량에 따라 지속기간이 조정된다.
- 새포아풀, 바랭이 등 대부분의 문제되는 잡초들에 대하여 높은 제초효과를 나타낸다.
- 액상수화제로서 물에 희석할 때 불편함이 없이 잘 용해된다.
- 잔디에는 영향이 매우 적은 안전한 약제로서, 골프장의 그린 주변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
- 잔디 시장이 발달한 미국, 일본 등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중된 제품이다.
- 얼룩이 남지 않아 장비, 카트 이동로 등을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다.

약효가 오래가는 안전한 살충제

플래그쉽 입상수화제

일 반 명 티아메독삼
계 통 티아니코티닐계
포장단위 100g

플래그쉽 입상수화제는

플래그쉽은 신젠타가 개발한 티아니코티닐계(Thianicotinyl compounds) 살충제로, 치아졸(thiazole)환을 가진 최초의 네오니코티노이드계(Neonotinoids)로서 해충의 신경계를 교란시켜 살충효과를 나타낸다. 유익동물 및 유익충에 대한 독성이 낮으며 유해충에 대해서는 접촉, 소화 및 흡수이행의 활성을 나타내며, 특히 잔디의 곰팡이류에 대해 우수한 약효를 나타낸다.

플래그쉽 입상수화제의 특징 및 이점

신속한 살충효과 및 긴 약효 지속 기간

- 접촉독과 식독에 의해서 약효를 발휘하여 신속한 살충효과를 볼 수 있다.
- 식물의 뿌리, 경엽, 줄기 등 전신을 통하여 흡수됨으로 다양한 약제처리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 약제가 식물체에 흡수되어 오랫동안 약효를 나타낸다.

강한 침투 및 이행성

약제의 우수한 침투이행성으로 작물체 전체에 골고루 퍼져 안정적인 약효를 나타낸다.

잔디 안전성

잔디에서 안전하게 사용 가능하다

냄새없음

냄새가 없어 골프장 고객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는다.

플래그쉽 입상수화제 적용대상 및 사용량

작물명	적용해충	사용적기	m ² 당 사용약량
잔디	곰팡이류	유충 부화기(7월말~8월초) 토양 관주처리	0.2g

다양한 종자 발아의 Test step by step

보관중인 종자는 새것과 오래된 종자를 보관하고 있거나 날짜기입도 하지 않은 것은, 종자를 정리하는 시간도 한가한 겨울 시간 정원사의 할 일이다. 만약 확신이 가지 않는다면 아래 몇 가지 test를 통하여 봄의 정원을 준비합니다.

가든인 Tip
Gardenin

재배법

- 발아온도는 20~24℃내외로 10~20일정도 소요됩니다.
- 파종 후에는 종자를 살짝 흙 속으로 눌러주고 복토하지 않습니다.
- 광발아 종자이므로 햇빛이 잘 드는 곳에서 발아시키십시오.
- 발아시 수분은 유지하되 너무 과습하지 않게 주의합니다.

※씨앗의 발아와 온도

대부분의 종자는 뿌리부터 나오고 연 같은 종자는 잎부터 나오는 경우도 있다. 뿌리부터 나오는 이유는 흙 속에는 빛이 없기도 하거니와 광합성을 위해서는 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먼저 뿌리가 나오게 된다. 씨앗의 발아온도는 일반적으로 온대성 식물의 경우는 12~25℃정도이며 열대성 식물의 씨앗은 25~35도씨에서 발아가 잘되며, 단 시네라리아, 금어초, 나팔꽃 종류는 10도씨정도의 저온에서 발아율이 높다. 묵은 종자의 경우는 적정 온도보다 5도씨정도 높은 온도에서 발아시키는 것이 유리하며 일정한 온도로서 발아 시키기 보다는 주야간 온도 차이를 주는 것이 튼튼한 묘를 만들 수 있다

발아율을 올리기 위한 씨앗의 처리

종피가 딱딱한 씨앗 등은 번나절 정도 물에 넣어 흡수시켜 부풀 상태로 하고 나서 뿌리면 잘 발아합니다.

• 용도

시판의 씨앗 파종 전용 배양토의 사용은 간편하다. 하지만 적당한 환기성 보수성이 있는 흙이라면 흔히 주위에서 있는 것으로 좋다. (예: 소립적 옥토와 부엽토의 혼합 등). 다만 정도나 과거에 무엇인가를 심은 화분 흙은 잡초나 다른 식물의 씨가 섞여 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재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비트 밴(피트모스)을 판 모양에 압축한 것, 흡수시켜 파종상자에 사용한다) 도 취급하기 쉬운 자재입니다. 덧붙여 씨 파종 용도에는 비료를 혼합할 필요는 없습니다.

1 종자발아에 영향을 요인?
물 온도 공기 (*광: 필요한 경우, 없어야 하는 경우, 무관한 경우)
2 수분이 발아에 미치는 기작
1) 종피파열: 종피가 흡수하여 팽윤되고 배, 배, 자엽 등이 흡수되어 팽창하므로 종피파열된다.
2) 종피가 수분을 흡수하면 가스교환이 용이해져 산소가 공급되어 호흡이 활발해지고 이산화탄소가 배출된다.

3) 흡수한 내부세포들은 원형질농도가 낮아지고 효소의 활성이 증가되어 저장물질의 가수분해 및 전류와 기타 생리작용이 활발해져 종자가 성장한다.

3 온도가 발아에 영향을 미치는 이유는?
종자발아에 필요한 각종 생리작용이 온도에 의해 크게 지배되기 때문.

4 발아 최적온도: 씨씨 20~30도
수집된 종자의 정리와 볼 준비하기: 종자의 상태가 건강한지를 확인 하며 시기별 리스트를 만들어 파종 준비할 계획을 세운다

봄에 파종할 식물 리스트 만들기

- 수집한 것과 친구로부터 얻은 종류의 특성을 잘 정리한다
- 정리한 씨앗은 몇 개씩 선정하여 발아 테스트를 해준다.
- 종자의 라벨을 재확인하고 정리한다.
- 월별 파종 계획일정을 만들어 시기를 놓치지 않는다.
- 종류별 파종 시기는 가든인의 "절기별 정원사의 작업 리스트"를 참고한다.

종자의 상태를 보면 봄의 채소의 식물의 성장에 대한 확신을 얻을 것이다 아래에 2가지 방법을 통하여 빠르게 발아의 시간이 기쁘도록 tip을 알아보도록 한다.

1. 두껍게 코팅이 되어 있는 씨앗은 심기 전 물에 불린다는 것과 얇은 코팅은 바로 발아되는 것은 거의 알고 있는 방법이다. 최근 연구의 발표에 따르면 퇴비의 물에 하루 밤을 불려 모종을 하면 성장에도 도움이 되고 질병 예방에도 저항력이 있다고 하니 한번 시도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이다.
2. 만약 지난해에 쓰고 남은 콩이나 강낭콩처럼 큰 씨앗의 쉬운 검사 방법은 그릇에 물을 담아 콩을 넣어가라 앉으면 좋은 씨앗이고, 떠오르는 것은 버리도록 한다. 그리고 다름과 같이 예) 채소정원 준비, 정원의 디자인, 작은 텃밭정원, 배란다 정원, 작은 정원 구상의 계획에 따라 필요한 모종의 수량을 준비할 수 있다.

"어린이와 함께 하는 계란 속 발아테스트"

Seed Practice

달걀 껍질을 청결히하고 흙을 넣어줌

씨앗을 육안으로 확인 후 건강한 것을 선정

보통한 나무로 구멍을 만들고

씨앗을 넣어준다

물을 주고 햇빛이 향하는 곳으로 놓아주며

겨울철 따스한 햇빛을 받으며 다양한 종류의 씨앗을 test 하여 발아를 확인 하며 봄을 준비한다



"생태환경미술반" 동아리학생들의 코트야드 정원 정리후

여고생의 정원 가꾸고, 관리하며, 보존하는 정원문화의 현장

수도여고 정원문화 연재 1

정원은 후원, 기부, 배려, 관심이 늘 필요한 곳

여고생의 교정은 늘 아름다움이 넘치는 곳이고, 꿈과 젊음의 에너지로 학생들의 호기심과 창의력은 늘 동문들의 후원이 넘치는 학교를 방문하는 사람이라면 교정 곳곳에 동문들의 흔적을 볼 수 있다.

수도여고의 교훈은

슬기롭고

아름답고

참되이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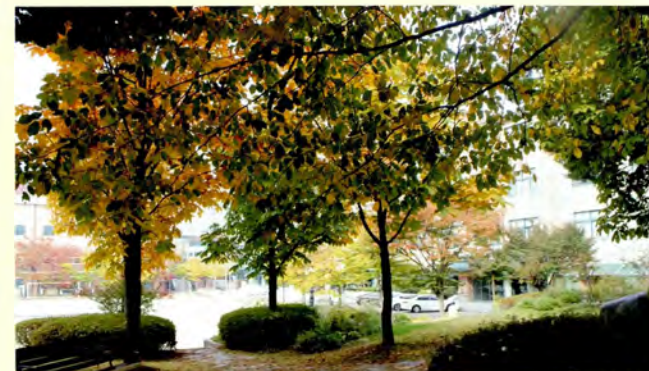
교훈과 함께 학교 현관에서 읽은 것은 수도여고를 함께 이어가는 원동력인 '수도인 마음 가짐' 현판에 새겨진 글로 "우리 수도인들은 진, 선, 미로 굳게 단결하여 인체의 붉은 심장과 같이 이 나라의 심장 역할을 다하자." 학교의 모토이며 졸업생 동문과 재학생의 마음가짐의 외침이 있어서 인가 교정에서 풍기는 자연의 힘도 곳곳에 묻혀있다. 현 시점의 교육은 모두 교실에서 책과 시청각 교재로 주입식 교육의 굴레 안에서 자연과의 교감이나 자연 속에서, 자연이 전하는 교사를 만나는 것은 생각조차 어렵다.

서울시의 한 복판인 여고 교정에 자연을 만들고 가꾸는 꾸준한 노력은 60년 역사



의 흔적이 교정에 묻혀있다. 남양동에서 현재의 대방동으로 이사오며 정원의 식물도 함께 이식을 하여 새 자리를 매웠다. 동문들과 현직교사 그리고 재학생이 마음을 합하여 만들어 가는 백합동산과 본관 건물 뒤쪽의 뒷마당을 최대한 살린 courtyard가든은 휴지가 날리는 컴컴한 공간에 아주 고급형 정원디자인과 자재로 마감을 하여 사계절 아늑한 정원공간을 언제나 느끼는 곳이다. 이 모든 후원은 졸업생 동문들의 후원이 계속 이어지며, 졸업생의 여고시절 꿈을 더 좋은 환경에서 재학생에게 주고 싶은 부모와도 같은 마음이 전하여지고 있다.

현재 수도여고 안정숙 교장선생님의 보다 나은 자연환경에서 꿈을 키우도록 하려는 배려는 학교의 수많은 과제를 담당하는 리더로서 학생들을 자녀처럼 여기는 사랑과 배려가 없는 예산의 수행에서도 큰 몫을 차지한다. 학교 살림을 담당하는 김우경교감선생님과 정효영행정실장님, 보살핌과 학교의 모든 살림살이를 챙기며, 학교시설관리를 돌보는 4명의 기사님들의 손길도 정원의 공간 곳곳에 묻어있다.



단풍이곱게물든 교정3

여고생의 정원문화와 Art work 전시회

미술반 학생들의 작은 정성으로 주제의 의미를 담아 빚고 구운 도자를 정원 속에서 만나는 즐거움. 대한민국의 고등학생은 취미생활이나 정서적 문화를 즐길 시간이 없이 대학입시의 시간에 고교시절의 추억을 만들거나 여유로운 창작 생활을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학교마다 입시율을 앞다투고, 입시생의 입학 비율에 따라 선생님들의 입지 조건도 달라지며, 아직도 명문고교의 위용을 앞다투어 저울질하는 시간 속에 살고 있다. 과연 3년간의 고교시절이 일생을 좌우한다며 어른이 되어서 우리들의 지난 시절을 뒤돌아 보는 시간이 되었다. 인문여고 학생들의 여유로움은 아마도 자연에서 서울 도심의 인문계 여자고등학교에 최대한 청소년기의 꿈을 이루도록 학생들이 시간이 가장 많이 할애하는 점을 감안하여 여고교정에 꿈을 이루도록 동기 부여도 하며, 잠재적 재능을 자극하도록 향내음도 풍기며 인지활동과 창작의 활동을 이어가는 교사들의 사랑이 사계절 꽃 향기로 이어가는 정원을 발견하였다. 학교의 교훈과 동문들의 기부문화도 한몫을 차지 하지만 현직에 계신 교장 선생님과 교감 선생님의 깊은 배려가 없는 이어갈 수 없는 정원에 후원이 따르며, "생태환경미술반"학생들의 정원 문화연장은 그들의 미술 Art Work 전시회에서도 많은 업적을 남기고 있다.

교육적 공간의 정원을 가꾸고, 관리하며 함께 만드는 정원문화의 예술 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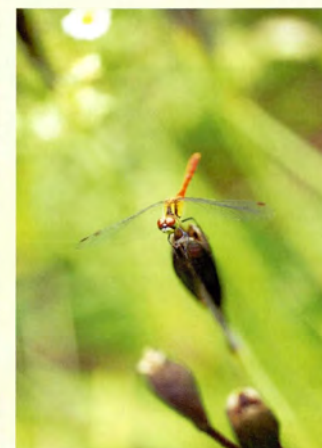
여고의 교정은 조용하고 아늑한 곳도 많으나 환경에 따라 더욱 분위기도 연출하며, 쉬



단풍사이로 하늘이



청하쭉부쟁이는 씨앗토틀리가 예뻐요



백합동산고추장자리



추위 속 캄스이아



세덤류



작점빛은 도자기화분에 식재



핀콘이대나물



는 시간과 점심시간의 휴식시간이 아파트에 사는 도시의 학생에게는 정말 마음의 쉼을 이어가는 곳이고, 청소년기의 고민과 친구와의 추억이 기억에 간직 하고픈 곳이다. 또한 다른 친구에게는 토론의 장이 되기도 하며, 짝 친구와의 담소의 장이 되기도 한다.

수도여고의 본관건물 뒷마당에는 졸업생 동문의 후원으로 완성된 고급스런 디자인의 courtyard 개념의 정원을 만들어 놓았다. 기본 설계 위에 미술과 학생들과 지도 교사의 정성으로 하나씩 공간 연출을 해마다 이어가며 학생들의 창의력을 자극하여 잠재력의 재능을 아름답고 안전한 장소에서 누리는 창작공간

눈이 오는 시간도 학생들의 재능은 잠시도 쉬지 않고 창작의 두뇌는 쉴 새없이 움직인다. 누구의 작품인지 알 수 없지만 본인의 작은 작품을 공유하고자 작은 눈사람에 정원에서 얻은 소재로 하나 하나 섬세히 생명력을 풀어 넣어 지나가는 학생들의 카메라 후레쉬를 받고 있다.



겨울의 서리로 검붉은 색으로 변한 메리골드의 꽃잎으로 나는 정체는 여자나사람이란 상징성을 묘사하였고, 마른 꽃잎 뒷면의 소재를 이용하여 눈으로 장식. 마른 줄기들이 눈썹, 코와 손의 장식으로 이용되었고 멋진 패턴의 캐시미어 머플러인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 억새식물의 씨앗이 연결된 소재였다.

모두가 감탄하며 여학생의 패션 감각에 갈채를 보내며, 겨울정원 속 자연의 소재는 어느 것 하나 유용하지 않은 것이 없음에 동의할 것이다. 학생들의 창작품에 학교에서는 폐품을 이용하도록 권유하며 많은 창작품이 소개된다.

이번 겨울 정원에서 만난 아주 작은 눈사람, C.J. Lewis 나니아 연대기의 소설속 이야기에 나오는 옷장을 통해 만나는 눈 세상을 만나는 막내 동생 루시의 모험이야기로 시작되는 나니아 연대기의 줄거리를 이어가듯이 눈속 세상에 마음껏 즐기며 창작의 이



백묘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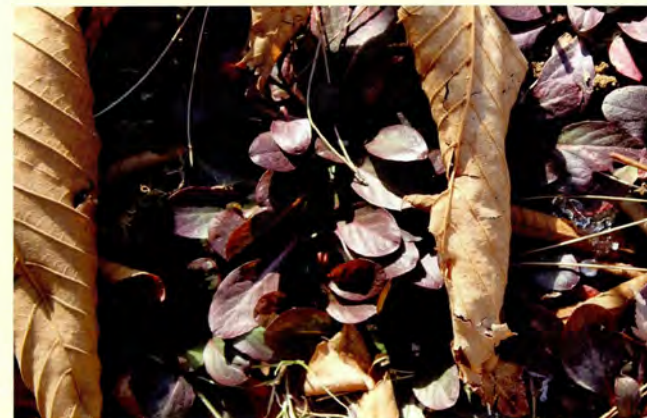
꽃창포 고투리와 씨앗

야기를 담아낸 여고생들의 겨울 정원이야기. 나니아라는 나라는 제이디스 마녀여왕 때문에 몇백 년째 겨울만 계속되는 이야기에서 흥미로웠던 등장인물들, 상반신은 사람이고 하반신은 염소의 다리를 소유한 파피누스 톱누스와 동물 친구인 비버부부와 네 명의 형제들의 이야기들이 생각난다.

이 겨울 정원에 루시를 포함한 4형제들도 초대하고 싶은 겨울정원 속 학생들의 작품 이야기들, 작품만큼이나 미모도 아름다운 생태환경미술반 동아리 학생들, 그들의 마음은 천사와도 같이 맑은 소리로 대화할 수 있었다. 식물을 가꾸며 젊은 어린 정원사들의 손길 화분도 정리하는 초보 정원사들 이었지만 순수한 마음으로, 점심시간이나 방과후 시간을 이용하여, 그들의 공간을 가꾸며, 관리하며 즐기는 공간으로 모두에게 반가운 곳이 되어 버렸다.

미래를 꿈꾸며 반가운 친구와 반가운 장소를 걸으며 꿈을 나누는 곳. 학교의 정원 공간에 정성과 마음으로 보내온 시간들을 위하여 미술담당 선생님이신, 순수 정원사의 노고도 빼놓을 수 없다.

눈 속에 숨어있는 겨울정원에 학생들의 작품의 이야기는 끝이 없이 이어간다. 정원을 거닐며 이런 기쁨은 나의 학창 시절로 돌아가 미술시간도 회상된다.



황금달맞이



핀마부들 씨앗이 모체를 떠나옴



수도여고교훈과 교화인 백합꽃

겨울 정원이란 소재 안에서의 색상이 이리 화려한지, 갑자기 수시고사가 끝나고 미술과 대학 입시를 위한 특강 학원의 수강료가 어마 어마하다는 미술과를 응시한 학부모의 이야기가 생각났다. 예를 들어, 겨울의 정원을 이용하여 조소과는 눈과 정원의 소재를 이용한 실기를 보았으면 하는 나의 바람이 든다. 시험을 보기 위해 많은 재료비도 지불해야 하며 넘치지 못한 학생에게는 기회를 주지 못하는 젊은 이의 꿈을 빼앗는 어른들의 뒷거래 문화도 사라지기를 바란다.



생태환경미술관 삼국실습

침묵하며 가르치는 자연의 교사와 소통을 누리는 젊은 청소년들의 행복

올해는 겨울 정원이 더 많이 모두들 반기기를 바란다. 사람들은 불평을 하며 시도도 하지않는 경우를 보게 된다. 세상은 불공평하다고, 네게는 절대 기회도 없다고, 겨울 정원도 알고픈 필자는 겨울 정원은 누구에게든 열려있는 공간이다. 그리고 아주 특별한 공간이다 보통 사람들이 꽃이 핀 시간의 공간을 즐긴다면 겨울 정원은 정원의 실체를 알아보는 아주 특별한 시간이다. 그리고 자연이 주는 지혜를 아주 많이 느낄 수 있다. 세상을 살아가며 보통 사람들이 발견하지 못하는 것을 찾는 기쁨은 아마도 좋은 친구를 만난 듯 기쁨이 클 것이다. 겨울정원을 돌아 보라고 권유하고 싶다. 그리고 봄을 남보다 먼저 계획하며 정원에서 주는 식물들의 희망의 메시지를 듣게 될 것이다. 추위와 사투를 벌이는 친구의 음성도 들을 수 있을 것이다. 자연의 시간 속에서 자연과 더불어 살아야 하는 처절함의 소리도 들릴 것이다. 하지만 모든 이들의 마음은 한결 같이 자연이 주는 봄의 움직임을 가장 기다릴 것이다. 추위



화분정리



스트게시아



에 어깨를 움추리며, 손을 호호 불며, 시린 발을 동동이며 겨울 정원을 걸어보자. 그리고 무엇이 우리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가을 느끼며 새해의 시간에 나를 위해 시간을 준비하자. 너무 많은 것에 감사하며, 여유로운 마음으로 겨울 정원의 내음을 맞도록 숨을 길게 들이켜 보자.

우리 모두는 교사의 가르침 속에서 학습을 이어가는 경우가 거의 다이다. 하지만 요즘은 숲 유치원도 열려서 자연의 교사가 가르치는 가르침에 동의하여 어려서부터 자연과의 교감을 나누도록 교육의 질도 변화하고 있다.

텃밭 자연인 듯 하지만 별거벗은 자연 소유하지 않은 자연의 겨울 생활에서 많은 교훈을 얻으리라 믿는다. 그리고 반가운 목소리로 이곳 저곳서 이야기 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 많은 경험과 많은 곳을 방문하며 살아가고 있다. 하지만 추운 겨울 시간 정원이나 자연과 이야기 나누는 시간은 거의 없을 것이다. 새해에는 자연의 교사와 소통하며 자연이 주는 정원문화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도록 권유하고 싶다. 걷고, 즐기며, 기쁨을 누리도록 ...



정원으로 늘 분주하신 미술교사선생님의 매미



시베리아바위취



겨울의 '저온작물' 딸기 재배하기

가정에서도 딸기 한팩의 가격으로, 년 중 집안에서 딸기를 가족에게 공급.



딸기재배기간

작 형	아주 심는 시기	수확 기간	재배 포인트
초속성	9월 상순	11 ~ 4월	조생종 이용, 꽃눈분화 촉진, 조기육묘 및 정식, 무휴면재배
속 성	9월 중하순	1 ~ 4월	무휴면재배, 정화방 분화후 정식
반속성	9하~10상	2 ~ 4월	휴면타파후 보온개시
노 지	10월중	5 ~ 6월	만생종 이용, 겨울철 관수관리로 건조피해 예방
여 름	5월	7 ~ 11월	사계성 품종 이용, 고령지재배, 고온기(7하~8중) 초세관리

딸기는 농장이나
밭에서 만 키우는 것은 아니다.



12개/ 1팩 매트로 구매가능

가정 재배용 딸기묘 관리방법

1. 모종 인수 시 직후관리

- 흙이 제거된 상태로 공급하는 일반 묘는 도착 즉시 가정의 화분이나 토양에 재식하며 재식 후 6~7일 정도는 시들면서 서서히 활착이 완료하며 화분에 재식 시 흙의 비율이 최소한 60% 이상 섞여줌.. 7일정도는 건조와 상관없이 매일 수분 공급.
- 비닐 화분 묘는 도착 즉시 화분이나 토양에 이식해야 하며 뿌리가 완전히 내린 상태이기 때문에 시들지 않고 성장하며 화분에 재식 시 비닐포트(화분)는 벗겨 버리고 나머지 부분은 전량 흙으로 채우고 물을 흠뻑 준다.

2. 비료사용 관리

- 일반 묘나 비닐화분 묘의 재식 시 퇴비나 화학비료 등은 절대불가. (원예용 성토도 비료성분이 있기 때문에 절대 사용하지 마시고 피트모스에 모래를 혼용하거나 흙만 사용)
- 일반 묘는 완전활착 후(재식 후 최소한 20~25일 경과 후) 개화 시부터 추비(덧비료)로만 시비해야 합니다. (*시비- 거름을 준다는 뜻)
- 비닐화분 묘나 대형 중형화분 묘는 꽃이 개화할 시기가 시비 적기이다.
- 화수는 20일 간격으로 2화정도 가장 적당합니다
- 개화시기에 비료사용량이 많으면 잎 테두리가 까맣게 타는 현상이 발생하나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3. 일반적인 관리

- 반드시 남향 베란다에서나 일조량이 충분한 토양에서 키우시며, 딸기는 반드시 일조량이 충분하게 있어야 정상적으로 생육한다.(수경재배하기 위하여 딸기 묘 구입을 의뢰하는데 딸기는 절대로 수경 재배는 식물입니다.)
- 아파트 베란다 재배 시 가장 큰 문제는 너무 건조하기 때문에 수시로 바닥에 물을 뿌려 주는 것이 좋으며 다른 화초와 같이 관리하면 습도가 유지되며 딸기작물은 물론 건강에도 좋습니다.
- 노화된 잎은 색깔이 변하면서 아래로 처지는데 제거해 주면 좋다.
- 토양재배 시 감정비닐을 깔아주면 수분유지 잡초방지 과일정결과 부패방지에 유리합니다
- 토양재배 시 2고랑으로 식재하면 관리하기 쉬우며 포기당 간격은 15Cm가 적당합니다.

4. 온도관리

- 생육환경은 주간 15~25℃ 야간 5~10℃ 로 2~5월의 아파트 베란다 환경이 적당하며 토양재배 시에는 최소한 1중 비닐을 보온해야 하며 혹한기의 추위에는 거칠로 옮기거나 토양재배시에는 긴이 2중 비닐로 보온해 준다.
- 개화 시에는 야간온도가 최소한 1℃ 이상 유지되어야 하며 동해시(-1℃ 이하) 잎은 피해가 없어도 꽃은 까맣게 변하여 수확 할 수 없습니다.
- 딸기는 저온작물이기에 2월이후 아파트 베란다 환경이면 아주 잘 자랍니다

5. 수분관리

- 화분재배는 4~6일 간격으로 한번씩 흠뻑 주고 토양재배 시에는 8~10일 주기로 주십시오.(한번 주더라도 흠뻑)
- 아파트베란다 재배 시 관리조건에 따라 건조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4~6일전이라도 화분 표면이 마르면 즉시 물을 주십시오
- 수분 부족 시 잎이 시들 시들하며 물을 주면 정상으로 회복되는데 시들지 않게 키우는 것이 좋습니다

6. 개화 시 관리

- 꽃은 1회 이상 개화하며 평균 2회 정도 개화합니다.
- 정상적으로 수정되어야 예쁘게 충분히 비대하며 수정방법은 수술이 열리는 한낮(11~14시)에 개화 시마다 꽃대를 한번씩 흔들어 주거나 젓가락으로 살짝

두드리주거나 온도가 높을 때 통풍장치를 개방하면 바람에 의하여 자연수정도 됩니다. 딸기는 한 꽃에 암술 수술이 같이 있기 때문에 수정이 잘됩니다.

• 화분에 재배 시 과일이 비대할 때 과일무게에 의하여 꽃대가 아래로 늘어지기 때문에 꽃대가 부러지지 않도록 하십시오.

• 화분(꽃대)당 8~12개 정도의 꽃이 피며 첫 번째 과일이 가장 크고 갈수록 작아 집니다

7. 병충해 관리

- 가정재배 시 시기적으로 환경적으로 병 발생이 적습니다 (가정재배의 아파트 환경에서도 한가루병이 거의 발생하지 않고 성형력이 가장 우수하고 과일이 크고 맛있는 품종으로 공급)

8. 딸기수확

- 딸기는 2월 이후 가정의 환경에서 개화 후 30~40일 정도 경과하면 수확가능.
- 한 꽃대의 첫 번째 딸기 수확 후 7~10일 간격으로 2, 3번째 순으로 딸기를 수확
- 정상적으로 생육하였을 때 맛은 좋아도 시중에 판매하는 딸기보다 조금 적습니다.
- 일찍 실을수록 뿌리가 많이 내려 큰 과일을 수확할 수 있습니다(2월 중순~3월초 유리함)

가든조아 딸기팩

베란다에서 딸기를 즐기자.
가정에서 계절에 상관없이 수확하는 가든조아 딸기팩.
40~50일후 베란다에서 빨간 딸기가 주렁주렁.
달콤하고 깨끗한 딸기가 열립니다.

딸기 폴리팩 : 3개 2만원(1개 7천원)
딸기 모종(12개 1팩)과 상토 구입시
추가 가격 문의

연락처 031-712-7009



도시근교, 관광지 주위에서 상업목적으로 노지재배 또는 시설재배 할 때는 반드시 가을에 식재한 후 월동하여야 대과수확 및 다수확으로 경제성이 있다.

딸기의 효능 :

비타민C, 당질, 미네랄을 적당히 함유한 계절 과일의 하나로 영양유지에 중요하고 특히 비타민C의 양이 대체로 500mg으로 하루 5~6개면 충분한 양, 피부건강과 바이러스 퇴치 효능이 탁월함. 딸기의 섬유질은 혈액 속의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소화기능을 촉진하는 효과. 딸기의 비오틴 성분은 머리결과 손톱 건강에도 좋다. 유제품과 함께 먹으면 칼슘 흡수도 도우며, 안토시아닌은 눈 건강에도 만점. 폐렴성 물질은 암 예방에 효과 식도암 예방과 팩틴이라는 성분이 대장활동촉진 성인병에 피로회복에도 좋다. 염산은 임신부에게도 매우 유익하다. 딸기 잎에는 녹차에 비해 폴리페놀이 2배 이상 함유되어 있다는 사실. 비타민 C는 항산화 작용이 뛰어나 체내의 산화방지 역할을 하는 항산화 비타민으로 피부에 미백효과가 있다. 딸기와 토마토로 만든 식품만이 전립선 암에 대한 효과가 있음. 딸기의 신맛을 내는 유기산은 체내의 노폐물을 제거해주고 미각을 둔구어 식욕증진의 효과가 있다. 딸기의 비타민 C는 사과에 비하여 10배 가량이며 노화방지효과가 탁월함. 딸기의 성분 중 철분은 빈혈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어서 자주 먹으면 빈혈 뿐 아니라 피부의 혈액도 개선되는 효과가 있다.

딸기는 100g- 27 kcal(5~7개 딸기-100g). 딸기 한 개는 약 5 kcal 딸기는 하루 1일 섭취량은 1회 10개, 하루 2화정도, 20개이상은 자제하여야한다.

딸기 팩의 이용

만드는 법:

1. 깨끗이 딸기를 씻고 꼭지를 떼어냅니다. (3~4개 정도)
2. 오트밀 가루나 밀가루와 레몬즙 1스푼을 섞어 걸쭉하게 만듭니다.
3. 얼굴에 거즈를 올려놓고 가볍게 발라준다.
4. 15~20분후 거즈를 제거하고 미온수로 깨끗이 씻어낸다.
5. 찬물로 마무리를 하여 탄력을 더해준다.

딸기 팩 효능

미백효과로 기미와 주근깨를 억제해주고 알레르기성 피부질환이 있는 분들에게 좋은 과일 중 하나입니다. 얼굴에 기미나 주근깨가 있는 분들에게 적극 추천합니다.

정원사의 일기 (Gardener's Diary)

관상정원(Ornamental Garden)

식물의 관상 가치는 식물을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 달라지죠. 식물을 각 부분별로 따로 보아도 좋고 같이 보아도 좋습니다. 각 각의 식물이 다 아름답다고 할 수 있겠죠. 그 중 식물의 열매는 다음세대를 이어갈 씨앗을 담고 있고, 씨앗은 곧 생명이기에 더욱 아름답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생명이 아름다운 것은 살아있고 의미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존재의 의미를 발견하는 것이야말로 관찰하는 사람의 가장 큰 기쁨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12월에 이어서 겨울정원에 어울리는 식물소재로 열매가 아름다운 식물을 소개합니다. 백문이불여일견(百聞不如一見). 즉 사진과 설명으로 이해를 돕도록 하고 백견이불여일행(百見不如一行). 즉 시간이 되면 근처의 식물원, 수목원에 가서 식물을 보길 기대합니다.

>> *Callicarpa dichotoma* 총찰살나무



추운지방에서는 낙엽이나 남부나 따뜻한 지방에서는 상록활엽으로 바뀔을 하며 자라고 원산지는 중국 서부, 티베트의 남동부입니다.

낙엽 활엽 관목으로 자라고 자생식물이고 중국에도 자란답니다. 보라색 꽃과 보라색 열매가 아름답습니다. 속명 Callicarpa는 그리스어 Call(아름다운)과 carpa(열매)의 합성어이고, 이렇게 외운 학명은 쉽게 잊혀지지 않습니다.

>> *Callicarpa japonica* 'Leucocarpa' 흰작살나무



낙엽활엽관목으로 자라고 자생식물인 작살나무의 원예종으로 흰색 열매가 특징입니다. 원예종명 Leucocarpa는 leuc(흰색)과 carpa(열매)의 합성어입니다.

>> *Cotoneaster salicifolius* 'Gnom' 살리키폴리우스개야랑



상록활엽관목으로 자라고 원예종입니다. 원종에 비해 왜성으로 자라서 지면을 덮기에 좋고, 작고 밝은 빨강색의 열매가 특징입니다.

가드너 김시용

전 천리포수목원 근무
영국 The Sir Harold Hillier Garden 연수
영국 RHS Garden, Wisley Diploma in Practical Horticulture Programme 졸업

>> *Cotoneaster microphyllus* var. *cochleatus* 미크로필루스개야랑



>> *Euonymus europaeus* 유럽회나무



낙엽활엽관목으로 자라고 원산지는 유럽입니다. 건조한 토양에서 잘 자라고 경계수로 적당하며 짙은 분홍색의 열매와 주황색의 씨앗이 보기에 좋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자라는 사철나무속(Euonymus)에 식물도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 *Euonymus europaeus* 'Red Cascade' 유럽회나무



낙엽활엽관목으로 자라고 원예종입니다. 원종에 비해 다소 길게 늘어지는 가지가 특징이며 짙은 분홍색의 열매와 주황색의 씨앗이 보기에 좋습니다.

>> *Ilex cornuta* 호랑가시나무



감탕나무과의 자롱이주(암나무)와 숫나무가 따로 있음) 식물입니다. 상록활엽관목으로 자라고 우리나라 남부지방에서 자라는 자생식물입니다. 암나무에 달리는 빨강색의 열매가 특징입니다. 빨간 열매를 보기위해서는 암나무를 심어야 되고 또한 수면에 숫나무가 있어야 합니다.

>> *Ilex serrata* 낙상홍



낙엽활엽관목으로 자라고 원산지는 중국과 일본입니다. 가을 단풍과 빨강열매가 특징이며, 빨강열매를 보기위해서는 암나무를 심어야 합니다. 또한 주변에 숫나무가 있어야 합니다.

>> *Ilex verticillata* 'Red Sprite' 미국낙상홍



낙엽활엽관목으로 자라고 원산지는 북아메리카 동부입니다. 수형이 둥글고 가을에 노란 단풍과 빨강열매가 겨울에 오랫동안 지속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빨강열매를 보기위해서는 암나무를 심어야 합니다. 또한 주변에 숫나무가 있어야 합니다.

>> *Ilex x wandsensis* 완도호랑가시



상록활엽관목으로 자라고 반짝이는 잎과 빨강열매가 특징입니다. 추운지방에서는 겨울에 피해 인지 않도록 월동준비를 해주면 기를 수 있습니다. 빨간 열매를 보기위해서는 암나무를 심어야 되고 또한 주변에 숫나무가 있어야 합니다.

>> *Nandina domestica* 'Richmond' 남천



따뜻한 지방에서는 상록활엽관목으로 자라고 적갈색의 단풍과 빨강색 열매가 특징입니다. 원종에 비해 크게 자라고 많은 열매가 있습니다.

>> *Viburnum odoratissimum* var. *awabuki* 아와나루



상록활엽관목으로 자라는 자생식물입니다. 우리나라 인동과(Capriolacae) 가막살나무속(Viburnum)에서 유일하게 상록이고 제주도과 남부지방 그리고 해안가를 따라 재배할 수 있습니다. 반짝이는 잎이 특징입니다.

>> *Viburnum sargentii* for. *calvescens* 민백당나무



낙엽활엽관목으로 자라고 우리나라 자생식물입니다. 빨강열매가 특징입니다. 또한 원종인 백당나무와 달리 어린가지와 잎에 털이 없습니다.

>> *Pyracantha angustifolia* 피라칸다



중부지방에서는 낙엽활엽관목으로 자라지만 따뜻한 지역에서는 상록으로 자랍니다. 경계수로 재배할 수도 있고 독립수로 심어도 좋습니다. 주황색 열매가 특징입니다.

>> *Viburnum dilatatum* 가막살나무



낙엽활엽관목으로 자라고 강원도 이남 전역에 자라고 있습니다. 빨강열매가 특징입니다.

채소정원(Vegetable Garden)

채소를 기르는 땅에 양분을 공급하기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작물을 기르는 방법에서는 돌려짓기, 사이짓기를 할 수 있습니다. 땅에 양분을 공급하는 방식에는 액비를 주거나, 축분, 유기질퇴비, 낙엽부엽토, 해초 등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에는 작물이 자라지 않는 기간에 녹비(녹색비료)를 길러 양분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녹비로 재배할 수 있는 식물에는 털갈퀴덩굴(헤어리벳치), 토끼풀, 자운영, 자주개자리(Medicago sativa, 알파파) 네마장황(Crotalaria juncea) 등 콩과 식물이 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콩과의 식물은 공중의 질소를 고정해서 땅에 공급할 수 있는 뿌리혹 박테리아가 있습니다. 토양의 물리적인 부분을 개선 할 수 있는 식물에는 밀과 보리가 있습니다. 이들 식물의 뿌리는 깊게 뻗기 때문에 딱딱한 토양을 깨뜨리는 역할을 합니다. 토양의 생태계를 좋게 하는 방법에는 미생물제제를 뿌릴 수도 있고 추운 겨울 눈이 왔을 때 썰겨(미강)를 뿌릴 수도 있습니다. 썰겨(미강)를 뿌리면 토양 내에 미생물이 활성화 되고 인산 또한 공급할 수 있습니다. 썰겨를 겨울에 눈이 왔을 때 뿌리는 이유는 미생물이 활동하기 위해서는 수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밀 썰겨(미강)

밀파파

털갈퀴덩굴

정원관리(Garden Maintenance)



Helleborus niger



Helleborus orientalis

일반적인 관리(Regular Maintenance)

- 크리스마스에 피는 Hippeastrum sp.(아마릴리스로 불림)을 양분을 줍니다.
- 외부의 수도꼭지나 배관을 얼지 않게 보호재로 둘러쌉니다.
- 경계수를 좋게 하기위해 원하는 높이 까지 한 면을 전정합니다. 다른 면은 다음 해에 합니다.
- 크리스마스роз, 크리스마스랜턴(Helleborus spp.)의 묵은 잎을 잘라줍니다.



도구관리(Tool Maintenance)

겨울은 정원에서 할 일이 많지 않기 때문에 손으로 쓰는 도구(전정가위, 톱 등)를 관리하기에 좋은 시기입니다. 이번 호에서는 톱을 먼저 다루고, 전정가위는 다음 호에 다루기로 합니다.

준비도구: 줄, 사포, 장갑, 쇠솔, 톱



① 먼저 쇠솔로 녹슨 부분을 닦아줍니다.



② 톱날의 방향을 확인하고 줄고 방향대로 안에서 밖으로 밀어 줍니다.



③ 반대방향도 마찬가지로 합니다.



④ 거친 사포로 톱의 녹을 제거합니다.



⑤ 고운 사포로 톱의 녹을 제거하고 깨끗이 합니다.



⑥ 고운 사포로 톱의 녹을 제거하고 깨끗이 합니다.



⑦ 줄에 묻어있는 녹을 쇠솔로 줄의 결대로 밀어서 제거합니다.

나무전정 (Pruning)

- 자두와 체리를 제외한 과수에 대한 전정을 마무리 합니다.
- 능소화는 여름전정과 겨울전정 두 번을 할 수 있는데, 그 목적은 첫 번째, 공기를 잘 통하게 하고 두 번째, 수형을 단정하게 하고 세 번째, 빛이 잘 들어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름전정은 7, 8월에 하고 겨울전정은 1, 2월에 전정을 합니다. 겨울 전정은 그 해에 자란 가지의 눈(꽃눈)을 2~3개 남기고 자르고 오래된 가지를 전정하여 나무의 활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꽃눈과 잎눈을 구별하는 방법은 눈이 통통하면 꽃눈이고 눈이 납작하면 잎눈에 해당합니다.



Campsis radicans 1



Campsis radicans 2



겨울김장, 우리씨드의 가족이 힘을 모으다



입추를 기점으로 김장에 쓰일 채소를 심던 일도 얼마 안된 듯 하나 상강의 계절이 오면서 배추에 서리가 내리기 시작하면 1년농사의 결정체로 한국의 문화에는 김장 담그기라는 한국의 고유 명절과 같은 행사를 맞는다.

(상강(霜降)이란? 서리가 내리는 시기를 뜻하는 절기로 가을의 쾌청한 날씨가지만 밤의 기온이 매우 낮아지는 때.)

특히 심고 가꾸어 음식으로 만들어 1년의 저장 식품을 만드는 일은 모든 정성과 힘을 모아야 하루 식사 때마다 빠짐 없이 먹는 김치의 맛은 얼마나 행복하게 김치를 담그는지 맛으로 평가를 얻어 더욱 모두의 에너지가 필요한 한국 고유의 문화이다.

11월 마지막 주 주말시간 이천시 모가면의 우리꽃 농원에도 배추가 600포기 무가 100개 정도의 김장을 준비 하였다. 자르고, 썰고, 무치고, 속을 넣고, 맛보고, 저장하고 그리고 마무리는 이름하여 김장파티. 사무실 직원과 농장 생산부의 외국인 직원이 함께 모여 김장 담그기를 하며, 웃고 즐기는 가운데 오랜만에 함께 정을 나누고 한국의 전통 문화를 전수하며 즐거운 오후의 시간이었다.

날씨도 화창 우리들의 김장 놀이에 따스한 빛이 우리들의 화창이 되어주었고 모두 모여 함께 버무리고, 속 넣는 활동의 일이 음악과 젊은 이들의 웃음 소리로 이어가고 결국 파티시간은 너무 치열한 경쟁으로 노래 한 곡을 뽑아내었다. 올해의 김장 맛은 이미 예측한대로 너무 달콤하게 맛있어 점심시간 직원 식당에서는 감절로 먹는다는 후문이다. 한해 먹거리를 준비 하는 일로 이리저리 사진을 찍으며 느낀 것은 행복하게 내년의 음식을 준비하는 손길과 하나된 마음을 보니 2015년은 회사에서 더 많은 일로 우리씨드 그룹의 사내 가족 모두가 행복을 나눌 것이다. 건강히 일하고 행복하게 맛난 음식을 나누어 먹는 기쁨을 찍는 것도 아주 행복한 날 이었다. 김장을 마치며...

김장을 하기 위해 3단계 정도의 기본 작업은 아래와 같다.



1 배추 절이기

- 배추 겉의 지나치게 파랗고 커다란 잎은 손질해주는데, 떼어낸 잎은 나중에 김치를 덮어주는 용도로 사용하므로 버리지 말고 같이 절여준다.
- 배추는 1/2 등분한다.
- 배추무게의 5% 굵은 소금과 배추무게의 60% 물의 비율로 소금물을 만들어 배추 밑동부분이 아래로 가게 하여 골고루 적셔준 후 밑동 부분을 중심으로 배추잎 사이사이에 배추무게 5%의 소금을 넉넉히 뿌려 준다. 예) 배추 10kg(큰 사이즈의 배추 약 3~4포기), 소금물(소금 500g + 물 6kg), 여분의 소금 500g
- 배추가 충분히 절여지도록 2시간 간격으로 위 아래를 뒤집어 주며 계절에 따라 8~12시간 정도 절인 후 물에 충분히 헹구 물기를 빼준다.
- 배추는 잎을 들었을 때 줄기 쪽이 잘 벌어질 정도로 절여주는 것이 좋다.

2 김장속 만들기

- 무는 깨끗이 씻어 껍질을 벗기지 말고 그대로 채를 썰어 준비하고, 쪽파와 갖은 무와 같은 길이로 썬다.
- 생새우는 깨끗한 물에 2~3회 행구어 이물질을 제거한 후 체에 받쳐 물기를 뺀다.
- 참쌀가루와 물을 1:10 비율로 잘 풀어서 덩어리가 지지 않게 끓여서 참쌀풀을 준비한다.
- 배는 껍질을 벗긴 후 믹서기에 곱게 갈아 배즙을 준비하고, 양파도 믹서기에 갈아 준비한다.
- 다진마늘, 다진생강, 액젓, 설탕, 고춧가루에 식힌 참쌀풀과 배즙, 양파즙을 넣어 잘 섞고, 부족한 간은 소금으로 맞춘다.
- 채썬 무에 양념과 생새우를 넣고 골고루 버무려 준 다음, 쪽파와 청감을 넣어 풋내가 나지 않게 잘 버무린다.



3 속 넣기

- 절여 둔 배추를 뒤쪽부터 한장씩 차례대로 펴쳐 골고루 속을 넣어준 후 겉 안으로 양념이 흘러 나오지 않게 돌려 모양을 잡아 완성한다.
- 통에 담을 때는 위와 아래쪽 김치의 줄기 부분이 반대로 가도록 넣어준다.
- 뚜껑을 닫기 전에 절여 준 파란 겉잎으로 김치 위를 꼼꼼히 덮어 준다.
- 냉장고에 넣기 전에 하루 정도 실온에서 숙성 시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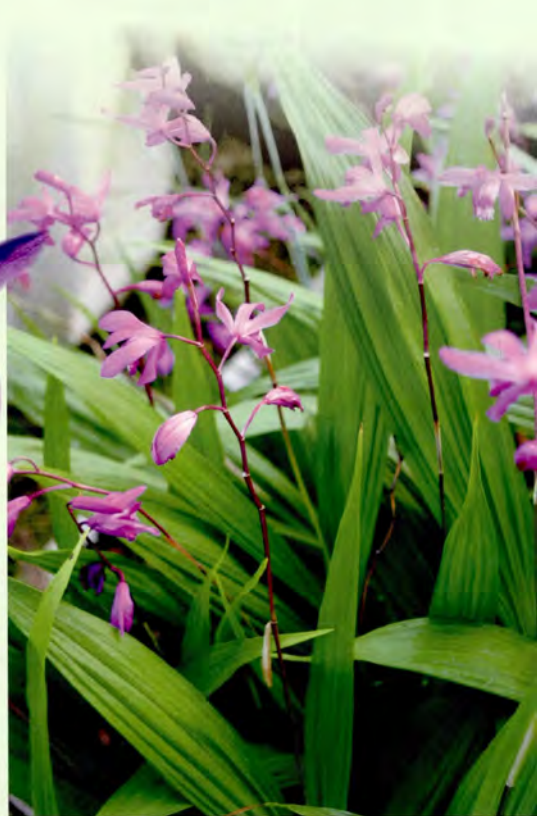
자란 속 (*Geums Bletilla*)

겨울에 낙엽이 지는 난과 식물로 9종 혹은 10종의 속으로 중국, 타이완 그리고 일본의 서늘한 곳에서부터 따뜻한 지역까지 발견된다. 우리나라는 남부일부와 제주도에서 생육하는 아름다운 식물이다. 긴 감자 모양으로 발달하는 구근으로 자라나는 짧은 지하경을 가지고 3개 혹은 4개의 국수 모양의 뿌리를 가지고 긴 선형의 잎을 가진다. 줄기는 똑바로 자라고, 최대 12개의 가는 별 모양의 꽃이 총상꽃차례를 이루어 봄에서 초여름까지 핀다. 대체로 활엽수림아래 낙엽 층이 충분한 토양에서 잘 자란다.

사실 우리나라 보다는 중국의 남부나 미얀마, 베트남 등 대체로 따뜻한 곳을 좋아 하는 식물로 우리나라는 자색(핑크색계)의 종이 자라지만 이들 지역에서는 흰색과 노란색 등이 다양하다. 내한성은 전주 이남정도에서는 자랄 수 있다.



Bletilla striata var. alba



Bletilla striata



Bletilla ochracea

재배는 온실에서, 부엽토가 첨가된 토양에 밝은 산광이나 밝은 간접적인 빛이 있는 곳에서 기른다. 여름에는 물을 충분히 주고, 균형 잡힌 액체 비료를 매일 3번째 물줄 때 준다. 겨울에는 건조함을 유지시킨다. 옥외에서는 부분적으로 그늘이 지고 보호가 되는 축축하고 배수가 잘 되고 부식토가 풍부한 토양에 기른다. 겨울에 뿌리덜거름 하여 보온은 필수이다. 가을에 구근을 캐낸 뒤 건조하고 서리가 없는 곳에 보관하고 이른 봄에 분주와 함께 식재하는 구근식물과 같이 관리하면 된다. 해충 및 질병점박이 응애와, 진딧물, 흰가루병, 빛나무꼭지벌레가 문제가 될 수 있다.

방울새풀 속 (*Geums Briza*)

군생을 이루는 일년생, 다년생 화본과 식물로 12~20 종의 속으로 유럽, 아시아의 온대지역에 있는 넓은 관목지역이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초원에 있다. 매혹적이고, 오래 유지되며, 통형이고 아주 약한 바람에도 흔들리는 4개에서 20개의 열매가 작은 수상화서 혹은 뺨뺨한 총상 꽃차례, 혹은 원추 꽃차례를 이루고 주로 여름에 핀다. 잎은 선형이다. 혼합식재된 야생화 정원이나 돌로 된 암석가든 혹은 아리(ARI)가든에서 기른다. 마른 줄기와 열매를 이용 드라이플라워나 꽃꽂이에 적합하고 염색에 사용된다.

내한성은 뛰어나 우리나라 전역에서 생육가능하다.

주로 하루 종일 태양이 비치는 양지에서 잘 자란다. 다년생 식물은 반그늘에서도 자랄 수 있다. 토양의 물 빠짐이 좋은 곳을 좋아 한다.

증식은 봄이나 가을에 직파하는 것이 좋고 다년생 식물은 봄 중순부터 여름 중순까지 분주를 해준다.

해충 및 질병은 별로 없어 재배가 매우 용이하다.



Briza



Briza maxima



Briza maxima



briza media



briza media



박공영 우리씨드그룹 회장(이학박사님)과 함께하는 정원식물의 속 훑쳐보기는 가든인 독자들에게 식물들을 제대로 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한 자리다. 그냥 이름 없는 꽃이 아니다. 식물이 속한 '속'이 있고 '학명'이 있고 '한국명'이 있다. 그러고 보면 한두 가지 이름이 아닌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는 식물은 그 이름만큼이나 꽃색, 향기, 아름다움으로 보답하기도 한다. 정원의 속을 볼 수 있는 기회를 빌려 식물에게 좀 더 가까이 다가가 보자.

붓들레아 속 (*Geuns Buddleja*)

상록성, 반 상록성, 낙엽성 관목과 때때로 큰 나무나 덩굴식물 그리고 소수의 여러해살이 풀등의 100여 종의 속으로 아시아, 아프리카, 북미와 남미의 강가, 암석지역, 그리고 잡목이 우거진 곳에서 자란다. 이들은 작은 통형의 향기로운 꽃이 모여 피는 원추 꽃차례의 아름다움을 자랑한다. 때때로 창형에서 넓은 난형모양의 대생하는 잎을 보기위해 길러지기도 한다. 덩굴식물을 제외한 모든 종은 혼합되거나 관목 화단에 적합하고 서리에 내한성이 있는 종은 일반적으로 빛이 잘 들고 따뜻한 곳을 좋아하여 건물 벽면이나 담장 등에 심으면 좋다.

추위가 심한 곳에서는 내한성이 강한 품종을 선택 하고 내한성이 약한 식물은 겨울동안 가온하지 않는 온실에서 기른다. *B. davidii* 와 *B. alternifolia*, *B. crispa* 와 같은 다른 종들은 별과 나비와 다른 유익한 곤충들을 유혹하고 불러 모은다. 여름 통풍이 잘되는 곳에서 기른다. 성장하는 동안 물을 충분히 주고 겨울에는 적게 준다. 옥외에서는 밝은 태양 아래 비옥하고 배수가 잘되는 토양에서 기른다. 대부분의 붓들레아는 봄에 가지치기를 하는데 주로 굵은 줄기에서 약 2~30cm지점의 묵은 줄기에서 튼튼한 새 싹은 남기고 모두 자르면 된다. *B. alternifolia*, *B. colvilei*, *B. farreri*, *B. globosa*는 너무 안으로 파고든 줄기나 약한 줄기는 아래서 바깥 자르고 통기를 감한하고 전년도에 꽃대아래를 자르는 게 좋고 전년도에 잘 길러진 식물은 전년도에 개화지만 잘라주면 된다. 봄이나 이른 여름에 개화하므로 가을에 개화하는 꽃들을 위해선 여름부터 개화 완료된 꽃대는 잘라주면 지속해서 탐스런 꽃을 피운다. 증식은 반 성숙된 줄기를 꺾꽂이하면 여름에 뿌리를 내린다. 해충 및 질병으로는 진딧물, 점박이 응애 등의 해를 입을 수 있다.



Buddleja davidii Empire Blue



Buddleja davidii White Profusion



회양목 속 (*Geuns Buxus*)



70여종의 상록성 관목과 교목을 포함하는 속으로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미국의 중부의 바위가 많은 언덕과 삼림지에 있다. 잎은 마주나고 긴 창형에서 거의 둥근형까지 있으며, 잎의 표면이 광택이 나는 식물이다. 봄에는 작고 별모양의 두 성을 모두 지닌 연두색 꽃이 동일한 식물에서 피어난다. 다수의 눈에 잘 띄는 노란색 이 수꽃이고, 이들은 하나의 암꽃을 둘러싸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석회암지대의 바위 틈에서 많이 자생하는데 북한의 화남지방에 많이 난다하여 회양목의 유래가 되었다고 한다. 회양목은 주로 다양한 모양의 가위질을 견딜 수 있다. 이들은 순치기와 장식에 적합하다. 작은 Buxus를 돌로 된 정원의 가장자리 장식, 피복 식물로 사용한다. 수액의 접촉은 피부 염증을 일으킨다.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정원의 경계나 울타리로 많이 이용하고 돌 축대의 메지용으로도 많이 이용된다.

내한성이 강해 북한지방에서도 상록의 잎을 가지고 있다. 재배는 비옥하고 배수가 잘 되는 토양에서 기르고 그들이 좀 진 곳이 적당하다. 햇빛에 대한 내성이 있으나 강한 햇빛과 좋지 않은 토양의 결합은 잎의 색을 나쁘게 하고 잎을 태운다.



가지치기는 초여름 울타리와 화단 가장자리에 있는 식물을 다듬어 준다. 늦봄에 하는 원형의 둥글게 가지치기를 할 경우도 좋다. 너무 강한 전정의 경우 당해 년은 토양을 피복하고 비료를 넉넉히 준다. 증식은 주로 가을에 냉상이 된 화분에 뿌린다. 반 성숙된 가지를 이용한 꺾꽂이가 잘되는데 여름 장마철에 뿌리를 내린다. 겨울에 절목을 한다. 해충 및 질병에는 회양목 줄기마름병이 치명적인데 줄기가 마르며 잎을 모두 떨어뜨리는 병이다. 곰팡이가 원인균이다. 그리고 점박이 응애의 피해가 있다.

겨울 정원의 매력



남천 Heavenly Bamboo (*Nandina domestica*)

남성(男性)의 기(氣)를 살려주는 식물

남천의 녹색과 겨울의 붉은 잎을 남천죽엽 이라 하고 부리는 남천죽근, 영롱한 모습으로 매달린 열매들은 남천죽자라고 칭하기도 하며, 외국에서는 Heavenly Bamboo 라는 명칭도 얻고 있다. 남천식물은 중국에서는 새해 신년 붉게 물든고 풍성한 열매가 달린 것을 구입하여 사대 부 집안을 장식하며 나이가 연로하신 분들에게 최고의 선물로 값어치를 준한다. 남천나무 가지로 젓가락을 만들어 음식을 먹으며 중풍의 질환을 예방한다고 믿기도 하였다. 또한 신선이 먹는 식품이라고 하여 잎을 찹에 섞어 밥을 지어 먹으면 흰머리가 검어지고 회춘이 된다고 하여 성죽(聖竹)이라고 불려주기도 한다. 남천은 찬 기운이 엄습해오고 빛을 강하게 받으면 단풍색의 아름다움이 환상적인데 특히, '남성(男性)의 기(氣)를 살려주는 식물'이라고 하여 세계적으로 아주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남천 잎은 일식 집에서 회 밑에 깔아 사용도 한다.

물론 사계절 우리에게 푸름을 안겨주는 소나무도 우수하다고 하지만 사철 변화된 모습으로 주는 풍부함과 아름다움이 남달라 그 값어치를 서서히 인정받고 있다. 대부분 식물들이 꽃의 화려함에 반하지만 남천식물은 나무같이 우람하고 큰 키를 자랑하지도 못하지만 아담한 사이즈가 더 매력적이며, 가을의 찬바람이 불어오면서 붉게 물든 열매가 풍성하게 달려 있는 모습을 바라보면 탄성이 저절로 나오게 될 것이다. 겨울철에도 잎과 붉게 달린 열매가 그대로 달려 있어 겨울 철새들에게도 인기가 높으며 삭막한 대지 위에 붉은 빛의 남천나무로 새로운 기운을 안겨주기에 충분하다고 사료된다.



남천의 색의 변화하는 모습을 육안으로 확인 가능 (11월 말경 남천의 잎의 색상)



다양한 열매의 색상은 자연에서 만나는 기쁨



여름철 흰 꽃이 피는 남천

미나리아재비목 매자나무과의 상록관목으로 높이 2-3미터 정도이며 잎은 혁질이고, 깃 모양 겹잎으로 길이는 30-50cm 정도이다. 작은 잎은 타원모양의 바소꼴이고 길이는 3-10cm로 톱니가 있다. (혁질(革質)이란? 질감이 가죽처럼 두꺼운 것) 꽃은 양성(兩性)으로서 6~7월에 피고 가지 끝에서 나오는 원추(圓錐)꽃차례에 달리며 꽃 받침잎은 3개이고 꽃부리는 백색이고, 수술은 6개이고 씨방은 1개이며 암술대는 짧다. 열매는 둥글고 10월경 빨간색이 빛나게 익어가며, 관상용으로, 원예품종에는 열매의 빛깔이 백색인 것과 연한 자줏빛인 것이 있다.



아파트 단지나 현관 가까이를 남천은 관리가 쉽고, 같은 장소지만 사계절의 경관을 다양하게 연출 대부분 식물들이 꽃의 화려함에 반하지만 남천식물은 나무같이 우람하고 큰 키를 자랑하지도 못하지만 아담한 사이즈가 더 매력적이며, 가을의 찬바람이 불어오면서 붉게 물든 열매가 풍성하게 달려 있는 모습을 바라보면 탄성이 저절로 나오게 될 것이다. 겨울철에도 잎과 붉게 달린 열매가 그대로 달려 있어 겨울 철새들에게도 인기가 높으며 삭막한 대지 위에 붉은 빛의 남천 나무로 새로운 기운을 안겨주기에 충분하다고 사료된다.

겨울 찬 기운에도 아주 강한 편이고 종자로 번식하는 데 발아되는 기간이 8개월 정도 걸리기도 한다. 붉은 열매를 그대로 말려 파종을 하면 1년 정도 붉은 씨앗을 물에 불려 껍질을 제거하고 까만 두 쪽의 씨앗으로 파종을 하면 6-8개월 정도가 소요되어야 새로운 싹을 볼 수 있기에 인내를 가지지 못하면 발아에 실패

패하였다고 포기할 수도 있으므로 끈기를 갖고 기다리길 충고 드린다. 열매와 줄기는 약용으로 활용되고 중국, 일본 등지에 분포 자생한다. 남천은 일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정원에 쓰이는 인기 있는 식물이다. 4계절 감상 가능하며 봄에는 하얀 꽃이 피어 열매가 열려 1년~1년 6개월까지 간다. 봄에는 꽃, 여름에는



자작나무 아래의 식재는 겨울정원에서 서로의 색을 자아낼 수 이점이 있다.

내한성도 강하며 물은 3~4일에 한번씩 주며, 씨로 번식하며 (11월달) 발아기간은 6개월 정도 된다. 베란다에 파종을 해도 파종 기간을 뚫고 새싹이 많이 나오고 있다. 햇빛이 풍부하다면 아파트 베란대에 식재하여도 아름다움을 감상할 수 있다.

가든인 Tip
Gardenin

- 식재년도 : 상록관목
- 개화기 : 6~7월경 여름 (흰색꽃)
- 크기 : 높이 2m x 폭 1m 넓이
- 식재위치 : 양지 & 윤지 가능
- 물주기 : 물은 주지 (전조하지 않게 주의)
- 가지치기 : 봄

종자 발아법 : 겨울 찬 기운에도 아주 강한 편이고 종자로 번식하는 데 발아되는 기간이 8개월 정도 걸리기도 한다. 붉은 열매를 그대로 말려 파종을 하면 1년 정도 붉은 씨앗을 물에 불려 껍질을 제거하고 까만 두 쪽의 씨앗으로 파종을 하면 6-8개월 정도가 소요되어야 새로운 싹을 볼 수 있기에 인내를 가지지 못하면 발아에 실패

종자재주 : 가을에 맺은 열매를 봄을 기다려 채취할 수 있다.

가지치기 : 봄 가지치기를 이용하여, 길이의 1/3 이상은 자르지 말고 어린 가지나 약한 성장가지는 잘라주면 더 많은 싹을 줄 수 있다.



황금 줄무늬 맥문동 (Liriope muscarum 'Vanegata') Purple / Lavender Flower

지피식물로 사계절 사랑받는 맥문동

맥문동속/맥문아재비속 식물들

개맥문동 *Liriope spicata* (Thunb.) Lour.

맥문동 *Liriope platyphylla* F.T.Wang & T.Tang

좁맥문동 *Liriope minor* (Maxim.) Makino

맥문아재비 (이명:왕맥문동) *Ophiopogon jaburan* (Kunth) Lodd.

소엽맥문동 *Ophiopogon japonicus* (L.f.) Ker Gawl.

실맥문동 *Ophiopogon japonicus* var. *umbrosus* Maxim.

	꽃 색	꽃 달림	열매색상	잎	
맥문동	흰	자주	조밀	흑색	엽맥 11이상
개맥문동	연한 자주	양성	흑색	엽맥 11미만	
맥문아재비	흰(바탕에 연한 자주색 무늬)	속음	청색		
소엽맥문동	연한 자주	속음	청색	잎이 희고 가늘다 2-3mm	

특징

잎은 근경에서 총생하며 선형이고 길이 30-40cm, 폭 4-7mm로서 7-11맥이 있으며 밑부분이 좁아지고 짙은 녹색. 열매는 노출된 종자로서 흑색으로 익으며 지름 7mm정도이다. 꽃은 5-7월에 피고 화경(花莖)은 길이 25-40cm로서 둔한 능선이 있으며 총상화서는 길이 8-12cm로서 1마디에 2-5개의 꽃이 달리고 소화경은 길이 3-5mm로서 중앙 또는 윗부분에 관절이 있으며 화피 열편은 6개이고 길이 4mm정도이며 연한 자주색으로서 외화피 3조각은 장타원상 피침형이고 내화피 3조각은 광타원형이다. 수술은 6개이고 자방은 상위이며 3실이 있다. 줄기는 가늘고 길며 곧게 선다. 뿌리의 근경은 옆으로 길게 뻗으면서 번식하고 수염뿌리는 가늘게 길며 매우 드물게 끝에 작은 덩이뿌리(소과근)이 나오는데, 기는 가지를 뻗으며 번식한다. 형태는 다년초로 크기는 화경(花莖)이 높이 25-40cm.



맥문동 식생매트의 활용법:

성장한 식생매트 식재는 빠르고, 쉽게 최고 자연경관 연출
식생매트의 장점은 식재후 완벽한 성장모습을 연출
식생매트의 사이드로 정확한 식재개산 가능
작업시간이 빨라 인건비 절감과 계약재배로 이른 경관의 식재전문가
식생매트의 식재로 잡초의 걱정이 없이 최고의 경관모습이 탄생



우리꽃은 맥문동의 수요를
대비하여 쉽고, 빠르게 식재가
가능한 식생매트를
공급하고 있다.



기후 및 환경

맥문동 자생지의 환경을 보면 서북한의 음습지 또는 나무 그늘인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 같은 환경조건에서는 자생 부의 생육은 종지만 지하부 과근의 발달이 좋지 않아 수량이 떨어지게 된다. 맥문동은 햇빛이 잘 드는 곳에서 생육시켜 과근이 많이 형성되어 수량이 많아진다. 맥문동은 내한성이 강하여 고령지에서도 자생하고 뿌리의 발달도 좋아 우리나라 어느 곳에서나 재배가 가능하다. 그러나 중북부지역보다는 생육기간이 긴 남부지역에서 재배하는 것이 수량이 많다.

토질

토질은 물빠짐이 좋고 유기물함량이 많아 사양토나 양토가 적합하다. 만약 물빠짐이 나쁜 토양이나 식트에 심으면 과근의 비대 생육도 늦지만 비대된 과근이 썩는 경우도 많아 수량이 감소한다. 너무 비옥한 땅에 심거나 질소비료를 너무 많이 주면 일단 무성하게 자라고 과근의 비대 생장이 좋지 않으므로 비옥도가 중정도의 땅에 재배하는 것이 좋다.

번식

번식방법에는 두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종자번식이며 다른 하나는 분주로 번식하나 대량으로 번식할때는 전자가 가능하나 발아기간이 길고 모판에서 1년 동안 비배관리후 본토에 정식하므로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는 반면 후자는 번식은 대량으로 할 수 없으나 당년에 수확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주로 농가에서는 분주번식을 하고 있다.

가. 종자번식법

종자가 흑자색으로 변하는 10~11월경에 채종한 종자를 과육제거후 읍지에서 약 1주일 정도 풍건시켜 모래와 혼합하여 씨지 않게 저장하였다가 다음해 봄 (3월경) 배수 양호한 사질양토에 모판을 만들고 15cm 간격으로 조파하여 2~3개월정도 지나서 발아하게 되는데 모판에서 1년동안 비배관리를 한 뒤에 본토에 정식한다.

나. 분주법

번식할 포기는 발육이 좋고 비대 건실한 과근이 많이 붙는 것을 선택해야 한다. 수확할 때 과근을 따고 좋은 포기만을 모아서 뿌리의 길이 5~7cm정도 남기고 자르며 지상부의 잎도 1/3정도 잘라버리고 일단 다발로 흙속에 저장하였다가 본밭에 심을 준비가 되면 심을 때 포기가 큰 것을 4~6본으로 나누어 심는다. 뿌리와 잎을 잘라 주는 이유는 뿌리를 짧게 끊어 주어 뿌리의 기부에서 과근이 크게 되고 건실한 새 뿌리가 뻗게 되어 잎은 착근까지의 심한 증발을 억제하는 것이다. 12월~2월 사이는 소과근이 비대해지는 시기이다.



사진 : 맥문동 소과근을 분주하는 모습

식생매트 실사이즈 340 cm x 500 cm

식생매트종류: 맥문동, 수호초, 야주가, 옥잠화, 아스타, 잔디상록패랭이, 세덤, 흰줄무늬다사초, 양지꽃 2종, 금계국, 창포, 쑥부쟁이, 조염쑥살풀, 원추리, 꽃범의 고리, 에키나, 사포나리아, 가우라 의 다수

구입처 : 우리꽃 연락처
031 634 7990

겨울정원의 지피식물 아주가



봄이 오면 보라빛 꽃을 피는 줄거움을 만나리라



봄이 오면 지피식 물들의 행진 속 보라빛 아주가가 정원을 연출 디자인의 주역



벌을 부르는 꽃들과 식물 아주가 열매



서리맞은 아주의 자태



겨울철이 오면 짙은 초코렛색으로 변하여 겨울정원의 매력적 point 식물

아주가레프톤(Ajuga reptans)

꿀풀과 조개나물속(Ajuga)의 여러해살이풀. 유라시아 원산의 식물로서 서양 조개나물이라고도 부른다. 원래 이름은 아주가레프톤 인데 줄여서 아주가라고 한다. 봄부터 여름까지 피는 꽃은 보라빛을 띤 푸른색이다. 추출물이 피부세포의 성장과 재생을 활성화시켜 노화방지에 효과가 있어 화장품의 재료로 사용된다. 내한성이 강하며, 노지월동 숙근 다년초로 아주가는 잎의 색상이 봄과 겨울철 정원에서 즐기는 색상의 종류중 하나입니다. 봄 개화하며 키는 10-15cm 이내입니다. 짙은 검은 자주빛 잎은 윤기가 있으며, 꾸그러 놓은 듯한 모습을 하며 잎에 힘이 있고 단정한 느낌을 줍니다. 마당에서 모아 심어 짙은 자주빛의 변화있는 모습을 만들 수도 있으며 화분에 심어 즐기기에 적합한 듯 합니다. 번식은 포기나누기로 가능 합니다



흰돌 사이로 아주의 위상이 고급스럽게 겨울정원에



올해 처음 아주를 만난 정원주택소유의 정원은 창가로 보이는 보라빛 잎의 식물만으로 겨울정원을 누린다.



꿀풀목(一目 Lamiales) 꿀풀과(一科 Lamiaceae)에 속하며 약 40종(種)의 유라시아산 식물로 이루어진 속.

이 속의 식물을 영어로는 'Bugleweed'라고 한다. 꿀풀과의 대표적인 특징이라 할 수 있는 윗입술 꽃잎이 없다. 땅 위를 기면서 자라는 일부 종(種)들은 지피식물로 이용하기도 하는데, 전세계에 퍼져서 귀화식물로 자란다. 축축한 초원이나 삼림지에서 자라는 아주가 레프톤(A. reptans)은 잎이 암녹색으로 넓은 타원형이며 로제트로 뭉쳐난다. 길이가 30cm 정도인 줄기에 짧은 수상(穗狀)꽃차례가 달리는데, 꽃은 푸른색이지만 분홍색이나 흰색으로도 핀다. 이보다 작은 아주가 카마이피티스(A. chamaepitys)는 노란색 꽃이 핀다. 잎은 3갈래로 갈라지고 바늘처럼 생겼으며 소나무 냄새가 난다. 한국에는 3종이 자란다. 이중 조개나물(A. multiflora)이 가장 흔한데, 5~6월에 양지바른 풀밭과 잔디밭에서 남보라색의 꽃이 수상꽃차례를 이룬다. 가끔 흰색이나 붉은색 꽃이 피기도 한다. 이밖에 자난초(A. spectabilis)와 금창초(A. decumbens)가 주로 남쪽 지방에서 자란다. (해충과 질병 : 흙벌레 토양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짙은 아주가와 연한 잎의 대비를 바라만 보아도 싱그러움을 주는 식재디자인



사진의 아주가 식생매트의 이용도는 쉽고, 용이하게, 빠르다

아주가 식생매트는 거의 1년이 상 성장한 것으로 봄에 식재하면 바로 정원 연출이 가능하고 식생매트의 효과는 정원의 지피부분을 완벽히 덮어주어 정원 디자인에 완벽한 모습의 정원연출을 고객에게 보이고 싶어할 때 각광받는 매트이다. 식생매트의 사이즈는 50cm x 32cm 로 바로 꺼내어 완벽히 뿌리를 내린 안정된 식재의 성장을 보며, 새로 이식한 식물의 돌봄이 전혀 필요하지 않아 관리 면에서도 용이한 식생매트의 장점이며, 가을 잎의 색상도 정원 디자인의 포인트이다.

향 내음을 전하는 지피식물



2014.12월말 패랭이모종 사진

겨울철, 향내음을 전하는 지피식물의 소개

겨울철 겨울나기 채비로 고요해진 겨울 정원에서도 생명 활동은 계속된다. 이 즈음에 꽃을 피우는 식물이 적지 않다. 살을 에는 바람, 사나운 눈보라와 같이 꽃 피우기에 불리한 조건을 감수해야 하는 까닭에 겨울에 피는 꽃은 두드러진 특징을 가진다. 또한 꽃을 도와줄 곤충이 없는 계절이니 번식도 쉽지 않으니 남다른 생존 전략을 가질 수밖에. 화려한 색깔을 띤 꽃송이라든가, 한꺼번에 많은 꽃송이를 여는 것도 그래서다. 유난스레 강한 향기를 띠는 것도 생존 전략 중 하나다.

패랭이꽃 독립 품종 / *Dianthus chinensis* spp. 상록패랭이

숙근성 다년초의 형태로 양지를 좋아하며, 내한성이 매우 강하며 약 30cm까지 자란다.

꽃은 6-8월까지 피며, 줄기 끝 부분에 약간의 가지가 갈라져서 그 끝에서 한 개씩 핀다.

꽃받침은 원통형이며 길이가 2cm 에 5개로 갈라지고, 그 밑에 소포는 4개, 꽃 받침통과 길이가 같거나 1/2 정도 된다. 꽃잎은 5개 이고, 기부는 가늘게 길며 현부 옆으로 퍼지고 가장자리가 얇게 갈라지며 바로 그 밑에 짙은 무늬와 더불어 긴 털이 약간 있다. 수술은 10개 암술대는 2개이다.

잎은 마주나기로 하며 엽병이 없고 길이 3-4cm, 폭이 7-9cm로서 선형 내지는 피침형이고 끝이 뾰족하고 밑부분이 서로 합쳐져서 짧게 통처럼 되며 가장자리가 밋밋하다.

1평방 미터당 50-80 포트의 식재가 소요된다.



네덜란드의 상록 패랭이 홍보 사진

생육환경은 양지 바른 곳을 좋아하며, 토질은 비교적 가리지 않는 편이나 유기질이 많은 사양토 또는 양토가 좋으며, 배합토를 쓸 경우에는 부엽: 배양토: 모래를 각각 3:5:2의 비율을 섞어 사용하면 된다. 배수가 잘되는 사질 토양에서 잘 자란다.

번식은 분주와 삽목, 실생으로 번식하며, 9월경에는 다시 2번째 개화도 한다. 내건성과 내한성이 강하고 내습성이 약하다. 거름은 알칼리성 성분이 많이 함유된 것이 성장에 도움이 된다.

상록 패랭이는 세계에서 인정한 로열티 품종이며, 패랭이를 포트나 화분에 심던 디자인에서 프랑스와 네덜란드에서도 대량 식재로 상록 패랭이의 향과 디자인을 외국에 전수하여 외국 조경 디자인에게도 인기 상품이고 아래 사진 중에는 12월의 혹한 한파 속에서도 상록의 기쁨을 전원에서 잃지 않는 우리꽃의 효자상품이고 국위선양 상품이다.





가든인 팀
Gardenin Tip

새로운 식물을 식재시 필요한 Tip

배수 및 비 옥도 개선 하기 위해 재배 지역에 퇴 비를 추가 하는 것이 좋습니다. 2/3 토양에 퇴 비 1/3의 비율에 퇴비에서를 혼합. 또한, 각 심기 구멍에 경 석 추가.

언제 심는가?

최고의 시간을 심기는 이른 봄에서 부터 초여름에 여름 중반 심기 충분 한 물을 공급하며, 으로 날의 멋진 부분에서 수행 해야 합니다. 겨울 재배를 위한 토양 수 분에 눈을 유지.

수령 공급

새로운 식물의 자리를 공장 설립 될 첫번째 2 절 기에 대한 정기적으로 물이 필요 합니다. 여름에 물 식물 일주일에 한 번, 천천히, 시간에 대한 컨테이너 크기와 위치에 따라 매일 급수 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파수 시즌 변경으로 수정 될 수 있습니다. 비료입니다. 모든 목적 스프링에 적용 선택의 비료를 사용 합니다. 응용 프로그램 가격에 대한 패키지에 지시를 따릅니다. 새로운 이주 물고기와 충격을 완화 시키기 위해 다시 마 물을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 꽃 비료 연감은 모든 꽃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 뿌리 덮개입니다. 한 뿌리 덮개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는 2 회 (봄, 가을) 훌륭한 퇴 비와 함께. 도움이 절약 물 뿌리 토양, 향상과 뿌리를 살펴봐야 합니다. 봄 뿌리 덮개 섞일 수 있다 또한는 세부적인 모든 목적 비료.



Allium senescens and bee



Allium senescens montanum



Allium spirales



Chinesischer Lauch Allium tuberosum

10년이상을 한자리에서 자라는 스태미너식

부추 Allium

정원에도 관상용으로 식재인기

부추는 기후에 적응성이 커서 전국적으로 어느 곳에서나 재배되며, 봄부터 가을까지 수확할 수 있는 좋은 채소중의 하나이다. 경산시 진량면 아사리에 사는 이재철 씨를 찾은 것은 신날거리밭을 찾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마침 그 덕네가 10년생 정도 되어 보이는 대추나무 과수원 사이의 서너 평 남짓 되는 부추 밭에서 칼로 부추를 수확하고 있었다. 찾으러 갔던 신날거리밭은 지난 해 눈이 거북잔등같이 갈라졌던 가뭄으로 종자를 잃었다고 하니 닭 대신 꿩이라고 다행이 아닐 수가 없었다. 잎의 폭이 2~3mm 정도로 좁고 키도 작은 토종부추를 고집스럽게 뒷동산 언덕에 서너 평 남짓을 20여 년 간 재배해 온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한 번 심어 쪼개나 고운 퇴비거름을 덮어 주기만 하면 10년 이상을 한자리에서 아무 때고 찬거리가 떨어질 때면 언제든지 싱싱하고 맛있는 새 부추를 수확할 수 있었던 것이다.

중국의 서부 및 북부 지방이 원산지인 부추라는 작물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재배되기 시작한 것은 삼국시대일 것이라고 추측되고 있으나, 언제 인지를 확실히 아는 사람은 없는 것 같다. 부추는 동양에서도 중국, 한국 및 일본에서만 식용으로 하고 있으며, 서양에서는 재배되지 않는다. 우리나라에는 토종부추 외에도 산에 나는 산부추와 산동에서 이주해 온 중국 사람들과 함께 들어왔을 법한 잎이 넓고 키가 큰 중국부추 등 몇 가지 종류의 부추가 있다. 우리나라에는 재배종 부추가 널리 재배되고 있으나 농가에서는 일반적으로 잎의 폭이 2~3mm로 좁은 토종 실부추를 재배하여 먹고 있다.



재래부추(예산수집)



부추의 개화

글 사진 안완식
토종씨드림 대표



부추 밭(입북리)



토종부추



영양부추



산부추꽃



민개한 산부추꽃



한라부추



부추꽃



토종실부추



산부추



산부추



한라부추

토종부추는 잎의 폭이 5~6mm 정도로 좁고 초장도 20~30cm 정도로 짧으며 연하고 향이 짙다. 꽃은 여름 고온, 장일하에서 추대 개화한다. 영양부추는 영양지방에서 심었던 토종부추로 잎폭이 2~3mm 정도로 좁고 부드럽다. 또 잎이 아삭아삭한 맛으로 유명하다.

경산수집종, 영주수집종 등도 잎이 좁다. 그 외에 밀양, 예천, 청송, 문경, 영일, 영덕, 청도, 안동 등에서 수집한 잎이 좁은 부추들이 있다.

야생종으로는 산부추, 몽고부추, 한라부추, 세모부추 두메부추 등이 있다.

산부추는 강원도 및 경기도의 산지에 자생하는 여러해살이풀로 초장은 30~60센티미터이다. 잎의 단면은 삼각형이다. 풀에서 약한 마늘 냄새가 나고, 비늘줄기와 연한 식물체는 식용으로 한다. 산부추의 꽃은 붉은 자주색으로 7~9월에 피는데 송이가 많이 달린다.

참산부추는 전국 산속의 건조한 지형에 자란다. 높이 15~50cm 정도로 자라며 땅 속에 비늘줄기가 있다. 참산부추는 9~11월에 자주색으로 줄기끝에 우산형으로 홍자색의 꽃이 핀다. 꽃봉우리의 수가 적어 화려함이 덜한 산부추에 비해 봉우리가 많아 뚜렷한 공모양을 유지하여 참산부추라 이름하였다.

두메부추는 잎이 뿌리에서 많이 나오고 길이 20~30cm, 나비 0.2~0.9cm로 살진 부추잎 같다. 꽃은 8~9월에 산형 꽃차례로 많이 핀다. 한라부추는 제주도 한라산의 표고 1,100이상, 전남 백운산 정상부근에 자생한다. 높이가 27cm이고 잎의 길이 10~20cm, 나비 2~3cm로 선형이다. 한라산 일원에 자생하므로 "한라부추"라고 한다. 식용도 가능하고, 고랭지의 지피식물로 이용하거나 초물분재로 감상한다.

한라부추의 꽃은 8~9월에 산형화서에 3~30개의 홍자색으로 핀다. 키가 작고 꽃의 관상 가치가 높으므로 암석원의 바위 옆에 식재하면 좋다. 울릉부추는 울릉도에 자생하므로 울릉



영글어지고 있는 부추의 식과



한라부추꽃



황성신부추는 붉은 잎과 푸른 잎등 두종이 있다.



황성신부추



두메부추의 개화



두메부추



두메부추



두메부추의 구경



참산부추



두메부추

부추라고 하였다. 잎폭이 10-15mm로 넓고 키는 30-40cm이다. 잎이 연하며 식용한다. 부추는 영양가가 높고 독특한 향미가 있으며 소화 작용을 돕는다. 부추에는 매운 자극적인 성분인 유황 화합물인 프로필설파이드가 주체로서 그 성분의 하나가 알리신인데 이것이 비타민 B₆의 흡수를 크게 도와주며 자율신경을 자극하여 에너지 대사를 활발하게 해주기 때문에 몸에 냉증이 심할 때 혈액순환을 좋게 하며 따뜻해진다. 그래서 동의보감에도 '부추는 인체 내의 열에너지를 돋우는 식품이요, 더운 성질을 갖고 있어 보온효과가 뚜렷하다'고 했다. 부추는 자양강장약으로 분류되어 있는 한약재로 특히 혈액 순환을 촉진하는 좋은 효능이 있다. 몸을 보온하는 효과가 높아 몸이 냉한 체질에 좋은 효과를 나타낸다. 부추에는 나쁜 피를 배출하는 작용이 있어서 생리 양을 증가시키고 생리통을 없애주며, 빈혈 치료의 효과도 있다. 또한 부추를 먹으면 감기에 잘 안 걸릴 뿐만 아니라 설사나 복통에도 효과가 있다고 한다. 평상시에 계속 먹으면 중풍을 예방할 수 있다고 한다. 부추는 정장작용을 하며 철분이 많아 혈액을 정상화하고 세포에 활력을 준다. 부추를 꾸준히 먹으면 위



참산부추

장기능이 좋아지고 피부도 고와지는 등 온몸의 대사를 활발하게 하며 스테미나 증진에도 좋다. 또한 파, 마늘에 비해 월등히 많은 비타민 A를 함유하며, 비타민 B₂, 비타민 C도 많이 함유하고 있어 비타민의 보급원이며, 칼슘, 철 등의 영양소를 많이 함유하고 있는 녹색 채소이다. 음식물에 체해 설사를 할 때 부추를 된장국에 넣어 끓여 먹으면 효력이 있으며 구토가 날 때 부추의 즙을 만들어 생강즙을 조금타서 마시면 잘 멎는다. 산후통에도 감초와 함께 달여 먹으면 효험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밤에 잠을 자면서 식은땀을 흘리는 사람에게나 스테미너가 떨어진 사람에게서 부추즙이나 부추탕이 좋다. 부추로는 생으로 만드는 부추무침, 오이소박이를 비롯하여 샐러드나 부추김치 외에도 여러 가지 한식요리와 중국식 요리에 많이 이용된다.

부추김치

부추를 김치로 담그면 잘 시어지지 않고 발효 후에도 부추의 은은한 향이 그대로 있어 입맛을 돋우는 밑반찬으로 아주 좋다.

재료 : 부추 200g, 멸치젓 ½컵, 고춧가루 3큰술, 다진 마늘 1큰술, 다진 생강 ½큰술, 소금,설탕,통깨 조금씩

1. 부추는 다듬어 씻어 길이를 반으로 자르고 소금을 뿌려 절인다.
2. 멸치젓은 한번 끓여 고운 체에 걸린다.
3. 절인 부추를 물에 한번 헹구어 간진 다음 물기를 뺀다.
4. 멸치젓국, 마늘, 생강, 고춧가루, 설탕을 넣어 양념장을 만들어 3을 넣고 고루 버무린다.

부추장떡

부추는 봄철 그 향이 좋아 양념이나 전에 많이 이용하며 장떡은 여름철 일손이 바쁠 때 미리 찌서 말려 두었다가 밑반찬으로 먹기도 한다.

재료 : 부추 300g, 밀가루 1컵, 쌀가루 1컵, 방아잎 20g, 된장 1큰술

1. 부추는 5cm 길이로, 방아잎은 잘게 썬다.
2. 밀가루, 쌀가루를 되직하게 반죽하여 햇볕장으로 간한다.
3. 1, 2를 잘 섞은 후 밥 뜬날 때 보자기를 깔고 찌내거나 찜통에 배보자기를 깔고 찌낸다.
4. 그대로 먹기도 하고 구들구들하게 말려 먹기도 한다.

※ 참쌀가루, 콩가루 등을 사용하여 맛을 내기도 하고 붉은고추 · 풋고추를 송송 썰어 넣어 색스럽게 장식하기도 한다. 부추장떡은 찌내야 담백한 맛과 부추의 향을 살릴 수 있다.

생활 속의 민간요법

독특한 냄새가 나는 성분은 유화알릴이며 이것이 몸에 흡수되면 자율신경을 자극하여 에너지대사를 활발하게 한다. 부추를 먹으면 몸이 따뜻해지는 것은 이 때문이다.

- 부추는 특히 위가 거북할 때 좋으며 변비, 설사, 냉증, 빈혈, 감기를 예방하는 데 효과적이다. 부추에 식초를 넣고 살짝 끓인 물을 따끈하게 해서 마시면 장이 약한 사람이나 배가 부글거리는 사람에게 좋다. 물론 생즙을 사과즙과 함께 섞어서 마셔도 좋다.
- 냉증이나 감기, 설사에는 몸을 따뜻하게 하는 부추죽이나 부추된장국이 좋고
- 위가 거북할 때나 입덧에는 즙을 내어 우유나 꿀을 넣어 마시면 효과적이다.
- 부추는 또 혈액순환을 좋게 하여 오래 된 피를 배출하는 작용이 있으므로 타박상이나 동상, 지혈 등에 부추즙을 바르면 의외로 효과가 있다. 그러나 너무 많이 먹으면 설사를 할 우려도 있다. 특히 알레르기 체질인 사람은 많이 먹지 않는 게 좋다.



Pinus densiflora Siebold & Zucc

PINE TREE 소나무

삭막한 겨울, 정원에 푸르름을 제공해 주는 정원수목 중 소나무를 빼놓을 수 없다. 예로부터 소나무는 우리의 조상들이 좋아하여 즐겨 심었던 수목이기도 하지만, 여러모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주는 존재인 수목이었다.

소나무는 우리 민족의 삶과 직접 연결되었던 수목이다. 봄에는 우리에게 송기라는 간식을 주었다. 소나무 가지를 낫으로 잘라서 두꺼운 겹겹질을 깎아내어 입에 물면 마땅한 간식거리가 없던 시절에 향긋한 냄새와 달콤한 육질이 입안에 가득했다고 한다. 또한 여름에는 정취를 주었으며, 겨울엔 소나무 가지를 잘라서 불을 지펴 따뜻함을 제공하였다. 젖은 소나무가지는 불이 붙으면 엄청난 화력으로 방바닥을 뜨겁하게 해주었으며, 쌓아서 말리면 연기도 나지 않고 은근히 타올라서 밥을 짓거나 군불을 뿜 때 더할 나위 없이 좋았던 연료였다.

그리고 아이가 태어나면 금줄을 치고 솔가지를 매달아서 액운을 물리치기도 했으며, 소나무로 지은 집에서 소나무 가지로 불을 피고 살았으며, 마지막 생을 다했을 때 사 용하는 것도 소나무로 만든 관을 최상으로 취급했기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소나무와 삶을 같이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한 소나무의 수꽃가루인 송화 가루는 다식이나 떡으로 식용하였고, 솔잎으로는 추석에 송편을 찌먹기도 하고, 솔을 담야 즐겼다. 이렇듯 그래서인지 한 기관에서 조사한 바로는 우리 국민들이 가장 좋아하는 나무로 소나무가 뽑혔다고 한다.



글 / 사진 이 선 아박사



■ 소나무의 상징

예로부터 소나무는 절개, 기개, 지조, 성실, 장수, 생명, 순결을 상징한다. 비바람, 눈보라와 같은 자연의 역경 속에서 변함없이 늘 푸른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소나무의 기상은 깨끗한 절개와 의지를 나타내는 상징으로 쓰여 왔다. <애국가>에 "남산 위에 저소나무 철갑을 두른 듯, 바람서리 불변함은 우리 기상일세." 라고 했듯이 난관을 극복해 나가는 우리의 강인한 의지와 씩씩한 기상을 소나무를 통해 상징화하고 있다. 군자의 절개, 송죽 같은 절개, 송백의 절개를 지녔다는 등의 표현은 절개 또는 지조를 나타낸 말들로서 혼례식의 초례상에 소나무 가지와 대나무를 꽂은 꽃병을 한 쌍 남쪽으로 갈라놓는데 이는 신랑 신부가 소나무와 대나무처럼 굳은 절개를 지키라는 뜻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리고 소나무는 오래 사는 나무이므로 예로부터 십장생의 하나로 장수를 나타내었다.

■ 소나무의 전설

소나무는 과연 언제부터 살고 있었을까?
경상도 지방에 전해져 오는 <성주풀이>에 나타나있다.

성주신과 솔씨(소나무 씨앗)의 근본이 안동 땅 제비원인데, 원래 천상 천궁에 있던 성주가 죄를 짓고 땅을 내려와 정배살이를 왔다. 땅에 내려와 여기 저기 정처없이 떠돌다가 강남제비를 따라 제비원으로 들어가 숙소를 정하였다. 제비원에서 바라본 인간 세상은 너무나 위험하고 불안하여 나무 위에 살거나 땅을 파고, 그 속에서 사는 인간의 모습에 성주신은 마음이 아파하였다. 집 없이 사는 인간들에게 집을 지어 주고 싶어, 성주신은 하느님에게 소원을 빌었고, 그 소원을 전해 듣고 크게 감동하여 하느님이 응답하시기를 제비원에서 솔씨를 전해 받으라고 했다. 성주신은 솔씨를 전해 받아 온 산천에 골고루 뿌렸고 소나무는 무럭무럭 잘 자랐다. 집을 지을 재목감이 되자 그 중에서 자손번창하고 부귀공명을 누리게 해 줄 성주목(聖主木)을 골랐고, 함부로 베지 못하게 하였다. 날을 받아 갖은 재물로 산신제를 올린 뒤에 베고 다음에 집을 지었다. 이때 성주는 대들보에 좌정하였으므로 상량신(上樑神)이라고 한다. 집의 대주(聖主:가장)가 잡는 성주대는 소나무 가지이며, 이 소나무는 집을 지은 나무의 상징이자 성주의 상징이다. 주요 건축자재가 소나무로 소나무의 신격화하여 모심으로 집안의 안전과 가문의 번창을 기원하는 소박한 신앙을 표현하였다.

이 설화에 근거로 <성주풀이>는 집을 지을 때 무당이 길흉화복을 주관하는 최고의 가신(家神)인 성주신을 모시기 위해 부르던 노래이다. 자연과의 조화를 추구했던 한국인의 결정체는 집이었고, 집은 소나무가 지닌 우주의 골격으로 삼고 있음으로 <성주풀이>가 소나무의 탄생신화가 되는 것이다.



보은 속리정어송송 (사진출처:문화재청)

■ 소나무의 명칭

소나무는 소나무과에 속하는 상록침엽교목(常綠針葉喬木)으로 학명(學名)은 Pinus densiflora Sieb. et Zucc으로, 속명인 Pinus는 산에서 나는 나무라는 뜻의 켈트어 핀(Pin)에서 유래되었다고 한다. 우리나라 전국 각지에서 자라며, 우리말로는 솔, 한자 이름은 송(松) 또는 송목(松木)이라 불렀다. 그러나 널리 통용되고 있는 적송(赤松)이라는 호칭은 수피가 붉다하여 붙여진 이름인데 일제시대부터 사용되었던 말로 비판없이 여전히 사용되고 있다. 그밖에 육지에서 자라난다 하여 육송(陸松)이라고도 하였고, 여인의 자태처럼 부드러운 느낌을 준다 하여 여송(女松)이라고도 한다. 소나무의 영어이름은 일본인들이 먼저 소개하여 일본붉은소나무라는 이름의 'Japanese Red Pine'으로 불린다.

■ 소나무의 식물학적 특징

소나무의 수고(樹高: 수목의 높이)는 35m, 지름 1.8m 정도이며 수피(樹皮)는 붉은빛을 띤 갈색이나 밑 부분은 검은 갈색이다. 침엽(바늘잎)은 2개씩 뭉쳐나고, 길이 8~9cm, 너비 1.5mm로 밑 부분의 비늘은 2년이 지나서 떨어진다. 꽃은 5월에 피고 수꽃은 새 가지의 밑 부분에 달리며 노란색으로 길이 1cm의 타원형이다. 암꽃은 새 가지의 끝부분에 달리며 자주색이다. 종자는 길이 5~6mm, 너비 3mm의 타원형으로 검은 갈색이며 날개는 연한 갈색 바탕에 검은 갈색 줄이 있다.



소나무 잎

■ 소나무의 다른 이용방법

잎은 소화불량 또는 강장제로 꽃은 이질에, 송진은 고약의 원료 등에 약용으로 쓴다. 꽃가루는 송화가루로 다식을 만들며, 껍질은 송기떡을 만들어 식용한다. 견축재 및 펄프용재로 이용되고 관상용, 정자목, 신목(神木), 당산목으로 많이 심었다.

■ 소나무의 병해충

소나무에 발생하는 주요 병해로는 갈색무늬병, 흑병 등이 있다. 갈색무늬병은 침엽의 끝부분에 주로 발생한다. 부정형의 갈색병반이 생긴다. 묘포장에서 발생할 때는 연작을 하지 않도록 한다. 5~10월경에 보르도액, 만코지 수화제 등을 살포한다.

흑병은 성목의 가지나 줄기에 흑이 생기고 점액이 분비되고 가루가 황색가루가 형성된다. 참나무가 중간 기주이므로 병이 발생하는 곳에서는 참나무의 잎을 소각한다. 9월경에 만코지수화제, 등을 살포한다.

주요 충해로는 소나무좀, 솔잎혹파리, 재선충 등이 있다. 소나무좀은 수세가 약할 때 발생한다. 월동한 성충이 소나무 껍질 안에 들어가 산란한 알에서 부화한 유충이 껍질 밑을 식해하면서 갱도를 만든다. 신초의 줄기에 구멍을 뚫고 식해하기도 한다. 봄과 여름에 두 번 가해한다. 방제는 3월~4월경에 메프유제를 2~3회 살포한다.



소나무 꽃



솔잎혹파리는 유충이 솔잎 기부에 혹을 형성하고 그 속에서 수액을 빨아먹고 자란다. 피해 잎은 황색으로 변하여 낙엽 된다. 방제는 6월경 메프유제, 다수진입제를 살포한다. 유충 발생초기에는 수간에 아시트캡슐제를 주입한다.

요즈음 소나무의 병해충으로 가장 문제시 되고 있는 것은 소나무 에이즈라고 불리는 소나무재선충으로 전국의 소나무림이 몸살을 앓고 있다. 소나무재선충은 솔수염하늘소를 매개체로 삼아 소나무에 기생하는 선충으로 형성충 세포를 파괴하고 결국 나무를 고사시켜 수관의 맨 위쪽부터 말라 나무전체로 변해 나무가 붉게 시들어 죽고 말게 된다.



소나무 군식



소나무 열매



소나무 수피

■ 소나무의 번식방법

번식은 가을에 솔방울 속에 든 씨를 파서 말려 두었다가 이듬해 3월에 파종한다. 묘상은 동서방향으로 길게 조성한다. 재배적지는 동남향으로 햇빛이 잘 들고 배수가 잘되는 곳이 좋다. 토양은 점토 함량이 50% 미만인 사양토, 양토, 식양토 등이 적합하다.

■ 소나무의 관리방법

수형을 만들기 위해서는 4~5월경 여러 개의 새순이 나오면 2~3개 정도 남기고 순치기를 해준다. 가지치기 등 강전정은 일반적으로 10월 중순에서 11월 상순 또는 2월 중순에서 3월 중순에 실시한다.

우리나라의 조경공사 뿐만 아니라 정원수, 분재로도 많이 사용되고 있는 소나무가 “소나무야 소나무야 / 언제나 푸른 네 빛 / 쓸쓸한 가을날이나 / 눈보라 치는 날에도 / 소나무야 소나무야 / 변하지 않는 네 빛”이라는 독일의 민요처럼 항상 푸르게 잘 자라기를 기대한다.

NEW WAVE 식재와

정원리모델링

경기도 남양주, 남양주 주택의 정원 리모델링사례



공작단풍과 오색(현관입구)

정원의 필요성과 개인 주택의 고부가가치를 고려

리모델링된 남양주 개인주택 약 7년 전 새로 지은 모던한 디자인의 약 대지 800평 가까운 큰 저택 수준이다. 우리나라 실정이 대부분 그렇지만 처음 주택을 지을 때 건물 공사비에 예상금액보다 항상 초과하게 되고 애초에 정원 공사비를 건물 신축 비율에 너무 적게 책정한 나머지 급기야는 정원에는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만들게 된다. 건물 수준과 결국 떨어진 건축 비율의 주택이 완성된다. 집만 거창하고 정원은 거의 없다시피 한 경우도 자주 본다. 현재 우리나라의 정원문화에 대한 소유자의 개념이 거의 비슷하다. 평소 오랫동안 알고 지냈던 분이 내가 정원 일을 인생 후반 봉급쟁이 퇴임 후, 제 2의 일로 시작하였는데도 과감히 내게 본인 정원 리모델링을 해보라는 기회를 주어 일이 시작되었다. 실 공사 해당 면적은 약 400평으로 계산된다.

퇴직후, 자연에 동화하며 제2의 인생을 준비

독자분들을 이해시켜 드리기 위해서 간략히 내 소개를 드리는 게 좋겠다. 나는 요즘 일상화 되어 있는 조기 유학을 일찍 떠난 조기유학 1세대다. 산업공학 전공을 학부, 대학원 미국에서 졸업하고 중간에 귀국해서 공군 군 복무를 마쳤고 공부 마치고 바로 한국에 돌아와 삼성전자 기획 조사과장으로 첫 사회생활을 시작하였다. 약 4년 뒤부터 미국 첨단소재 회사 한국 지사장으로 일하면서 봉급쟁이 생활을 정년 퇴임까지 외국회사에 몸담았다. 정원 분야로 일하게 된 것은 약 5년 전 연암대학교 조경학과 평생 교육원을 다니며 시작되었다. 평소 개인 취미가 여행(주로 일본, 프랑스, 이태리)을 다니면서 미술관, 골동품 가게, 정원 등을 주로 다녔고 인생 중반부터는 등산에 매료되어 백두대간, 일본 백대 명산 중 30군데, 세계 10대 트레일 등을 다니면서 자연에 가까워졌다. 한국의 특정지역(주로 경북, 충청권)의 소나무가 세계에서 가장 예술성 있는 아름다운 나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래서 한국의 훌륭한 소재를 오래 전 강남에 사놓은 땅(800평)에 5년 전부터 모으기 시작했다. 시작 일 년 후부터는 돌도 귀하고 큰눈

글/사진 정수진대표
정수조경

소사나무와 국화색(거실정면)



들을 모아서 소나무와 작품 형태로 조합 연출하기 시작했다. 차츰 나무도 회화나무, 팽나무, 소사나무 등 예술성 있고 규모가 큰 나무로 옮겨 갔다. 유명 건축 설계가의 조언 하에 이곳 위치로 보아 갤러리 형태로 정원을 만들어 고객이 오면 미리 연출된 정원형태를 토대로 고객이 쉽게 접근하고 이해하는 식으로 공사하는 것이 좋겠다는 아이디어가 마음에 와 닿았다.

나의 작업 공간 정수조경의 정원갤러리

정수조경(강남구 율현동 146-10)에는 약 30개의 크고 작은 작품이 갤러리 형태로 전시되어 있고 조명, 음향까지 갖추어, 주야 전혀 다른 모습을 선사하고 있다. 그리고 이곳에 조그마한 가정 정원 연구소 겸 샘플 정원을 만들어 매년 2차례에 걸쳐 개념 리모델링을 한다. 참고로 내년 봄에는 "white garden"을 우리나라 소나무와 겸비한 모던정원으로 완성시킬 계획이다. 직접 가꾸어 보면서 경험을 토대로 정원을 꾸미는 것이 고객에게 훨씬 신뢰 받을 수 있는 정원을 만들어 드릴 수 있다는 생각과 준비된 작업공간이 정수조경(주)의 개념이 되었다.

정수조경의 정원 컨셉트의 주요 4가지 요소는 첫째 정원관리 용이, 둘째 예술적인 나무와 돌, 셋째 유럽풍의 초화류의 디자인 응용식재, 넷째 outdoor life 즐길 수 있는 모던 정원이자. 요즘은 세상이 많이 변해서 손자 손녀를 놀려 오게끔 만드려고 아파트에 없는 정서적인 공간을 만들어 집 안에서의 시간보다 바깥에서 많은 시간을 생활하도록 함이 내 꿈이다. 집 안에서는 아무래도 TV시청 등 가족끼리 대화가 단절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가족의 진정한 행복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것이 정원사인 나의 임무이다.

정원의 테마와 가족의 편리성을 고려한

정원공간의 작업

프랑스 정원이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잡는 것은 "concept"이다. 컨셉트를 잘 잡는 것이 디자인 등 모든 틀을 다 정한다고 보면 된다. 그 정원의 지속 가능한 미래의 방향까지.

남양주 주택정원 컨셉 :

1. 주인의 고령화되는 생활을 위해 건강 관점에서 쉽게 집안에서 걸을 수 있는 오래길 형성
2. 모던 건물에 어울리는 모던 정원
3. 관리 편한 나무와 다년생 초화류 식재
4. 손자, 손녀 등 온 가족이 자주 찾아와 즐길 수 있는 outdoor life 환경
5. 정원에 최대한 예술성 부여

위의 5가지 기본 컨셉을 기초로 하여 정원의 공간에 테마를 담았다.

1. main 정원 / 2. 후정과 정동대 정원 / 3. Sunken garden

남양주 주택의 정원 리모델링의 공간별로 정문 입구, 거실 앞, 옆 마당의 리모델링 사례를 독자들에게 나누는 마음으로 자세히 들여다 보도록 하겠다.

1. main 정원

자연에 의미를 담아 창의적 공간을 만든다.

모든 정원 remodeling이 그러 하지만 우선 있는 것부터 비워야 한다. 무엇을 없애고 무엇을 살릴지를 결정하는 것이 첫 순서이다. 과감한 생각이 있어야 가능하다. 없앨 나무 등은 yes, no, middle 세 가지로 나누어진다. 경험상 yes와 middle은 결국 사라져야 새로운 작품이 나온다. no에 해당하는 것은 그 자리에 잘 어



비상-flight, 10톤무게의 합천 자연석

울리면 한뼘 할 수 있는 나무, 그리고 오랜 세월이 그 자리에 만들어준 분위기, 마지막으로는 많은 경비와 위험이 따르는 물체 등이다.

난 철쭉을 좋아하면서도 싫어한다. 좋은 것은 봄 10흙 꽃 필 때, 그 이후에는 아무 감흥이 없다. 그리고 너무 흔한 것이 옛날부터 심어 대던 것이 오만 군데의 미 없이 많이 있어 이제 싫어졌다. 중요하지 않은 곳에 있는 철쭉 빼곤 다 과감히 없애 버린다. 일제 시절 심던 것이 아직까지 심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제일 중요한 main 정원에 남양주 집 구조에 잘 어울리는 정수조경 농장에 연출해놓은 소나무 2주와 예술적 색감과 모양을 갖춘 약 10톤짜리 합천 돌의 '비상-flight'라는 작품이 선택되었다.

원래 있던 나무들은 큰 단풍나무 몇 주만 빼고 담장 뒤에 심거나 없애 버렸다. 그리고 그 집의 다른 곳에 심어져 있던 단풍나무들 중 색깔이 다르면서 아름다운 나무들을 골라서 오른쪽 한 부분을 장식했다.

약 10톤에 달하는 돌과 육중한 소나무 2주를 심는데 2층 높이에 50미터 전방에 연출해야 하는 때문에 150톤 거대한 장비가 동원되어 상당한 장비 다루는 기술자가 필요했다. 그리고 소나무를 돋보이게 하기 위해 굵은 분재용 마사를 주변에 깔아 거대한 분재를 연상하게 하였다.



공사 전 before 자작나무 밑의 화단 작업전경



공사 전 before 정독대 식재 사진



공사 후 after



공사 후 After (정독대 뒷 벽면의 외면으로 만든 작품)

2. 후정-장독대

가족이 함께 하는 편안한 공간, 동양과 서양의 예술적 융합공간 창출

후정은 주로 그늘진 곳이 많다. 이 집도 그랬다. 자작나무가 일렬로 2줄 심어져 있어 그대로 살리고 그 자작나무 가운데로 사람이 걸어 다닐 만 해서 울레길의 한 부분으로 이용하기로 하였다. 한겨울에야 별 효용이 없는 곳이지만 여름에는 시원하고 가족들이 파자마 바람에 브런치를 즐기게 해주고 싶었다. 안주인이 장독대도 만들고 싶어 하여 가든 디자이너와 어떻게 하면 모던하면서 예술적인 장독대를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연구에 들어 갔다. 답이 나왔다. 장대석으로 기본 장독대 틀을 짜고 그 위에 현무암을 깔고 벽면에는 와편(기왓장을 약 2센티 쉰 것)을 모자이크 형태로 바르기로 했다. 내 생각은 이왕이면 크고 넓게 만들어 현무암 위에 야외용 테이블과 의자를 놓아 장독대 겸 가족이 모여 식사를 즐길 수 있는 장소를 만드는 것이었다. 내 경험상 그런 장소의 첫째 조건은 부엌과 가까워서 음식 이동거리가 짧아야 편해서 자주 이용할 수 있는데 그 장독대 위치도 그랬다. 이 정원의 공사를 마친 2년 후의 경과를 보니 가족 화합에 큰 보탬을 하는 귀중한 장소로 쓰이고 있었고 벽면에 붙인 와편은 비 오는 날에는 색깔 변화로 인해 거대한 고호작품을 연상하게 했다.



장독대 식재

관중, 일백고사리, 호스타류, 풍지초, 노루오줌 등



정독대 뒷 벽면의 와편





공사 전 before
자작나무 밑 화단 조성전의 사진

공사 후 After 자작나무 밑의 음지식물
옥장화 Hosta 'Queen Josephine' & 하코네클로아 Hakonechloa macra 'Aureola'

후정의 식재는 내가 바라던 것보다 훨씬 잘 나왔다. 음지성 식물 위주로 다양한 색깔과 높 낮이 다른 식물로 여름 절에는 싱그러움을 느낄 수 있다.

3. Sunken garden

"New Wave" 정원의 탄생과 식물의 표현 공간으로 변신한 Sunken Garden

이 곳은 공간은 넓었으나 사람의 발길이 없었던 곳에서 습지에 가까운 어두운 공간을 정원사의 창의력과 공간 연출의 노력으로 새로운 정원의 창의적 공간으로 정원을 탄생시킨 곳이다. main 정원 윗단에 약 30도 각도로 뒷 야산으로부터 흘러 내려오는 물을 처리할 겸 배수 통로가 시멘트로 비스듬히 아래 마당까



가든인 Tip

Sunken garden 선킨가든이란?

기본 땅 지표면에서 낮은 지표 면으로 이동한 자연 환경을 최대한 정원 디자인의 형태를 일컫는다.
일반적 정원의 연장이라 할 수 있으나 서양에서는 보다 아늑하고 사람들이 모여 휴식과 담소를 즐기는 정원의 형태를 연출한 공간을 나타낸다.

지 이어졌다. 설명으로 이해하기 어렵지만 1미터 하수구가 약 40미터 30도 각도로 만들어져 있고 하수구부터 외벽까지 1.5미터 간격으로 산 위에서 마당 끝까지 터덕, 도라지 등이 심어져 있었다.

main정원에서는 높이 등 이유로 그 흙터미는 보이지 않게 되어 있었다. 다자가 세워져 있는 모습으로 되어 있는 하수구를 그 위에 침목을 올려서 사람이 그 위를 걸어서 산에 걸어서 올라가게 했다. 터덕 심어 놓은 자리가 햇볕 흐름이 좋았다. 그래서 생각했던 것이 마당에서 침목 위로 올라서면 감각 놀라는 화려한 sunken garden을 만들기로 하고 가든디자이너와 협의에 들어갔다. 그 분의 제안은 요즘 유럽에서 유행하는 역사와 꽃이 어우러진 "New Wave" 정원으로 꾸미자는 것이었다. 한옥에서 나온 고재목을 깎아서 사람 형상으로 만든 작품도 부분 부분 심어놓아 한국적인 색깔도 가미하자는 것이었다. 일부 수종은 강원도에서 구해오고 다양한 신서양 품종의 역사와 초화류들이 더해졌다. 이 정원은 봄부터 시작해서 6-7월에 절정에 이른다.

백합꽃이 더해지고 역사와 다양한 0.5미터~2미터 높이의 바람에 휘날릴 때는 가히 감동을 자아낸다. 벽면의 가을에 접어들면서 차츰 감색으로 변하면서 한 겨울에도 새로운 색깔로 손님을 맞는다. 겨울이 되면 눈까지 담아서 앞마당의 소나무와 어울려 겨울정원도 연출해 준다.

New wave라는 나의 식재디자인의 새로운 정원 식재를 바라보는 나의 마음 안에서는 Newage wave 작곡가인 영화음악 작곡가 이기도 한 Michael Hoppe 의 romance for cello 첼로음악 속에 정원 식물이 아름답게 움직임을 이미 보고 있다. 정원을 방문한 사람의 마음에 각자의 음악을 즐기듯 모두에게 반기는 정원이 되기를 바란다.

New wave plant design

뉴웨이브 식재 디자인 리스트

호피부늬그라스, 중루, 흰줄무늬여새들의 그라스류와 큰평의 비름, 평의다리, 백합, 리아트라스, 예키네시아, 마타하리, 니모피아, 적엽초, 돌물, 고리꽃, 오이꽃

4.정원디자인의 마지막 연출

정원의 밤과 낮을 고려한 공간연출을 디자인 하라

난 고객이 허락한 하면 정원 조명과 야외 음향으로 마무리 공사를 한다. 미국에서 들어온 새로운 초 저전압 기술로 만든 조명으로 예술 조명을 더하고 조명 기술자와 음향 기술자는 며칠 마무리 공사에 들어간다. 일반 정원 공사를 hardware 정원이 라면 마감공사는 software 정원이다. 정원에서 software라는 단어는 내 스스로만 들어본 것이다. 조명과 음악으로 완전히 새로운 감동을 맛보기 때문이다. 잊혀진 저녁의 집정원의 세계. 아무리 좋은 저택을 가지고 있어도 저녁에 TV시청만 하고 있다면 밖의 세계는 어떤지 알 수가 없다. 정원일을 하면서 어두워진 정원에 램프의 빛 하나가 정원 공간의 완성과 마무리를 해주며, 저녁시간의 정원이 이토록 아름다운지는 말로 표현할 수 없다. 내가 작업한 공간이었지만 휴식의 저녁시간에 정원의 방문이 기다려지는 공간이다. 남양주덕도 그렇게 마지막 공사가 끝났다. 안주인이 좋아하는 클래식 음악과 함께 조명이 켜졌다. 단성이 터져 나오며 누구의 요청이 없이도 자연스럽게, 구노의 아베마리아가 흐르고 정원에 흘러넘치고 가족이 즐기는 정원이다. .



동서양의 디자인을 융합한 정원의 공간 연출을 즐긴다.

이제는 세계 좋은 것들을 자금만 허락하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시대이다. 나는 내 인생과정을 통해서 외국의 좋은 기술과 물품을 어떻게 한국에 접목하는가의 기술자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삼성전자에 있을 때 합작회사도 만들었고 Nortel이라는 캐나다 회사와 LG전자의 합작회사도 만들었다. 이제는 정원에서도 동서 융합의 합작정원을 만들어 보려 한다. 고고한 세월 동안 한국의 척박한 토양과 기후가 만들어낸 아름다운 소재와 서양 식재로 세계 최고의 정원을 만들 수 있다는 믿음이 있다. 내가 하는 일을 도와주려고 각 길목에서 열정적인 자세로 계신분들이 있어서 더욱 더 가능하다고 믿는다.

정수조경(주)

서울시 강남구 율전동 146-10 tel. 02)2226-7515 www.jungsoowon.com

봄의 정원에 찾아오는 봄을 알리는 식물정보

할미꽃 토종 *Pulsatilla koreana*



할미꽃 불가리스 *Pulsatilla vulgaris* 보라



할미꽃 불가리스 *Pulsatilla alba* 흰색



할미꽃 씨앗 맺히는 시기의 또다른 변신

할미꽃 불가리스 루브라 *Pulsatilla vulgaris* 'Rubra' 빨강



돌단풍 *Mukdenia rossii* var. typical



개화후 가을 잎의 단풍색

너도얼레지 *Erythronium japonicum*



금낭화 *Dicentra spectabilis*



꽃잔디 *Phlox subulata* L

너도부추

매발톱 *aquilegia buergeriana* var. *oxysepara*앵초 *Primula sieboldii*

비단동자

속근사루비아 *Salvia nemorosa*

후룩스

Phlox divaricata 'Clouds of Perfume'상록양지꽃 *Waldsteinia lobata*

〈구입처 문의〉

2015년 새로운 봄의 정원에 신품종 종자와 고급화된 색상을 고객의 눈높이에 맞춘 다양성과 디자인의 전문성을 고려한 봄의 식물 선정을 선보인다.

우리꽃 031 634 7990

가든조아쇼핑몰

www.gardenjoa.com



겨울 정원속 그라스의 식재 & 디자인의 연출

Ornamental Grasses 정원의 장식적인 그라스

장식적인 그라스 식물은 여러분의 정원에 focal point (정원 식재의 중심점 강조하는 디자인)와 정원의 추가적 디자인을 첨가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장식용 그라스의 식재는 낮은 유지 보수로 정원사에게는 쉽고 용이한 식물이고, 특히 겨울 정원에서는 이제 빠질수 없는 장식용 식재로 크기와 색상이 다양하며 겨울에는 잎이 떨어진 관목대신 잎의 색상이 변하여 더 훌륭한 경관도 연출하며, 관목에 비하여 관리도 쉽고 비용도 저렴하여 초보 정원사에게 추천하고 싶은 식물이며, 유럽에서는 정원관리의 취급이 쉬워 디자이너들이 많이 식재로 사용하여 정원의 디자인을 연출한다



장식용 그라스로 신채로를 리모델링한 정원

차가운 계절과 따뜻한 계절로 공간연출

다년생 장식용 그라스는 늦은 봄부터 성장을 시작하여 따뜻한 계절부터는 절정을 이루어 정원의 분위기를 새롭게 이끄는 식물입니다. 이러한 장식용 그라스의 식물들은 여름철에 최고의 모습을 보여 서리가 내리는 계절까지 긴 시간 동안 정원에서 각광을 받는 장식용 식물이다. 차가운 시기에는 그라스의 번식을 자제하며, 봄에 성장의 기미를 보일 때 포기나누기 하여 번식한다. 장식용 그라스는 첫 서리를 통해 최고의 디자인 모습 보이고, 날씨가 추운 계절에는 이식 하지 마십시오. 멋진 계절과 따뜻한 시즌 잔디의 믹스가 많은 정원사를 위한 좋은 잔디는 봄, 여름, 가을 걸쳐 색상을 제공 하기 때문에.



칼리조 브론즈



무늬줄무늬 그라스



아이스타스



칼데



칼리조 브론즈



칼리조 브론즈



대사조 글드라이프



노란줄무늬대사조

둥근 모양 & 공간을 채우는 빠른 성장의 그라스로 분류

장식적인 그라스의 분류는 수북히 많은 잎을 형성하는 것이 특징이다. 지표면을 빠른 속도로 덮거나, 적극적으로 지표면을 확산하는 장식용 그라스를 의미하며, 경사면이나 침식지역의 방지를 위해 주로 사용하며, 지상의 표면을 덮는 용도로 많이 사용한다. 하지만 많은 그룹이 반복적으로 공간을 연출하면 그 광경은 어느 식재에 못지않게 아름다운 경관을 나타낸다.

다년생 장식용 그라스는 관리가 매우 용이하다. 이들은 한 번 심어주면 거의 물 관리가 자주 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뿌리 성장의 구조로 이루어진 식물이다. 장식용 그라스는 초보자에게도 쉽게 추천이 가능하며 가을을 맞아 새로운 모습과 정원의 분위기에 누구든 용이하고 쉽게 만날 수 있는 정원의 친구이다. 장식용 그라스임을 고려하여 크기와 높이 그라스의 form의 형태를 고려하여 정원에 식재하면 겨울 정원까지도 만족할 분위기를 만들어준다.

질병과 해충에 강하며, 바람이 불면 사랑스런 움직임과 자연의 소리도 제공한다. 일부 품종은 반 그늘에서도 잘 성장하며, 장식적인 그라스는 대부분 정원의 장식용으로 햇빛을 즐긴다. 일반 식물처럼 퇴비를 흙뿌리고, 배수가 잘 되도록 한다.



무늬줄무늬 그라스

겨우살이, 반기생식물로 겨우 살아가는 식물



글 사진 이명호 이명호의 야생화
http://www.skyspace.pe.kr



겨우살이



겨우살이(군락)



겨우살이(잎)



겨우살이(접사)

반기생식물(半寄生植物)

겨우살이는 엽록소가 있어서 광합성을 하지만 필요한 양분을 모두 만들 능력이 없어 양분의 일부를 숙주에 의존하며 생활하는 식물로, 숙주식물에서 유기물과 무기물을 흡수하여 종속영양적으로 생활하는 식물이다. 반면에, 역새에 기생하는 야고처럼 엽록소가 없어 광합성을 하지 못하여 스스로 양분 합성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식물이나 동물의 사체에 기생하여 자라는 전기생식물이 있다.

겨우겨우 일생을 살아가는 식물

반기생생활의 형태로 겨우살이는 일생을 살기 때문에 겨우겨우 살아가는 식물이라는 의미도 있고, 낙엽이 떨어지고 난 이후 양상한 가지에서만 이들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겨울에 살아 있는 식물'이라는 의미로 겨우살이라 부르게 된 것도 같다.

겨우살이의 숙주(宿主, host)

참나무·밤나무·물오리나무·팽나무·서어나무 등에 기생하는 상록관목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천이과정의 극상림은 주로 신갈나무와 서어나무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주로 겨우살이 식물들의 숙주가 되는 것이다. 겨우살이 종류들은 모두 키가 크고 높은 교목(喬木, arbor)들의 상부 꼭대기에 붙어서 자라기 때문에, 아무리 망원렌즈를 써서 당겨도 촬영을 하기에는 무척 힘이 든다.



꼬리겨우살이(군집)



꼬리겨우살이(접사)



꼬리겨우살이



Mistletoe

겨우살이의 특징

겨우살이는 동지 같이 둥글게 자라 지름이 1m에 달하는 것도 있다. 잎은 마주나고 다육질이며 피침형으로 잎자루가 없다. 가지는 둥글고 황록색으로 털이 없으며 마디 사이가 3~6cm이다. 꽃은 4~6월에 황색으로 가지 끝에 피고 꽃대는 없으며, 작은 포는 점시 모양이고 암수딴그루이다. 화피는 종모양이고 4갈래이며, 열매는 둥글고 10월에 연노란색으로 익는다. 과육이 잘 발달되어 산새들이 좋아하는 먹이가 되며, 이 새들에 의해 다른 나무로 옮겨져 퍼진다. 잎이 떨어진 이후 열매는 관찰이 잘 되나, 잎이 무성한 시기에 피는 꽃은 잎에 가려져 관찰이 어렵다. 아주 높은 나무 꼭대기에 작은 꽃이 피지만, 잎 속에 묻혀 있기 때문에 촬영을 한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다.

겨우살이의 용도와 분포지

생약에서 기생목(寄生木)은 겨우살이 전체를 말린 것이며, 숙주인 나무에 해를 주지만 약용으로 쓰기도 한다. 한방에서 줄기와 잎을 치한(治寒)·평보제(平補劑)·치통·격기(膈氣)·자통(刺痛)·요통(腰痛)·부인 산후 제중·동상·동맥 경화에 사용한다. 한국·일본·타이완·중국·유럽·아프리카 등지에 널리 분포한다. 열매가 적색으로 익는 것을 붉은겨우살이, 꼬리처럼 주렁주렁 늘어지면서 달리는 것을 꼬리겨우살이라고 부른다.

동백나무겨우살이의 특징

동백나무겨우살이는 동백나무·사스레피나무·사철나무·광나무·감탕나무 등에 기생하는 식물로, 다른 겨우살이 종류와는 모습이 아주 판박이다. 높이는 5~30cm이고, 가지는 녹색이며 털이 없다. 마디가 많고 많이 갈라지며 마디 사이가 편평하다. 잎은 퇴화되어 작고 마디의 위 끝에 돌기처럼 달린다. 동백나무는 나무가 비교적 크고 튼튼하기 때문에 동백나무겨우살이가 많이 기생하여 자라는 모습을 볼 수 있지만, 사스레피나무처럼 약하고 작은 나무는 동백나무겨우살이가 기생을 하기 시작하면 이내 양분을 뺏겨서 시들 시들 말라서 죽기 때문에, 쉽게 관찰을 할 수가 없다.

야생식물의 보호

겨우살이나 바위솔처럼 약이 된다고 하는 식물은 야생에 수가 암만 많더라도 사람들이 기를 쓰고 채취하러 다니기 때문에 몇 년 내에 쉽게 개체수가 급감하거나 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다. 겨우살이가 붙어 자라는 신갈나무 밑에 감춰둔 톱을 몇 개나 주위 땅속에 묻어버린 적도 있었는데, 야생식물은 최대한 야생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우리 사람들은 보호를 해주는 것이 마땅하다. 약으로 쓰는 식물은 일정 구역 안에서 인위적으로 번식을 시키거나 밭에서 대량 재배를 하여 약으로 쓰는 것이 좋고, 야생의 것은 자연이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은 한발 양보를 하는 것이 좋을 거란 생각이 든다.

※ 사진과 글/이명호의 야생화(www.skyspace.pe.kr)



동백나무겨우살이(동백나무)



동백나무겨우살이(사스레피나무)



동백나무겨우살이(접사)



붉은겨우살이(1)



붉은겨우살이(2)



붉은겨우살이(눈송장)



붉은겨우살이(접사)

교육과 섬을 즐기는
Plants School



커피와 가드닝을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 플랜트스쿨(PLANTSCHOOL)



커피향이 함께하는 식물의 공간

판교 도서관 앞에 위치한 플랜트스쿨은 각종 원예 활동, 가드닝, 그린인테리어, JMG(JUNIOR MASTER GARDENER) 어린이 프로그램 등 다양한 교육과 함께 커피와 차, 간단한 사이드 메뉴를 즐길 수 있는 곳이다. 간단한 체험에서 체계적인 장기 교육까지 다양한 선택의 폭을 가지고 있는, 플라워 카페와는 다른 개념으로 모든 연령대가 배울 수 있는 교육에 주력을 하고 있다.



원예 활동

원예관리사 시험을 대비하여 원예의 전반적인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여 원예관리사 자격을 얻는 프로그램이다. 원예지도사 과정은 한국원예디자인협회의 지침서를 바탕으로 모든 원예를 작품으로 디자인하는 방법과 이론 실습을 통한 강사 자격반이다.





정원 가꾸기(가드닝)

정원에 대한 전반적인 코디네이터와 식물원, 개인 주택 정원 등을 정원이 있는 곳을 다양하게 탐방함으로 이루어지는 시각적 교육 프로그램이다.



그린인테리어

식물을 소재로 만드는 오브제와 식물의 다양한 연출로 만들어 내는 인테리어 수업이다.



JMG 어린이 프로그램

미국 TEXAS A&M UNIVERSITY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으로 수학, 미술, 사회, 언어를 접목한 통합 교육 시스템이다. 자연과 환경, 과학을 실 내외 활동으로 탐구심과 관찰력을 높여주고, 리더십을 길러 주며 자연친화적인 교육으로 오감을 자극해 아이들의 감성 발달에 도움을 주고, 자연을 통한 체험으로 인성 함양에 중점을 둔 창의적인 교육과 놀이를 접목한 프로그램이다.



플랜트스쿨(PLANTSCHOOL)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운중로225번길 66 / 031-8016-9949

꽃보다 아름다운 겨울정원의 열매들

꽃보다 아름다운 겨울정원의 주인공!

각양각색의 열매는 겨울 정원에 꽃보다 더 빛나는 아름다움을 연출해주는 주인공이다. 다양한 열매들 중에서도 윤기나는 선명한 녹색 잎에 대조를 불러 일으키는 붉은 열매가 맺히는 호랑가시나무는 고즈넉한 정원에 활기를 불러 일으킨다. 어디 이뿐이라. 잎을 떨군 낙상홍, 신비스럽기까지한 나도생강, 귀엽고 앙증맞은 윤난홍자단까지 겨울정원을 화려하게 수놓는 필수 아이템들이다. 더구나 아름다운 열매는 새들에게는 훌륭한 간식도 되니, 눈과 귀가 즐거운 겨울정원이 필요하다면 꽃보다 아름다운 이들에게 주목하며 겨울정원의 열매를 바라보며, 붉은 열매와 검붉은 잎의 조화 그리고 흰 눈이 내린 계절과의 조화. 겨울 정원을 찾는 이들에게 아낌없이 주고 싶은 정원의 열매이다.

글 / 사진: 천리포수목원 최수진 홍보팀장



Cotoneaster cochleatus



Cotoneaster cochleatus



Ilex Lydia Morris



Ilex Lydia Morris



Ilex aquifolium Bloomfiel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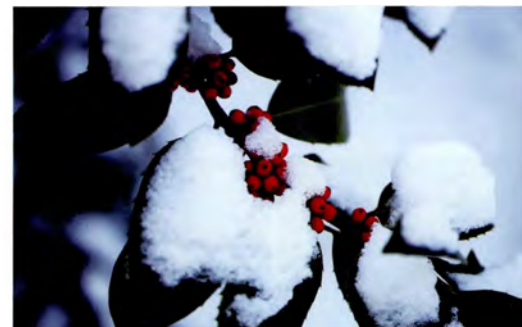
Daphniphyllum himalaense subsp. macropodum



Euonymus alatus

겨울에 식물의 열매(베리, berry)는 어떤 이로움이 있을까요?

낮이 짧아지고 겨울이 오면 새는 따뜻한 집을 그리워합니다. 하지만 나무 꼭대기나 촘촘한 관목에서 쉼터를 찾을 수 없는 작은 동물 친구들은 어떻게 할까요? 대부분은 이맘때부터 겨울잠을 자지만 먹이와 적절한 은신처가 필요한 동물도 많이 있습니다. 새 먹이장을 걸고 새 집을 지으면 남쪽으로 떠나지 않은 조류를 겨울을 무사히 넘기는데 도움이 됩니다.



Ilex_Ruby



Ilex_Ruby



Ilex aquifolium_Rubraulis Aurea_



Ilex cornuta



Ilex cornuta_Crispa_



Ilex cornuta_D_Or_

겨울철 모이주기

새들은 '겨울철'에 접어들면 먹이를 구하기 쉽지 않다. 날기 위해 필요한 에너지를 충분히 섭취하기 어려우므로 살아남기가 힘들어진다. 따라서겨우내 꾸준한 먹이를 공급하면 정원에 새들이 늘 모여들고 자연스런 모습을 가까이서 관찰할 수 있다. 새는 정확하므로 모이를 주는 시간은 항상 일정하게 유지한다.

어떤 모이가 제일 좋은가요?

모든 음식이 겨울철 새 모이로 적합한 것은 아닙니다. 부리의 종류에 따라 좋아하는 모이가 다릅니다. 여기에서는 부드러운 모이를 좋아하는 조류와 곡물을 좋아하는 조류를 구분합니다. 새들은 부리에 적합한 모이를 먹습니다.

부드러운 모이는 주로 베리(열매)와 과일, 귀리, 건포도로 구성됩니다. 곡물은 해바라기씨나 수수, 견과류, 호박씨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기름진 모이를 추가해도 좋습니다. 눈이 덮여 있거나 서리가 쌓여 있다면 3월말까지 모이를 줍니다.



Ilex cornuta _Dwarf Burford



Ilex cornuta _Dwarf Burford



Ilex cornuta



Ilex decidua _Red Cascade_



Ilex opaca _Canary_



Ilex opaca _Satyr Hill_



Ilex purpurea



Ilex rotunda



Ilex serrata _Pendula_



Ilex verticillata



Ilex verticillata _Winter Red_



Ilex x attenuata _Foster No.2



Ilex x attenuata _Sunny Foster_



Ilex x kiusiana

새집 청소

새집은 항상 위생적이어야 합니다. 즉, 정기적인 청소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눈이 있으면 눈에서 수분을 섭취할 수 있으며, 그래도 물을 공급하고 싶다면 작은 용기를 이용하여 어린 새는 물을 먹다가 물속에 뛰어드는 위험을 막으며, 새는 몸이 물에 젖으면 체온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주위에는 생각보다 많은 종류의 새가 살아가고 있다. 참새처럼 흔히 볼 수 있는 작은 새도 가까이서 관찰하면 뜻밖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아침저녁으로 이름 모를 새들이 날아들어 지저귀는 집, 그 자연과



Ilex x wandoensis



Nandina domestica _Umpqua chief_



Photinia davidiana var. undurata



Photinia davidiana var. undurata



Photinia davidiana var. undurata



Photinia serratifolia



Pittosporum tobira



Pollia japonica



Pollia japonica



눈섬개야망나무 Cotoneaster
굴거리나무,교양목
Daphniphyllum himalaense subsp. macropodum
화살나무 Euonymus alatus
양호랑가시나무 Ilex aquifolium 'Bloomfield'
호랑가시나무 Ilex cornuta
미국호랑가시나무 Ilex opaca
홍가시나무 Photinia davidiana var. undurata
남천 Nandina domestica 'Umpqua chief'
돈나무 Pittosporum tobira
나도생강열매 Pollia japonica





그리스 산토리니(Santorini)의 겨울정원

손관화교수 천안연암대학 화훼디자인계열
(가드닝 전공+플로리스트리 전공) <http://sohn.yonam.ac.kr>

흰색과 푸른 자연의 색으로 전하는 그리스의 정원, 산토리니



그리스에게 해의 남쪽에 있는 산토리니 섬은 제주도의 1/20 정도 면적이다. 아테네에서 완행 페리로 가면 파로스, 나소스, 이오스섬을 거쳐 마지막으로 도착하는 섬으로 7시간이 걸린다. 비행기와 고속 페리도 있지만 그리스의 섬을 보고 싶고 시간이 충분하다면 배로 들어가는 것이 좋은 것 같다.

원래 큰 섬 하나가 화산 폭발하여 만들어진 산토리니는 칼데라 지형을 이루며 칼데라가 침수되어 몇 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다. 건물들이 건축되어 있는 300m 높이의 해안 절벽은 검은색의 화산암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햇빛이 비치는 각도에 따라 갈색, 적색, 검정색으로 여러 색으로 보이게 한다. 산토리니는 지중해성 기후로 뜨거운 태양과 바다에서 불어오는 서늘하고 시원한 바람으로 여름에는 비가 적고 더우나 겨울에는 서늘하고 비가 내

린다. 대부분 관광객들은 여름에 방문하기 때문에 겨울에는 호텔과 상점이 휴업을 하는 곳이 많다. 산토리니는 대표적인 화산 지형의 식생을 보여 준다. 화산지형과 적은 비로 자연적으로 크게 자라는 나무는 없다. 꽃과 식물을 보기에 봄이 적기이고 가을에는 많은 식물들이 마른다.



산토리니에서 자라는 식물 약 600여종이 알려져 있는데 주거지 주변에 심겨진 전형적인 지중해의 장식적 교목과 관목은 무화과나무(*Ficus carica*), 올리브(*Olea europaea*), 협죽도(*Nerium oleander*), 여러 종류의 소나무(*Pinus spp.*), 그리고 유칼립투스(*Eucalyptus spp.*) 등이 있고 흔하지 않지만 아라우카리아(*Araucaria heterophylla*), 아이언 우드(*Casuarina equisetifolia*), 석류(*Punica granatum*), 브라질 나무 담배(*Nicotiana glauca*)도 있다고 한다. 또한 산토리니의 화산토양에는 36종의 포도가 재배되고 있으며 양질의 백포도주가 생산된다.

예전에 아테네에서 예지나, 파로스, 히드로 세 섬을 하루만에 도는 크루즈를 탔었는데, 한국에서 볼 수 없는 멋진 풍경과 그리스인들이 사는 모습을 보면서 그리스의 섬에 매료되었고 언젠가 그리스의 섬에 머물고 싶었다. 1월에 방문한 산토리니는 겨울이라 관광객들이 없어 호텔도 레스토랑도 가게도 거의 문을 닫고 꽃이 별로 없었지만 한국에 비해 따뜻한 겨울이라 부겐빌레아와 제라늄이 조금이라도 피어 있는 곳이 있고 다육식물 꽃들이 많이 피어 있었다.





여름 사진에서 본 것처럼 화려한 느낌은 없지만 조용하고 덥지 않아 잠시 쉬었다 가기에 좋은 곳이었다. 내쇼날지오그래픽의 세계 10대 '낙원'으로 선정된 유명한 관광지인 산토리니의 꽃피는 계절에는 한국에서도 신혼여행을 많이 온다고 한다.



절벽에 지어진 작은 집들의 양식과 다닥다닥 연결된 방식이 독특해 멀리 바다에서 산토리니 절벽을 바라보면 무척이나 인상적이다. 화산암으로 된 절벽에 시멘트를 부어 만든 집들이라 넓은 정원을 만들기 어려운 탓도 있고, 여름에 비가 충분히 오지 않아 식물을 키워내기 어렵기 때문에 또, 그리스의 전통적인 정원문화와도 연결되어 있어 화분으로 이루어진 정원이 많다. 겨울이라 휴업중인 상점이나 호텔의 화분 식물들은 물을 주지 않아 마른 것들이 많고 살아 있는 식물들은 대부분 다육식물들이었다. 한국에선 보기 힘든 다육식물의 꽃들이 활짝 피어있다. 1월인데도 겨울 햇살이 따가워 우산을 쓰고 다녔다.

산토리니는 관광수입으로 생활하는데 겨울에는 호텔을 짓거나 수리하느라 여기저기 공사가 많이 벌어져 있고 부서진 화분, 식물이 마른 화분, 굶주린 거리의 개들, 개똥, 쓰레기 등으로 아름다운 부분만 찍힌 사진에서 보던 느낌과 약간 차이가 있기도 했다. 사람이 적고 고양이와 개들이 얼마나 심했는지 동네 고양이 다섯 마리가 나를 보자 1시간 이상이나 따라다녔다. 고양이들과 절벽에서 사진을 찍으며 바다를 바라본 1시간 정도가 참 행복했던 순간이었던 것 같다.

산토리니에서 쉴 생각이었으나 사진을 찍으러 절벽을 올라갔다 내려갔다 했더니, 다음날 피부병이 생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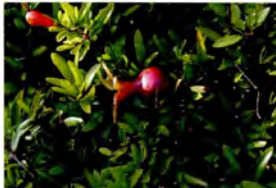
한국에서 아파트에 살지 않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단독주택이나 연립주택에 정원을 만들 충분한 공간을 가지고 있고 구석구석 자투리 공간이 있다. 산토리니 처럼 우리도 작으나마 자투리 공간 구석구석에 꽃을 심고 화분을 배치한다면 산토리니만큼 아름다운 곳을 만들 수 있을텐데..... 그래서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고 이러한 꽃이 있는 공간으로 말미암아 행복해지고 싶은 사람들을 부를 수도 있을 것 같다.



꽃을 보려면, 그리고 산토리니를 보려면 겨울보다는 여름에 가는 것이 좋겠고 쉬러 올 생각이면 좋은 호텔에 머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개인적으로는 조용한 겨울도 괜찮은 것 같다.

산토리니 식물 리스트

무화과 Common Fig (*Ficus carica*)
 올리브나무 Olive (*Olea europaea*)
 협죽도 Oleander (*Nerium oleander*)
 소나무 (*Pinus* spp.)
 유칼립투스 Eucalypti (*Eucalyptus* spp.)
 소나무 Norfolk Island Pine (*Araucaria heterophylla*)
 목마황과 나무 Common Ironwood (*Casuarina equisetifolia*)
 석류나무 Pomegranate (*Punica granatum*)
 겨자나무 (*Nicotiana glauca*)

협죽도 Oleander (*Nerium oleander*)소나무 (*Pinus* spp.)유칼립투스 Eucalypti (*Eucalyptus* spp.)소나무 Norfolk Island Pine (*Araucaria heterophylla*)목마황과 나무 Common Ironwood (*Casuarina equisetifolia*)무화과 Common Fig (*Ficus carica*)석류나무 Pomegranate (*Punica granatum*)석류나무 Pomegranate (*Punica granatum*)석류나무 Pomegranate (*Punica granatum*)유칼립투스 Eucalypti (*Eucalyptus* spp.)올리브나무 Olive (*Olea europaea*)

글/사진 김 홍 렬

랜즈케이프 어바니즘 연구소(주) 건축/조경/생태복원기사, 우리궁궐길잡이 <http://blog.naver.com/hongdolry>

정원을 읽어내는 새로운 시각 기호학(Semiotics)

2015년 새해를 맞이하며...

가든인 구독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15년은 청양씨의 해로 푸른색이 진취적인 기운을 가졌다고 합니다. 가든인 구독자 여러분들도 하시고자 하는 일에 진취적인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2014년 10월부터 12월까지 정원의 탄생과 도시에서 정원의 의미를 짚어보고, 최근 확산되고 있는 정원문화와 국제정원박람회나 축제들 전라남도 순천시와 경기도 고양시 사례를 소개하였습니다.

2015년 가든인 구독자들과는 정원 디자인 형식과 구성 요소들에 집중된 정원 해석에서 벗어나 '기호학'이라는 도구를 가지고 우리나라의 전통정원 속에 담겨진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풀어가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 기호학이란

'기호학(Semiotics)'이라는 단어가 생소하실 것 같습니다. 일상에서 자주 접할 수 있는 대상으로 '기호학'에 대해 쉽게 한번 접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래의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제일 왼쪽 그림은 에덴의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아담의 사과)를 따먹는 장면입니다. 두 번째 그림은 뉴턴이 사과나무 아래에서 사과가 떨어지는 현상을 보고 만유인력의 법칙을 창안해 내는 장면, 세 번째 그림은 백설공주와 일곱난장이 이야기에서 백설공주가 독이든 사과를 들고 있는 장면, 마지막은 전 세계가 존경했던 인물 스티브 잡스가 운영했던 회사인 애플(Apple)사의 로고입니다. 이 네 그림에서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것이 사과입니다. 사과는 많은 시간과 문화가 달라지면서 다양한 의미와 문화를 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사과하면 어떤 것이 떠오르나요? 아마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사과는 스티브 잡스의 애플(Apple) 회사를 상징한다고 생각할 겁니다.

사물이나 어떤 대상이 일반 대중들에게 특정한 상징성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일반 대중이 상징성에 공감해야 합니다. 조경이나 정원에서 양식(style)과 상징성(symbol)은 일정한 지역이나 시대적 상황 속에서 응결된 문화로 나타나고, 일반 대중들에게 동일하고 공감되는 상징성과 의미는 실체, 즉 기호(sign)를 통해 전달하게 됩니다. 다시 위에서 언급된 그림들을 예로 설명하면 사과라는 실체가 기호(sign)가 되는 것이고, 여기에 사과의 형태와 색깔이 사과라는 사물에 담겨져 있는 의미와 일체가 될 때 모두가 공감하는 상징성을 가지게 됩니다.

기호는 어떤 상징(symbol)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그림(벽화), 인간 의식체계로 만든 최고의 걸작인 언어,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에서 만들어진 건축물부터 정원에 이르기까지 모두를 포함합니다.



(사진: 멜롭슬레우의 기호학 2중 분할도식)

(사진: 멜롭슬레우의 기호학을 응용한 스티브잡스의 애플 기호학 해석)

■ 정원과 기호학

필자는 건축학을 가장 먼저 접하게 되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건축학개론 첫 수업에 가장 인상적인 말이 '건축은 삶은 담는 그릇이다.'이었습니다. 아마도 조경학이나 원예학과 학부생들은 '에덴동산' 즉, 신은 물과 녹음이 풍성한 환경에 인간을 만들어 그 곳에서 살게 했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학문적 영역을 구분하여 기호학을 설명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건축이든 정원이든 그 시대의 사람들은 삶을 영위하는 공간에 건축물과 정원을 조성하여 소동하고 공유하는 의미를 담고자 했음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먼저 이해했으면 합니다.



(사진: 인도 아그라 타지마할, 일본 대덕사 정원)

정원은 시대와 지역에 따라 그 당시의 특성을 가장 잘 반영하여 환경을 조성하고, 인간은 지적이고 감성적인 것을 꼭 그 속에 담고자 하여 공간 속에 문화를 꼭 반영하여 나타내어 왔습니다.

대표적인 정원을 보면 프랑스 베르사유 궁전의 정원, 알함브라의 사자의 정원, 인도 아그라의 타지마할, 일본 대덕사 정원 등에는 당시의 종교관, 세계관, 예술관, 건축관 등이 녹아 있습니다. 이러한 정원에서 나타나는 디자인들은 기표(형태)와 기의(의미)의 구조로 해석하는 기호학은 매우 흥미로울 수 있고, 우리의 전통정원과 함께 기호학적 해석을 해보면 정원에서 나타나는 디자인의 차이를 확연히 알 수 있습니다.

■ 우리의 정원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화계', '방지원도', '차경', '자연친화적 정원술', '풍수 및 음양오행 사상의 영향' 등의 용어는 전통정원에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한번 조음은 들어봤을 겁니다.

우리나라 전통정원은 항상 이러한 용어로 해석되어야 했고, 항상 중국과 일본과 비교되면서 스케일을 논하고, 어떤 종교에 영향을 받았으며, 식재 나무는 어떤 수종을 주로 했는지에 대해서는 조경사 책에 있는 내용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저 외워 왔습니다.

국가 시험 보듯이 그렇게 학습하고 정원을 만들어 왔으니 국립중앙박물관, 지방 박물관, 주요 관공서 등에 나타는 전통정원은 모두 확실적이면서 자연스럽게 못합니다. 어쩔 때는 일본식 조경이 우리의 전통정원 양식과 혼동하여 조성하는 경우도 있고, 뜬금없는 곳에 방지를 만들고 그 가운데 동그런 섬을 만든 것을 보고 있을 때는 오히려 불편한 마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일본과 중국정원은 지금 이 시대에도 재해석되어 활용되고, 자기네들의 전통정원 문화를 알리고 있는데, 우리는 독일에 가서, 네덜란드에 가서, 미국에 가서 전통정원을 조성할 경우 매년 기와장이 올라간 정자를 만들고 방지를 만들어야 전통정원이 되는 것을 보면 아직도 우리 선조들이 조성해왔던 정원 문화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듯합니다.



대전 남간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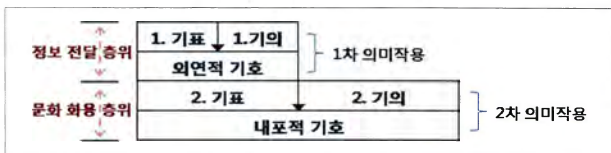
담양 소재원



함안 국립원

■ 전통정원에 대한 재조명이 필요한 '지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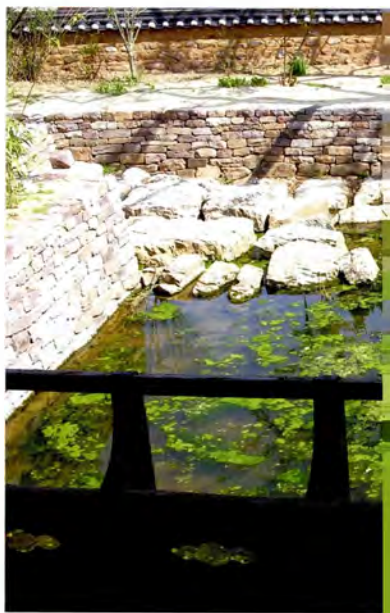
영국 첼시 플라위쇼에서 황지해 작가가 주목을 받았던 작품 '해우소'를 한번 보십시오. 그 작품은 우리나라의 전통정원일까요, 아니면 우리나라의 새로운 현대정원을 디자인한 작품일까요? 우리 정원 속에 숨어 있는 것의 의미(기호학에서 기의적 요소 = 의미, 메세지)를 제대로 간파하여 전통재료와 현대적 재료를 함께 어우러져서 자신만의 디자인을 공간에 표현(기호학에서 기표적 요소 = 형태, 색상, 질감 등) 하였습니다. 황지해 작가의 '해우소'는 전통 공간 속에 숨어 있는 메세지와 디자인적 요소를 현대 문화 코드에 잘 접목하여 조성한 대한민국 현대정원의 대표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화장실이라는 해우소가 정원으로 탈바꿈하여 선보인 정원에 서양인들은 매료되었고 센세이션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정원 디자인이 되었습니다.



(사진 : 기호학 2단계 충위)



보길도 세연정



영양 서석지



우리 전통정원에는 아직도 이렇게 재해석 될 수 있는 콘텐츠가 많습니다. 전통정원을 재조명하고, 재해석을 할 때에는 기존의 형식미학적인 측면에서 정원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벗어나 공간 속에 담겨진 의미와 디자인을 함께 풀어볼 수 있는 기호학적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주 독락당



예천 초간정 각자

단체 예약은 홈페이지의 작품게시판에서 가능합니다.
복합 사육곡으로(00-100-5733) 전화 문의하면 됩니다.
단체는 방문일만 가능하며, 복합 일차로부터 2주 전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단체신청 가능원은 10명 이상에서 50명 이하입니다.
10명 미만은 별도 예약 없이 정기단체 관람료로 직접 오시면 됩니다.

- 종로 안내(복설)
매주 월요일 - 정월(희망문) 안국 안내관람
[13:30 / 14:30 / 15:30]
- 경복궁 안내(복설)
매주 월요일 - 정월(희망문)이나 동해문 안국 안내관람
[10:00 / 11:00 / 12:00 / 13:30 / 15:00 / 16:30 / 18:00 / 19:00]
- 경주궁(역수궁) 안내(복설)
매주 월요일 - 정월 안국(대향문) 안내관람
[13:30 / 15:30 / 18:00 / 19:30 / 21:00]
- 창경궁 안내(복설)
매주 월요일 - 정월 안국(홍화문) 안내관람
[13:30 / 15:30 / 18:00 / 19:30 / 21:00]
- 선덕궁 안내(복설)
매주 월요일 - 각각 정월(홍화문) 안 / 주월 함양문 안
[정월 11:30 / 13:30 / 15:30]
[주월 12:00 / 14:00 / 16:00]

궁궐 종로 안내 시간표

■ 맺음말

전통정원을 분류하면 궁궐에 조성된 왕실정원, 사찰에 조성된 사찰정원, 각 지방에 개인이 조성한 별서정원, 조선시대 교육기관이었던 향교나 사원에 조성된 정원 등 다양한 스펙트럼으로 나타납니다. 다음 호부터는 앞서 열거한 전통정원 중에서 별서정원을 대상으로 하려고 합니다. 별서정원은 조선시대 벼슬이나 관직에 마음을 두지 않고, 낙향하여 정원에 묻혀 따로 홀로 기거한 곳을 마련하고 자연을 벗 삼아 즐기면서 모든 것에 의미를 담고자 했던 정원입니다. 별서정원에는 경주 독락당, 담양 소쇄원, 보길도 세연정, 대전 남간정사, 영양 서석지, 예천 초간정, 함양 국립원 등이 있고, 월별로 대표적인 별서정원을 사례로 기호학적으로 해석하여 현대적 활용 방안 등을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각 월별로 소개하는 정원을 읽고, 직접 답사까지 해보시면 더욱 더 의미있는 정원 체험이 될 것입니다.

Purple

COLOUR IN THE GARDEN



보라색은 빨강과 파랑을 섞어서 만들 수 있는 색이다. 강렬하면서도 화사한 이미지의 빨강과 차분하면서도 시원함과 상쾌한 이미지의 파랑이 섞이면서 신비롭고 환상적인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다. 옛날 사람들은 보라는 구하기 어려운 염료색이라는 인식 때문에 귀한 색으로 알려져 왔다. 그래서 왕이나 귀족들의 색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보라색을 만들어 내기 위해 빨강과 파랑을 섞을 때, 빨강이 더 많이 들어가면 레드퍼플(Red-Purple)이 되고, 파랑이 더 많이 들어가면 블루퍼플(Blue-Purple)이 된다. 정원에서는 보라색이 지닌 신비로운 분위기와 고귀한 색상의 이미지로 연출을 기대 할 수 있다. 비슷한 색상끼리 모아 그라데이션을 표현하기도 하고, 단독으로 사용해서 더욱 돋보이게 하는 것도 효과적이다.

퍼플칼러는 고풍스러움을 자아낸다



퍼플칼러는 고풍스러움을 자아낸다(Hardwick Hall)

보라색의 이미지를 찾아보면 대부분 우아함, 화려함, 고상함 등으로 표현한다. 다시 말하면 성숙하다는 느낌이 다른 칼러에 비해 강한 편이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보라색의 꽃이 있다면 당연히 보라색의 제비꽃이 있을 것이다. 보라색꽃 중에서는 봄이 되면 들뜬에서 제일 먼저 피는 꽃이기도 하고 누구나 한번쯤은 꽃반지를 만들어서 손가락에 끼고 놀았던 추억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채소 중에는 여름에 보양식이 되는 가지가 있을 것이다. 원예종으로는 클레마티스(Clematis) 종류가 대표적이다. 우리나라 자생꽃인 큰꽃아리과 같은 속으로 꽃 모양은 거의 비슷하지만, 다양한 원예종들이 개량되어 유럽 정원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정도로 일반화되었다. 주로 냉골을 타고 올라가면서 한 종류 혹은 여러 종류의 칼러를 섞어 가면서 우아하고 고풍스러움을 선사한다. 클레마티스가 유럽의 오래된 담장을 타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누구나 할 것 없이 그 매력에 빠져 들고 만다.

퍼플칼러의 매력은 색상의 다양함에 있다

퍼플칼러의 다양한 색상을 가지고 있는 식물을 꼽으라고 하면 당연히 아이리스(붓꽃류) 일 것이다. 흰색이 들어간 연한 보라에서부터, 빨강에 가까운 진한 보라까지 퍼스텔칼러의 부드러움이 끝없이 펼쳐진다.

아이리스(Iris)는 화단에서도 잘 자라지만, 물가에 심으면 그 아름다움이 더욱 증폭되어, 물과 꽃이 하나가 되는 듯한 신비로움을 느낄 수 있다. 만약 정원에 연못이 없는데, 강을 연출하고 싶다면 아이리스의 다양한 색깔을 이용해서 물의 정원(Water Garden)을 연출할 수 있다. 파랑과 보라의 만남으로 정원의 깊이를 느낄 수 있을 것이다.



퍼플칼러의 매력은 색상의 다양함에 있다(Iris trial, Wisley Garden)

퍼플칼러는 격려의 색이다



퍼플칼러는 격려의 색이다(Kiftsgate Court)

퍼플칼러는 질고, 열음 혹은 햇빛이 비치는 곳과 그늘 등 장소에 따라서도 느낌이 다르게 다가온다. 칼러가 열고 밝은 곳에서는 캐주얼하고 신비한 이미지를 연출하지만, 칼러가 질고 어두운 곳에서는 중후하면서 우월한 즉 기분이 가라앉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도 있다. 심리학 측면에서 보면, 정서 불안을 느낄 때에 보라색을 이용한 그림을 그리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은 불안감의 표현임과 동시에 딛고 일어서려고 하는 의욕을 표현하기도 한다. 보라색은 화사하고 우아함을 가지고 있는 반면, 이처럼 가라앉을 수 있는 마음 상태를 회복시켜주는 격려의 색이기도 하다. 이점을 잘 활용해 꽃의 소재나 칼러의 밝고 어두움을 잘 선택해서, 정원의 다양한 표정을 연출 해 보자.

1. 보라와 주황의 어울림

보라색과 주황색의 만남은 그리 찾기 쉽지 않다. 색상환에서는 파랑과 노랑 사이에 있지만 비교적 멀리 떨어져 있어서 보색에 가까울 정도로 멀다.

사진속의 꽃들은 둘 다 다알리아로 꽃잎이 여러 겹인 퍼플칼러와 한 겹이면서 단정한 꽃잎을 가진 다알리아가 만나면서 당당하면서도 명쾌한 인상을 준다. 이 두 색상의 만남이 어울릴 수 있는 이유는 너무 진하지 않은 주황의 다알리아와 귀여운 꽃잎을 가진 보라색의 다알리아가 만났기 때문일 것이다.



보라+주황 (Kellie Castle Garden)

3. 보라와 노랑의 어울림

연보라색의 헤스페리스(Hesperis matronalis)을 배경으로 노란색의 루피너스(Lupinus)와 진한 자주빛의 보라색 아이리스(붓꽃)가 조용하면서도 당당하게 각각의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있다. 보라색과 노랑색은 보색에 가깝지만 둘 다 명도가 높은 연한 색을 선택했기 때문에 자연스러울 수 있는 것 같다. 루피너스의 경우, 키가 크고 꽃도 큰 게다가 색은 아주 짙은 종류도 많이 있지만, 퍼플칼러와 배경과 잘 어울릴 수 있도록 꽃이 작고 맑은 노랑의 루피너스를 선택했다.



보라+주황 (Kellie Castle Garden)

2. 보라와 핑크의 어울림

클레마티스(Clematis)의 매력은 역시 꽃잎이 주는 부드러운 선과 구불구불 올라오는 가지 끝에 매달리는 꽃봉오리 일 것이다. 자색에 가까운 짙은 클레마티스와 짙은 파랑에 가까운 클레마티스의 중후함이 배경에 깔리면서, 장미의 연분홍 꽃잎이 환상적인 갈라를 연출한다. 원래 분홍색인 장미는 클레마티스의 퍼플칼러에 반사되어, 마치 보라색이 들어가 있는 듯한 착각이 든다. 요정의 치맛자락 같은 장미 꽃잎들이 클레마티스가 그려내는 공간에서의 선과 무척 잘 어울린다.



보라+핑크(Rosa Fulton Mackay 'Cocodora' Clematis 'Warszawska Nike', Wisley Garden)

4. 보라색과 흰색의 어울림

단정한 꽃잎 모양을 하고 있는 보라색의 튤립과 하늘을 향해 활짝 펼쳐진 흰색 튤립의 하모니가 봄빛을 더욱 밝게 한다. 자칫 하면 어두울 수 있는 짙은 보라색의 튤립들이 흰색의 꽃잎들에 의해 부드럽워 질 수 있다. 물론 그 아래에 속속들이 차지하고 있는 노랑과 분홍의 프리들러들도 한 몫 한다. 노랑과 분홍색의 꽃들로 가득 채울 수도 있는 봄 화단에 보라색 튤립의 등장은 신비로움과 우아함을 선사할 수 있는 매력이 있다.



보라+흰색(East Walled Garden)



보라+빨강(West Dean Garden)

5. 보라색과 빨강의 어울림

버베나 보나리엔시스(Verbena bonariensis)의 잔잔한 꽃들이 모여, 연보라의 물결을 만들고, 다알리아와 피마자(Ricinus communis 'Carmencita')의 빨간 꽃과 줄기 그리고 날찍날찍한 입들이 정열적으로 다가온다. 아마도 여름화단의 절정이 아닐까 싶다. 버베나 보나리엔시스의 길쭉한 꽃들이 자칫하면 키와 강한 색상으로 압도당할 뻔한 정원을 중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보라색과 빨강이 둘 다 잘 표현된 조합이라고 할 수 있다.

6. 보라색과 파랑의 어울림

보라색의 우아하고 고상한 이미지와 파랑의 고요하고 차분한 이미지가 만나 중후한 느낌이 난다. 두색의 색상 차이는 있지만, 받아드리는 인상은 비슷하기 때문에 단조로움을 피하기 위해서는 흰색이나 연한 핑크를 섞어서 우아하면서도 밝은 이미지로 바뀌보는 건 어떨까. 이 두 색상의 어울림은 역시 어른스러운 차분함이 느껴진다.



보라+파랑(St Andrew B Garden)

Purple 가든에 어울리는 꽃들

Berberis bonariensis(Sissinghurst Garden)



Bougainvillea 'Purple Robe'(Wisley Garden)



Clematis alpina 'Constance'(Wisley Garden)



Clematis 'Courtes of Lovelace'(Glenarm Castle walled Garden)



Clematis 'Vyvan Pennell'(Yalding Organic Garden)



Clematis 'Warszawska Nike'(Wisley Garden)



Cyclamen coum(Wisley Garden)



Dactylorhiza elata(Wisley Garden)



Geranium psilostemon(Wisley Garden)



Paeonia mascula(Wisley Garden)



Delphinium 'Summerfield Oberon'(Wisley Garden)



Magnolia stellata 'Susan'(Kew Garden)



Salvia verticillata 'Purple Rain'(Wisley Garden)



Primula sieboldii(Kew Garden)



Pulsatilla Zuckerstein(Wisley Garden)



Papaver orientale 'Patty's Plum'(Wisley Garden)



겨울 정원의 매력을 찾다.



글, 사진 최지현 가든디자이너

가든스튜디오 알리움 대표 Writtle College, University of Essex MA garden design.

우리나라 겨울은 워낙 추워서 사람들의 외부활동이 적다. 하지만 긴 겨울 내내 집안에만 있을 수도 없고 가장 따뜻한 낮 시간을 이용하여 햇빛을 쬔며 상쾌한 공기를 마시는 것도 좋을 것이다. 추천할만한 외부활동은 가까운 정원, 수목원, 식물원 등을 산책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겨울의 정원은 볼거리가 없다고 하지만 영국의 겨울정원들을 둘러보며 느낀 것은 '겨울정원의 매력이 바로 이거구나' 라고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하는 매력을 발견했다. 겨울의 정원에서 한두 시간의 산책 후 가든카페, 티룸에서 따뜻한 커피 또는 차 한잔을 즐기며 추위를 녹이면 세상 어느 것도 부럽지 않았다. 이 따뜻한 차 한잔을 마시기 전, 그 즐거움을 배로 만들어주는 진정한 겨울 정원의 매력을 찾아보려고 한다.



겨울의 상록 생 울타리가 포근한 느낌을 준다. (Anglesey Abbey, 영국)



Sarcococca confusa의 꽃
(Anglesey Abbey, 영국)

초록의 향연

겨울정원의 가장 돋보이는 식물은 상록수일 것이다. 일년내내 그 자리를 지키고 있지만 다른 꽃, 잎에 묻혀 사람들의 눈을 빼앗지는 못했다. 하지만 겨울정원에서 상록수는 주인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겨울에 유독 더 선명해 보이는 초록은 바람을 막아주기도 하고 정원의 싱그러움을 더하기도 하면서 자신의 역할을 톡톡히 해낸다.

수피의 색

꽃과 잎은 없지만 형태의 색으로 겨울 정원에 메이크업을 하는 요소는 수피의 색이다. 우리나라에서 흔히 쓰이는 겨울정원의 대표 수피의 색은 흰 말채나무이다. 겨울철 빨간 줄기를 드러내어 강렬한 색을 더해준다. 노랑 말채나무는 노란수피의 색을 자랑한다. 수피의 색을 고려한 식재디자인은 겨울철 정원 방문객의 눈을 즐겁게 만들것이다.



[겨울철 자작나무의 흰색의 수피가 따뜻한 느낌을 준다. (Anglesey Abbey, 영국)]



하단부의 생울타리인 Sarcococca confusa, 영명으로 Sweet box 라고 한다. 그 이름답게 저 길을 걸으면 달콤한 향에 마음을 뺏긴다. (Anglesey Abbey, 영국)



[원터보더(겨울화단)의 모습, 다양한 수피의 색, 그라스 등을 이용했다. (RHS Hyde Hall, 영국)]



[겨울철 꽃보다 더 아름다운 색을 띄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 말채나무의 한 종류인 Cornus sanguinea 'Midwinter Fire' 이다. 색이 너무 아름답지만 국내에서는 만나 보기 어렵다. (Anglesey Abbey, 영국)]



그라스

겨울철 정원을 풍성하게 볼륨을 채워 줄수 있는 좋은 식재중 하나는 그라스이다.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도 아름답고 부들부들한 느낌을 준다. 짙은 녹색의 상록수 옆에 심어주면 하늘하늘한 느낌과 대비가 되어 더욱 빛을 발한다.

겨울의 꽃



[한겨울의 정원인지 모를 만큼 그라스로 풍성하게 식재가 되어있다. (Anglesey Abbey, 영국)]

겨울에 피는 꽃이 참 고맙게도 존재하여 큰 즐거움을 준다. 영국에서 대표적인 겨울 꽃이라고 하면 스노우드롭, 스노우플레이크이다. 2월쯤, 영국에서는 스노우드롭 시즌에만 정원을 임시 오픈하여 관람객을 맞는 정원이 있을 정도로 중요한 겨울꽃의 요소로 자리잡았다. 그밖에 헬레보리스, 동백,

다양한 상록수와 수피의 색, 그라스, 겨울에 피는 꽃을 이용한 겨울정원에서는 그만의 소박한 아름다움이 있다. 봄, 여름처럼 꼭 차



[1월의 정원, 겨울의 대표 꽃나무 동백 (RHS Hyde Hall, 영국)]



[2월의 정원, 크리스마스조그라고도 불리는 헬레보리스 (Beth Chatto, 영국)]



[2월의 정원, 꽃과 잎이 앙증맞은 겨울바람꽃 Eranthis hyemalis (Beth Chatto, 영국)]



[2월의 정원, 스노우드롭이 탐스럽게 피었다. (Beth Chatto, 영국)]



[2월의 정원, 겨울에 피는 크로커스 (Beth Chatto, 영국)]

게 화려하진 않아도 곳곳에 겨울정원을 즐길만한 충분한 요소가 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가능하다. 식물의 종류가 외국처럼 다양하지 않더라도 위의 네 가지 요소들을 잘 버무려 식재디자이너를 한다면 겨울에 꼭 봐야 할 정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오감으로 만나는 가을 숲

‘청어와 함께하는 유아 숲 체험 프로그램’



[낙엽을 주워 도깨비 가면을 만든 어린이들]

엄마 아빠와 함께 숲으로 가본 날이 얼마나 있을까? 자연을 접할 기회가 적은 도시 아이들에게 주입식 교육에서 벗어나 다양한 놀이와 숲체험을 통해 엄마 아빠와 함께 하는 ‘가족 숲 박람회’ 프로그램이 지난 11월 서대문구 안산에서 있었다.

오전에 내린 비는 가을하늘을 더 청명하게 해주었고, 이따금씩 들리는 새소리는 아이들과 부모님을 맞이해주었다. 이날 행사를 주관한 청어는 연유치원 원아 80여명과 부모님 80여명과 함께 하였다. 오감으로 만나는 가을 숲이라는 주제로 8팀으로 나누어 전문 숲해설가와 함께 1시간 동안 진행되었다. “숲속숨대문을 열이라~ 나나나무를 심어라~ 나무들이 자라면 숲이 된단다~” 라는 노래를 부르며 모두가 탄소였다가 하나둘 잡히면 나무가 되는 놀이를 통해 숲이 있음으로써 우리에게 주는 이로움 점을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었고, 서로 가벼운 스킨십과 노래를 부르면서 딱딱한 분위기를 풀며 활동이 시작된다.

처음으로 만나본 친구의 부모님들과 어색함을 풀어주고 자연과 더 친밀해지기 위해서 서로의 이름을 부르기보다는 가을 단풍잎과 열매를 찾아 관찰해서 닮은 친구를 말해보는 시간을 가져본다. 유아의 유지원생활을 모르는 부모님에게 친구들을 소개하고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는 활동이었다.



[부모님과 어린이가 함께 노래를 부르며 숲의 기능을 익힌다]



[나뭇잎으로 만드는 활동을 해본다]



철엽수와 같은 큰 잎의 낙엽으로는 도깨비 가면과 신발, 느티나무 낙엽으로는 눈알 스티커를 붙여서 부엉이를 만들고, 다양한 색의 낙엽을 주워 물고기도 만들어보면서 낙엽이 다양한 색깔이 있는걸 알려주면서 자연스럽게 생애 장난감을 만들어 볼 수 있어 아이들에게 좋은 체험이 되었다.

겨울에도 나무 밑에 쌓여있는 낙엽과 식물줄기를 가지고 실내에서 활동하면 계속해서 자연활동을 이어갈 수 있다. 열매와 씨앗으로도 숲의 생태를 이해할 수 있다. 다양한 열매(씨앗)들이 어떻게 숲속 여행을 하는지 알아보는 활동이다. 도꼬마리와 도깨비바늘을 서로에게 붙여주면서 사람이나 동물에 의해 이동된다는 것을 이해하고 이러한 특징을 이용해 서로가 멧돼지가 되어 잡기 놀이를 한다. 그리고 단풍씨앗, 박주가리 씨앗을 날리며 서로의 소원을 빌어주기도 하였다

숲에서 후각활동은 빼 놓을 수 없는 체험이다. 아이들 각자 눈을 감고 부모님 냄새를 맡아보고 기차놀이 대열로 걸어가며 부모님들을 찾는 놀이를 하였다. 실눈을 뜬 학생들이 대부분이었지만 다시금 부모님의 향기를 기억해보고 스킨십을 통해 부모와 아이가 함께 자연에서 어울릴 수 있는 놀이였다. 그리고 생강 나뭇잎과 같은 특이한 향을 가진 잎을 보이지 않는 병 안에 넣은 후 같은 냄새가 나는 잎을 찾아보게 하는 놀이를 통해 다양한 숲의 향기를 맡아보고 감각을 깨워보았다.



[냄새를 통해 부모님을 찾아라]



[같은 향기는 나무찾기]

2014년 청어 활동을 응원해주시고 지켜봐주신 가든인 독자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열매와 씨앗은 어떻게 이동할까?]



[씨앗을 날려보자]

가을 숲에 폭 빠진 아이들과 부모님은 ‘시간이 5분처럼 금방 지나갔다’며, “숲해설과 함께한 체험이어서 낙엽과 열매의 의미를 아이와 다시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는 소감을 전하였다.

집 앞 공원에서 아무런 도구 없이 자연물을 이용해 부모님과 함께 다양한 놀이를 함으로써 아이들에게 잊지 못할 가을날의 추억으로 깊게 새겨졌고, 모든 숲 해설과 놀이는 스토리텔링이 됨으로써 나무와 숲은 우리들과 같이 살아있는 소중한 생명체라는 것을 이해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되었다.



우리꽃 창조경제 박람회에 가다.

2014년 창조경제 박람회
기간: 2014.11.27일~30일, 장소: COEX C홀



2014년 11월27일(목), 한국과학창의재단과 미래창조과학부는 서울 삼성동 코엑스 C홀에서 '2014 창조경제박람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11월27일(목)부터 11월30일(일)까지 총 4일간 진행된다. 창조경제박람회는 민간과 정부의 창조경제 성과 및 사례를 종합·소개하여 창조경제에 대한 국민 공감대를 확산 및 참여를 촉진하고자 지난해부터 개최된 행사로 올해 두 번째를 맞는다. 금일 개최된 개막식과 더불어 일반국민, 스타트업 등의 창의적 제품·서비스, 대기업의 혁신기술 및 상생사례, 정부부처·금융기관 등의 지원정책 등을 소개하는 전시관, 각종 컨퍼런스, 포럼, 세미나 등 부대행사로 구성되어 있다.

전시관은 일반 국민들이 창조경제 생태계의 모습과 사례들을 쉽게 공감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구현한 D홀과, 벤처·스타트업을 테마별로 전시·소개하고, 창업멘토링 및 상담, 정부부처, 출연연 등의 성과 사례를 소개하는 C홀로 구성된다. 또한 부대행사는 총 34개로 스타트업 데모데이, 투자R, 수출지원 등 투자, 구매를 위한 비즈니스 행사 및 기업가정신, 중소기업 활성화, 기술 금융, 제도전, 여성창업 등에 관한 컨퍼런스가 열리며, 최근 주목 받고 있는 핀테크(FinTech) 관련 국제세미나와 창조경제 비타인 프로젝트, 특허기술 이전 등 정책성과 발표회도 함께 진행된다.



창조경제에 우뚝 자리잡은 “우리꽃 로열티 품종 전시회

신 성장 산업화의 로열티 수출로 우리꽃연구소의 3품종은 육종가인 박 공영박사(우리씨드 회장)의 상록패랭이 *Dianthus chinensis*, 코레옵시스 *Coreopsis*, 가우라 *Gaura lindheimeri*와 나리연구소의 무궁화 ‘안동2’, 경기도원의 장미 5품종, 경북농업기술원의 딸기 ‘잔디’와 함께 수출상품으로 로열티를 받는 6차 산업의 미래를 밝힌다.

우리꽃연구소는 박 공영 박사(우리씨드그룹 회장)의 Breeder, 품종육종가로 각종 해외유명 원예전시회에서는 VIP로 초청하는 유명인사이다. 농업, 원예산업의 창조경제의 대열에 나란히 서서 과학의 두뇌로 ‘농업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다.’의 슬로건 하에 농업 경쟁력강화를 통하여 국가 상업발전에 이바지한 농업인으로 2013.11.11에 농업인의 날 대통령표창을 수상하였다.

평생 연구원으로 일하는 박 공영박사의 진두 하에 우리꽃연구소의 연구개발은 세계로 이어지며, 2014년 한해 국내에 품종출원 신청의 수는 현재 23종(2014.12.11)이고 올해 안으로 계속될 예정이다. 품종의 연구 개발을 위해 여름철은 이른 새벽 시간부터 연구원들과 품종연구에 몰입하는 시간이다.

일본농진청에 해외품종특허 7개, 유럽에 CPVO 획득외에 2014년 하반기는 미국, 유럽, 호주등등 전세계에 해외품종출원을 준비하며 7개 품종이 등록중이며, 2015년도에는 세계시장에서 더욱 활발히 국내에서 가장 많은 품종을 로열티 시장을 확대 개발해갈 전망이다. 대한민국의 창조경제인 6차산업의 주역을 담당하며, 국내품종 개발자로 해외의 연구원들과 세계시장에서 어깨를 겨루어 세계 시장의 주역을 이룰 시간들을 기대한다.

농업, 농촌에 창조를 담다.

이번 박람회는 공기업과 연구소들이 많이 참여 하여, 중소기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자신들의 기술을 소개하는 자리였다. 연구의 업적을 알리고 필요한 기술을 기업에게 지원하는 역할의 홍보기회를 가진 것이다. 국방부, 해양수산부, 환경부, 특허청, 한국로존, 과학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등등의 공기업과 연구기관들이 참석을 하였으며, 창조농업관을 준비하여 농림축산 식품부, 농촌진흥청, 산림청의 3개 부처의 미래창조 확성과 방안을 위한 6차 산업화, 신 성장산업화, ICT 융 복합, 정책현안 등의 대안과 세미나 개최를 실시하며 정부 3.0 우수사례로서 일하는 방식 개선의 직거래 POS-Mall 구축운영, 농촌체험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제공, 농업인에게 복지서비스, 농산물 종합정보망 원스톱 정보 제공 정보누리과 규제 개혁의 완화 등 등 창조농업의 상생협력으로 각 농촌의 특화작물 판매개발의 산업화 현장을 유통구조까지 이어가는 창조경제의 기간을 계속적으로 융합하고 있다.



‘우리꽃’에 묻혀 사는 60대 정규 신입사원의 희망찬 벚틀가



(2014. 12. 11 우리꽃농장 현대식 온실내, 작업현장)

글 이충호

(2014. 12. 11 우리꽃농장 현대식 온실내, 작업현장)

다짐. 정년 퇴직, 그 후...

제2의 인생을 만끽하고 있는 요즘, ‘나는 참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혼자 되뇌이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예전부터 이런 감정을 을 느껴왔던 것은 아닙니다. 저에게도 요즘같은 일상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날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40여년 가까이 중앙부처 공무원, 대기업 임원, 중소기업 대표이사 등 안정된 직장에서 근무하다가 2013년 4월 ‘퇴직자’라는 꼬리표를 달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직장생활로 시간이 나지 않아 미워왔던 등산, 운동, 여행 등을 접하며 일상의 평화로움을 찾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안정도 잠시 퇴직 이후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이런저런 생각에 고민을 하며 지내게 되었습니다. 때론 견갑을 수 없는 불안감이 엄습하기도 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에 휩싸이기도 하며, 그렇게 하루하루를 무의미하게 보내던 날들이 많아졌습니다. 죽을 날만 기다리며 하루하루를 보냈다면 이해 하실런지요? 문득 ‘이대론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렇게 살다 죽기에는 나 자신에게 너무나 미안해지더군요. 보름달 아래에서 제

2의 인생을 찾자며 나 자신에게 약속에 약속을 거듭했습니다.

도전. 조경 전문가가 되기 위한 노력

그 후, 용기를 내고 노력을 하여 품질인증심사원 자격, 심리상담사 자격을 취득하였습니다. 그러나 저에게 일자리를 선택해 주는 회사가 없었습니다. 어느 정도 예상은 했으나 막상 마주하고 나니 내 자신이 너무나 초라해졌습니다.

어느 날 실업급여를 받으러 고용센터에 방문 하던 중 고용센터 문 앞에서 받은 광고지에 쓰여 있는 국비지원 무료교육이란 글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국비지원 교육에 관한 상담을 받기 위해 고용센터를 다시 방문하게 되었고 구직자들을 위한 여러 지원제도들이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상담을 받고 난 후, ‘국가기간전략산업훈련’의 조경 분야 훈련을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관련 교육기관들을 여러 군데 알아보고 직접 방문상담을 받아 본 후 ‘두드림 직업전문학교, GREEN조경시공설계과정’으로 결정하였고, 훈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기대와 막대한 희망으로 조

경교육과정을 6개월 간 배우게 되었습니다. 조경의 양식, 설계와 시공, 수목의 종류, 식재시공 등 다양하고 체계적인 학습을 하면서 ‘조경은 사람과 자연을 어우르는 종합예술이구나!’라고 깨닫게 되기까지 정말 많은 것을 보고 느끼고 배웠습니다. 6개월을 옆도 뒤도 보지 않고 조경교육에만 매진한 결과 조경기능사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었으며 수료하던 날 훈련생 중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영광도 누리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제2의 인생을 향한 출발선상에 한 걸음을 떼게 되었고 다시 취업할 수 있겠구나 하는 용기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닥아온 제2의 인생의 ‘기회’

훈련이 막바지에 이를 무렵 학원에서는 기업체 실무자와의 만남 시간을 마련해주었습니다. 40년 가까이 정보통신 현장에서 통신대국이 되는 모습을 생생히 체험해 왔던 저인지를, 우리씨드그룹의 기업소개를 들으며 ‘우리꽃’을 통하여 원에 대국으로 자리매김 해나가는 모습을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입사지원서를 제출 하였고, 최종 임원 면접을 통하여 드디어 2014년 7월 29일, 62세 정규 신입 사원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첨단시설을 갖춘 ‘10억동’이라는 별칭의 온실에서 어린 꽃 모종을 기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유도 모른 채 식물들이 병들어 죽는 일이 안타까워 밤잠을 설친 적도 많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꽃이 저에게 말을 걸어주더군요.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30만의 아기꽃들이 싱글거리며 오늘도 어김없이 말을 걸어줍니다.

저는 지금 무엇 하나 부족함 없는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고맙고 감사하고 행복하다는 말을 일에 달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런 감사하고 행복한 마음들을 이웃에게도 나누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같이 일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야학을 운영하며 한글을 가르치고, 식물에 대한 노하우도 함께 나누며 지내고 있습니다. 타국에서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힘들게 생활하고 있는 그들에게 때로는 아버지의 역할을 마다하지 않고 한 가족으로 살고 있습니다.

[꿈]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어린 꽃들이 자라서 저의 품을 떠날 때에는 딸을 시집보내는 것과 같이 서운하기도 하지만, 그때마다 앞으로 꽃 육묘분야에서 1인자가 되고 우리 꽃이 세계 속의 꽃이 되는 날까지 정진에 정진을 거듭할 것을 다짐하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정년퇴직자 여러분! 지금 바로 새로운 시작에 도전하시길 감히 권해드립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해 보셔도 좋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나아갈 길은 분명 있습니다. “두드리면 열릴 것 입니다!”

글을 마치며, 도움을 주신 성남고용센터와 두드림직업전문학교에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천디패랭이의 볼 출화를 위한 모종 작업현장 앞에서



천디패랭이의 볼 출화를 위한 모종 작업현장 앞에서



천디패랭이의 볼 출화를 위한 모종 작업현장 앞에서

두드림 직업전문학교 정보

<http://www.hmhrd.or.kr/>

교통정보 및 연락처

-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신촌1동 4239번지 하이마트8층
- 지 하 철 : 지하철 8호선 수진역 4번 출구, 수진역 지하상가 6번 출구 옆
- 버 스 : 2-1, 33, 51, 52, 88, 88-1, 100, 303, 57, 240, 4419, 462, 8
- 전 화 번 호 : 031-751-3688
- F A X : 031-751-7688

지원대상 : Green조경시공설계

직업안전기준에 구직 등록한 15세 이상 실업자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으로서 고등교육기관에 진학하지 않는 학생
대학(전문대학) 최종학년 재학생으로서 대학원 등에 진학하지 않는 학생(다음연도 2월말 까지 졸업예정인 자)

지원내용

훈련기관 : 훈련비(직능수준별 차별화 지급)
지원·기능인력양성과정 : 직종별 훈련비용 기준단가의 100% ~ 130%
전문·기술인력양성과정 : 성과연계 실비지급
훈련생 : 훈련장려금 월 최대 316,000원 지급

GARDEN & BOOK



식물의 인문학

저자 박중환 글 | 한길사

“큰 나무만 사는 숲은 세상에 없습니다. 식물은 경쟁하지만 다투지 않습니다. 타협하고 상생하고 공존합니다. 인류가 새로운 5000년 문명사를 쓰려면, 식물을 닮았으면 좋겠습니다.”

깐깐한 전직 기자. 숲과 식물을 인터뷰 하다! 저자 박중환은 실업자가 된 뒤 찾아간 형님의 연구실에서 식물을 접한 뒤 그만 매혹되어 버렸다. 취재하듯 써내려간 [식물의 인문학]은 '전문용어 가득한 식물학 책이나 전공서적 속 정보를 더 쉽게 접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저자의 소망이 담긴 공부기록이기도 하다. 기자 출신의 저자만이 포착할 수 있는 새로운 관점이 주목할 만하다.

저자는 숲을 보며 감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시사문제와 관련지어 폭넓은 시각을 보여준다. 식물과 인간 사이의 역사 속에서 정치와 경제의 교혼을 엮고, 식량과 환경의 미래를 걱정한다. 그리고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는 식물을 이해하고 식물을 닮고, 숲을 보호해야 함을 역설한다. 책은 식물과 사람 사이에 있었던 뜻밖의 역사 이야기로 흥미롭게 시작해, 사막화를 막고 숲을 지킨 문명만이 살아남으며 사막녹화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결론에 도달한다.

식물에 매혹당한 남자의 녹색 인터뷰

어느 날, 청와대와 국회를 드나들며 서슬 퍼런 기자로 살던 저자 박중환은 [시사저널]의 파산과 함께 줄지에 실업자 신세가 되었다. 자포자기의 마음으로 원예학 교수인 형님의 연구실에 인사차 들렀다가 뜻밖에도 식물에 매료당하게 된다. 그리고 식물에 대한 관심을 키워가며 잃어버렸던 자신감도 새로운 희망도 찾게 된다. 그리고 식물을 공부해가며 느꼈던 어려움과 아쉬움을 풀기 위해 취재하듯 자료를 모았다. '전문용어 가득한 식물학 책이나 전공서적 속 정보를 더 쉽게 접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소망이 담긴 이 책 [식물의 인문학]은 저자 자신의 공부의 기록이기도 하다. 식물에서 위안을 받고 새로운 삶의 장을 연 경험만큼 책의 내용은 진지하면서도 밝고 활기차다. 기자였던 저자의 이력답게, 감정을 절제하면서도 자상한 달변으로 때로는 강렬한 목소리로 읽는 사람들 식물의 세계로 이끈다. 저자는 원예사업을 하고 있지만, 오로지 식물에만 빠져 사는 신선 같은 사람은 아니다. 정치, 경제, 비즈니스, 문학, 영화, 의학, 역사 등 문화사의 다양한 결 안에서 식물을 생각한다. 감상적이거나 서정적이지 않으면서 다양한 식물의 이야기들을 전한다는 것도 여타의 책들과 다른 큰 특징이다.

식물이 우리에게 주는 뜻밖의 영향들

저자와 식물이 우연히 만났듯, 이 책은 식물과 사람의 우연한 만남들이 인간의 역사를 어떻게 바꾸어왔는지, 그 보이지 않는 힘에 관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 생활 속 흔히 지나쳐온 것들을 떠올리며 '아니 이랬단 말이야?' 하고 무릎을 치게 만드는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가득하다.

식물의 세계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

기자 출신의 저자만이 숲에서 포착할 수 있는 새로운 관점이 주목해볼 만하다. 저자는 식물의 세계에서 경제경영 원리를 배우고, 자본주의 경제의 나아갈 길을 가늠한다. 식물과 관련된 각종 시사문제에도 폭넓은 시각을 보여준다. 인화물질(송진)을 몸에 바르고 산불이 일어나기 쉽도록 만들어 뼈를 깎는 회생을 통해 살아남는 침엽수림의 생존법을 보며 기업들의 구조조정을 떠올린다. 친환경 농산물의 폐해를 지적하며 단일종 재배보다 다품종 재배, 집산지 농업보다 근교 농업을 권한다. 식물들이 뿌리를 뻗을 땅과 햇빛을 받을 하늘을 서로서로 양보하며 나누어 쓰는 상생의 경쟁을 보며 동반성장과 자본주의의 새로운 미래를 보기도 한다.

GARDEN & BOOK



테마가 있는 정원식물

저자 김종근, 정대한, 정우철, 노희은, 신혜견, 권순식, 손상용 글 | 한길사

7명의 현직 가드너가 추천하는
우리나라 토양과 기후에 맞는 정원 식물!

이 책은 일종의 식물도감이다. 그러나 서점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도감과는 다르다. 우선 테마 가든을 조성할 때 필수적인 관련 식물 목록이 총망라되어 있다. 그라스원에 적합한 식물, 만병초원에 도입 가능한 식물, 봄정원과 침엽수원, 화단정원에 어울리는 식물, 드라이가든과 겨울정원을 만들고자 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식물 등 7가지 테마 가든에 어울리는 식물 정보를 책 한 권을 통해 얻을 수 있다. 즉, 테마 가든 조성에 특화된 식물도감이다. 또 다른 장점은 국내 환경에 맞는 내한성 강도가 지역별로 상세히 정리되어 있다는 점이다. 내한성은 'Plant Hardiness Zone'이라고도 하는데 미국 농무부(USDA)에서 만든 식물의 내한성 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어떠한 식물이 어느 정도의 내한성을 가지고 있으며 그 지역의 평균 최저온도는 몇 도까지 떨어지는지를 알기 쉽게 설명해 놓은 도표다.

제이드가든의 가드너 7명이 의기투합해 펴낸 이 책의 또 다른 특징은, 수목원을 방문하는 이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점에 답하기 위해 기획되었다는 점이다.

"우리 정원에는 어떤 식물을 심어야 할까요?"

"봄에 아름다운 꽃이 피는 식물을 심고 싶습니다. 어떤 식물이 좋을까요?"

"만병초원을 만들고 싶은데 어떤 종류가 적합할까요?"

"겨울에도 아름다운 정원을 감상하려면 어떤 식물을 심어야 할까요?"

"튤립 같은 구근식물은 언제 심어야 할까요?"

"건조하고 척박한 환경에도 잘 자라는 식물이 있나요?"

"우리 집 마당에는 어떤 식물이 어울릴까요?"

"우리 동네는 아주 추운데 이 식물을 심어도 될까요?"

"그늘진 곳에는 어떤 식물을 심어야 할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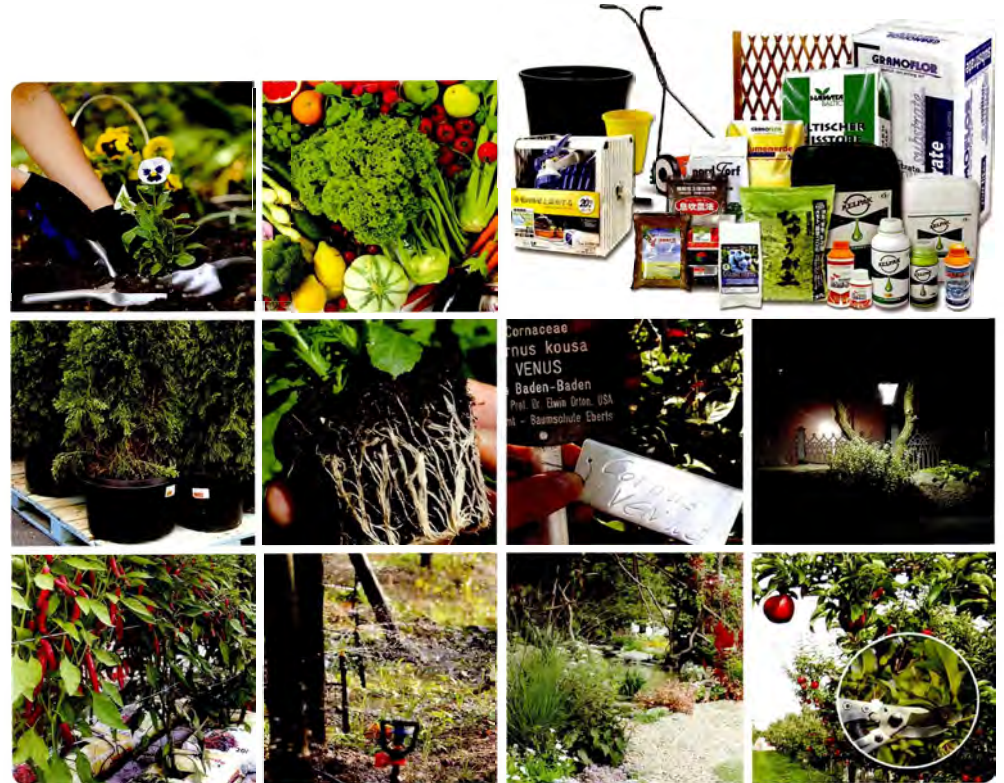
책은 크게 두 가지 파트로 구성되어 있다. 하나는 테마 가든에 대한 개괄적 설명이고, 또 다른 하나는 그 테마 가든에 적용 가능한 구체적인 식물 정보다. 특별한 테마 없이 좋아하는 식물을 모아 정원을 가꾸는 것도 충분히 의미 있지만, 정원 애호가라면 이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 것처럼 색다른 테마가 있는 정원을 가꾸는 것도 시도해볼만한 가치가 크다. 푸아그라보다는 순대와 함께 나오는 삶은 간 이 우리에게 더 익숙하듯, 국내에서 구할 수 있는 식물만 다루었다는 점도 이 책의 돋보이는 점이다.



(주)한국원예자재 전시/판매장

“모든 가드닝/원예자재를 한자리에”

미림가든센터



4계절 변치 않는 수확의 즐거움

4Season
포 시즌 원예용품



다목적가위 적과가위 전지가위 낫 양손가위

주소 : 서울시 구로구 경인로 323 | 소비자상담실 : 080-022-3211
www.dorcoliving.co.kr

(주)미림가든센터 오시는 길

경기도 과천시 물사량로 257 (주암동)
Tel. (02)585-5346, 503-7080
Fax. (02)588-9593

미림가든센터
e-shop **조이가든**

검색창에 '조이가든' 검색



겨울 온천의 최고 명소!!

품격이 다른 온천수 - 테르메덴

가족과 함께!

연인과 함께!



전시설 100% 천연온천수 사용

테르메덴 온천수는 자극성이 강한 유황천이나 산성천 등과는 달리, 알카리성 온천으로 여러 가지 효능의 성분이 골고루 혼합된 온천수이다. 수질은 부드럽고 온화하며, 남녀노소 모두에게 적합하고 특히 병후 회복과 건강증진, 피로회복, 스트레스 해소 등에 탁월한 효능이 있고 신경통, 근육통, 관절통을 완화하고 피부를 아름답고 부드럽게 하는데 탁월한 효능이 있다.

삶의 무게를 느낀다면 **단언컨데** 온천욕은 **가장 완벽한 힐링**입니다.



셔틀버스 운영시간

이천 시외버스터미널 건너편 SC스탠다드차타이드은행(구 제일은행)앞에서 테르메덴 무료 셔틀버스 이용(약 15분 소요) ⇒ 이천 테르메덴 도착

구분	SC스탠다드차타이드은행 ⇒ 테르메덴 (SC스탠다드차타이드은행 앞 출발)	테르메덴 ⇒ 이천터미널 (테르메덴 본관 앞 출발)
매일 (월~일)	08:20 09:20 10:20 11:20 13:00 14:20 15:20	12:40 14:00 15:00 17:30 18:30 19:30 20:30 21:30

※ 만차 및 도로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에이케이레저(주)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 신갈리 372-1
문의 : 031)645-2000